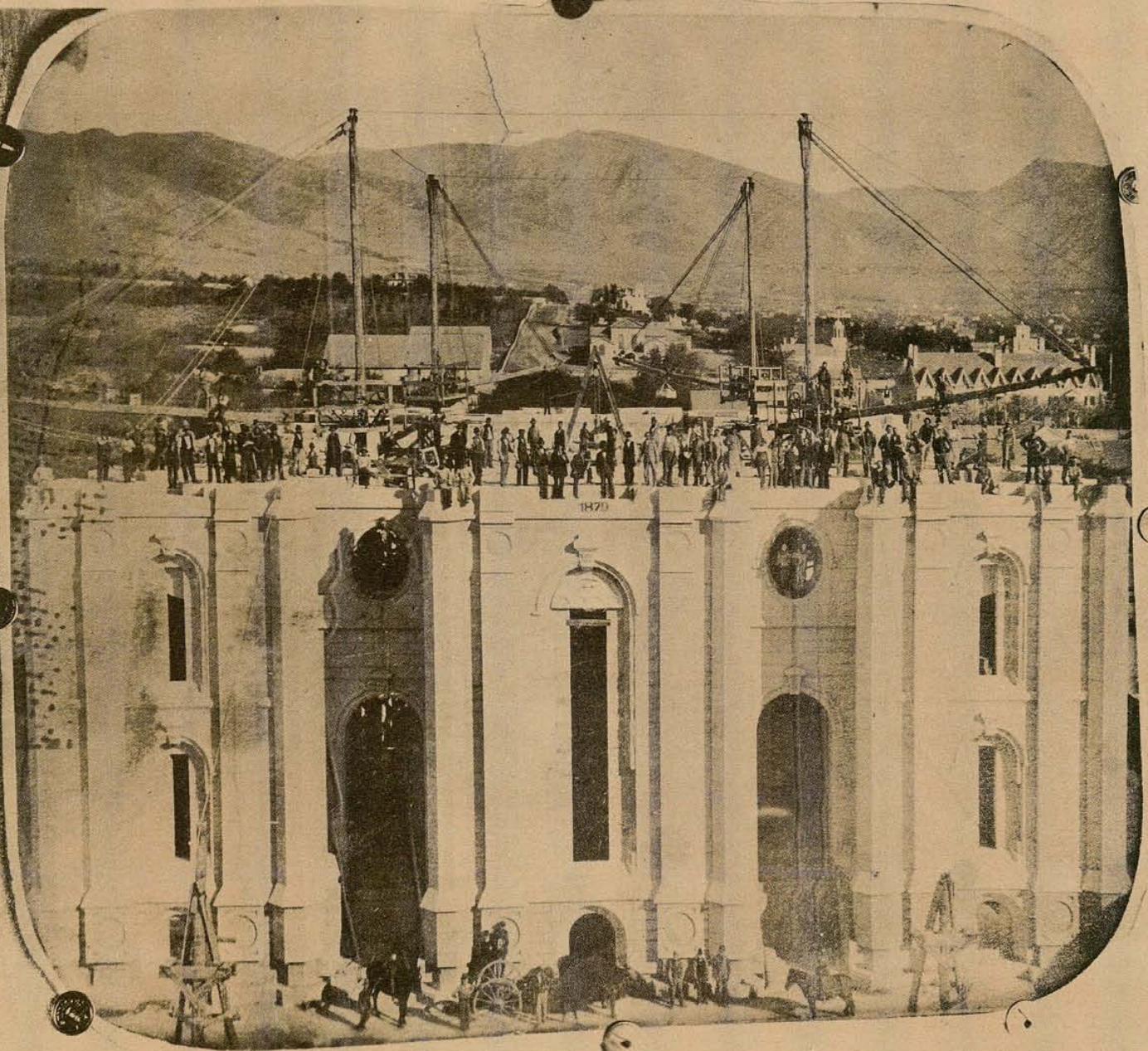


성도의 빛 10

197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7 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고든 비 힝클리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매리온 디 행스
제임스 에이 칼리모어
로버트 디 헤일즈

| | |
|--------------------------------|-----|
| 제 147차 연차 대회 보고 | 1 |
|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 2 |
|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 6 |
|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 9 |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 10 |
|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 11 |
| 고결한 성품 | 14 |
| 1976년도 통계 보고 | 18 |
| 선교사로서 우리 걸음의 폭을 넓히자 | 19 |
|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 21 |
| 성찬에 대한 명상 | 24 |
| 살아계신 그리스도 | 26 |
| 숨기지 못하리라 | 28 |
|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 31 |
| 기도 | 33 |
| 살아계신 예언자를 따르라 | 36 |
|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 38 |
| 복음의 효력 | 40 |
| 수많은 증거 | 41 |
| 그리스도의 빛 | 42 |
| 위대한 형제애 | 45 |
| 위대한 잠재능력 | 48 |
| 한 줄기 밝은 빛 | 51 |
| 중재자 | 54 |
| 팔복에 관한 산상 수훈과 우리의 온전함 | 57 |
|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 60 |
|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 63 |
| 선전자 요셉 | 65 |
| 간결함이 주는 힘 | 68 |
| 매일 사랑하는 생활 | 71 |
| 감사 | 73 |
| 여리고로 가는 길 | 74 |
|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 77 |
| 계시: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 80 |
|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 83 |
|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 86 |
|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필요 사함을 충족시킴 | 89 |
|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기증 | 92 |
|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 95 |
|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 97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총관리 역원 | 100 |
| 지역 지도자 메시지 | 102 |
| 교회 및 지역 소식 | 103 |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통 권 : 제147호, 제13권 제10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7년 10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 1977년 재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권 소우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7 연차 대회 보고

1977년 4월 2,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개최된 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1977년도 4월 연차 대회는 전통적으로 3일에 걸쳐 개최해 오던 대회를 2일간의 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한 첫번 대회였다. (1831년 최초로 2일에 걸친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4월 2일 토요일과 4월 3일 일요일 양일에 열렸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모든 모임을 감리했으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과 제1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으로 구성된 대관장단의 일원이 모든 모임을 인도하였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전원을 포함해서 교회 총관리 직원 27명이 말씀을 하였다.

전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지도자와 회원은 “만장 일치”의 법에 따라 교회의 전반적인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관장단의 조치를 지지했다.

1.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3명이 지지 받았음. 솔트레이크시티 출신 지 호머 더럼 장

로와 제임즈 엠 페러모어 장로, 메릴랜드주 출신 리차드 디 스코트 장로.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력 참조) 이 조치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하는 형제의 수가 41명으로 늘었으며, 교회 총관리 직원 수도 60명으로 늘어났다.

2. 교회 아론 신권 청소년 연령의 소년을 관리할 청남 회장단의 부름에 대한 지지를 물었으나 직책을 맡을 사람은 지지받지 않았음. (10페이지 직원 지지 참조)

3. 초등학교 본부 회장단 보좌에 대한 변경 조치를 지지함. 제2보좌인 콜린 비 레몬 자매가 제1보좌로, 크리스찬슨 머독 자매가 제2보좌로 지지받았음. (11페이지 직원 지지 참조)

모임은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열렸으며, 어셈블리 홀과 근처의 솔트 팰리스에는 추가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개최된 모임은 다음과 같다.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복지 모임), 오전 10시, 오후 2시와 7시(신권회, 전세계의

많은 지역에 폐쇄 회로로 방송됨) 4월 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외에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가 4월 1일 금요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호에 실린 대회 말씀은 미국과 캐나다의 252개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소개됨으로써 교회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필리핀, 텔레비전 방송국 1개: 미국, 라디오 방송국 62개: 멕시코와 중남미, 라디오 방송국 79개, 이 중 브라질에 11개: 오스트레일리아, 라디오 방송국 42개: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 세 모임을 중계함: 폐쇄 회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118개 지역과 유럽의 111개 예매당에 중계함: 신권회는 폐쇄 회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 에르토리코, 하와이의 1,153개 지역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홍콩, 일본, 한국의 37개 지역에 중계됨—편집자. *

1977년 4월 2일, 토요일 오전 모임

주님은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심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개인 역사 기록을 작성하며, 계보 사업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업과 그 성장과 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되니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해 10월 연차 대회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먼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방문하는 것은 비록 많은 시일이 걸리기는 하나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한 거리는 장장 36,800킬로미터나 됩니다. 우리는 칠레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산 지역과 평원과 숲을 따라 안데스 산맥의 고원 지대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지역 대회에서 무려 15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만나 그들에게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는 행복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활동과 태도와 신앙과 간증에서 직접 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금년 초 전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상 기후의 현상과 더불어 미국 서부에서 가뭄이 계속되고, 동부는 한파가 밀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교회회원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는 비를 내려 주시고 기타 지역의 어려운 상태가 중지되게 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큰 축복을 간구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흥분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다만 주님께서 그러한 사태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빌며, 우리의 힘을 다하여 조화있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열왕기상 8 : 35—36)

주님은 때때로 기후를 이용하시어 그의 율법을 어긴 그의 백성들을 징

계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같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레위기 26 : 3—6)

심히 걱정되는 동부의 재해, 그리고 서부와 기타 지역에 위협을 주는 가뭄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물이 필요한 곳에 비가 내리도록 진지하게 기도를 드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곤경에 처해 있으며, 주님이 이에 관하여 우리가 드리고 있는 끊임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보내 온 편지에는 우리의 제언을 모두가 받아들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베인에서 보낸 어느 편지는 다음과 같이 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한 날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드리는 데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가 간구하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게 계속해서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 : 30)라는 엄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한 이 계명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식일에 상점 앞에 열을 지어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볼 수 있으

며, 유원지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다음 성구를 인용해 왔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 : 8—11)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은커녕 일하면서 혹은 해변이나 유원지나 극장에서 즐기고, 물건을 사느라고 안식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레위기 26 : 4)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약속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레위기 26 : 5)

이러한 약속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명에 빗장목을 깨뜨리고...”(레위기 26 : 12—13)

주님은 또한 그 반대의 경우를 언급

하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찌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찌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레위기 26 : 14—17, 19—20)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



다.

“내가...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케 할찌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레위기 26 : 22)

여러분은 고속도로가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연료와 전력의 공급량이 한계점에 이르고 사용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때가 언젠이며,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화평의 문제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신문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퍼져 있는 증오심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레 26 : 25)”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원수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레위기 26 : 31, 34-35)

이러한 일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레위기 26 : 46)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물론 내게도 적용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자신과 깊이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적절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에게로 되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기

역해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낙태와 이혼을 그만두고,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도 중지하며 거룩한 날을 공휴일로 여기는 과열된 생활 자세를 저버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부도덕과 거짓 교리에 대하여 회개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결혼을 성스러운 것이 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우리의 가족을 의롭게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드리노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간음과 동성에 행위를 그만두고, 신앙을 갖고 합당한 생활을 할 때가 아닐까요? 무분별한 외설 출판물의 간행에 중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일, 매춘 행위, 부정 행위, 기타 이와 관련된 일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철한 사고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로새서 3 : 5-6)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살인과)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갈 5 : 19-21)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

김볼 대관장님의 부인인 카밀라 아이링 김볼 자매



읍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없애야 할 적절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교회의 신전 사업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의 신전에서 봉사하고 신전 의식 참여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봉사가 행하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일전에 개최된 모임에서 신전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밝혀 내어 그들을 위한 신전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16개의 신전이 있으며, 이외에도 4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신전 사업을 행하기 위해 신전 지역에 가까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훗날 신전을 이용할 수 있을 때 행하도록 필요한 계보 자료와 가족 기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개인 기록과 약력과 계보 기록을 작성하여 신전을 방문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신전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이를 것에 대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게 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들이 오랫동안 실천해 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회원들에게는 많은 천주교인, 신교인, 유대교인과 다른 교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가족의 혈통을 찾기 위해 우리 교회의 계보 기록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로레시아는 계보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하는 작업을 허가하였으며, 남아프리카와 그외에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계보 기록이 필름에 담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서부에 건립된 최초의 신전인 세인트조지 신전 헌납 100주



년 기념제를 갖습니다.

텔레비전 영화 “뿌리”는 미국인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던져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의 수많은 계보 도서관은 말라기의 예언대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힘의 근원지로서 기록 제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그들에게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의 뉴스 미디어가 이에 관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 반원들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은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있는 신학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종교의 가르침의 확고

하고 명확한 주요 요소의 하나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 3:1)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그것은 불길한 무서운 일입니다.

1세기 동안 계보 사업과 기록에 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삶과 탄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은 방대하게 누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죽은 자들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고, 신전 사업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신전도 건립되어 있지 않았고, 예언자들도 계시지 않았던 시대에 지상에 살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와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애굽기 24 : 3, 7)

나는 다시 가내 경작에 대한 교회 프로그램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 일곱 명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배추, 토마토, 콩, 참외, 기타 여러 가지 농작물을 가득 실은 의바퀴 손수레를 끌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도시 상 파울로의 중심부에 소나무 농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와 이웃간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원은 가정에서 늘 다루게 되는 토론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단합시켜 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정 복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다섯 가정의 가족들은 모두 가내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지금 다음 해의 경작 계획에 마음이 부풀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업은 바로 주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다 영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계명에 귀기울이고, 순종하여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총관리 역원들이 때때로 이와 같은 대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기를 간절히 권고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다시 지상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할 권능을 부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귀기울여 들었던 말씀을 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은 모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은 닫혀 있지 않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께서는 지금도 이곳에서 훈계와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가 따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대회에서 내 마음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신앙을 가진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이거나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 혹은 교회를 통하여 그림을 보거나 이야기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주님의 생애에서 절정에 이른 마지막 사건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배부신 성역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위대하신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 그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사업과 영광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날 그의 사업을 떠는 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목격함에 따라 그의 가르침이 영원한 진리라는 강한 간증을 갖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배반당하신 일과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 기념하게 될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오늘날 변형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 변형의 사건이 그 당시 직접 목격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구세주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 곧 이날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그의 사도들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넓은 식견을 가진 사도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눅 9 : 28 참조) 구세주께서는 택함받은 세 명의 증인 즉 “우뢰의 아들”이라 알려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반석 같은 사람”이라 불리운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신 때는 초저녁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기회를 통해 천국과 같은 평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성역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빛으로 비추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 명의 사도가 그의 영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후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지고, 그들의 신앙도 앞으로 받게 될 모욕과 굴욕적인 사건에 대비할 수 있게 강화되리라고 믿고 그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셨다는 기록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실 때 그를 배척했던 세상의 불신과 사악함에서 벗어나 높이 들리워졌습니다. 기도드리고 계실 때 그분은 변형되었습니다. 그분의 용모가 해와 같이 빛났으며, 그분의 옷은 눈과 같이 희어졌

습니다. 그분은 빛나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온 몸은 성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 저자들이 그와 같은 천국의 광경을 비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는 햇빛이나 흰 눈뿐이었습니다. 두 분이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다가올 시련이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나서 충만한 영광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스러운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간증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세 명의 사도는 이 기이한 변형이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사도는 그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곤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놀라 잠에서 아주 깨어났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들은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사도들은 밝은 빛과 주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와 똑같은 영광과 빛에 싸여 두 분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소리를 듣고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시현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마음속에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을 말했으며, 방문하신 하늘의 사자들이 늦게 떠나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눅 9:33)

그들은 실현성이 없는 베드로의 간절한 제의에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베드로가 말했을 때 구름이 빛나는 광채와 함께 내려와 예수와 하늘 사자인 모세와 엘리야 뿐만 아니라 세 명의 사도를 덮었으며,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가로되, “이는…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눅 9:35)고 하였습니다.

세 명의 사도는 땅에 엎드리고 그들의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1892년에 찍은 교회 본부 주변 전경



들에게 다가와 손을 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기록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모든 일은 지나갔습니다. 광채나는 구름은 사라졌습니다. 빛도 사라졌습니다. 광채나는 모습을 지닌 분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만이 사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산에는 별빛뿐이었습니다.

이같은 일을 겪은 사도들은 땅에서 일어나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마 17: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동이 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시현은 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도들에게

도 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시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로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침묵을 지키며 이상히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히 주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행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과 번민에 대비하여 자신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음에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에서 한 천사가 또 내려와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방울같이 땀을 흘리셨을 때 그에게 힘을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택함받은 세 명의 사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많은 날에 각자에게 힘을 북돋우어 줄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후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 1:14)라고 간증하였으며,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벧후 1:16-18)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변형된 예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으며, 분명히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받았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세상의 구속주임을 증거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를 지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세 명의 사도였습니다.

동산에 있었던 이 세 목격자 즉 그리스도의 으뜸되는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829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벨기세벱 신권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왕국의 열쇠와 사도의 권능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가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권능을 부여하였고,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열쇠를 맡겼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십이사도회로부터 성찬을 받아 교회 회원에게 주의 성찬을 베푸는 일을 맡은 다른 회장들을 도와 주고 있었다. 이날 십이사도회는 성탁에서 그 직분을 집행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형제들에게 이 일을 해 주고 나서 휘장이 쳐져 있는 설교단으로 물러가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엄숙한 침묵의 기도를 드렸다. 이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자 다음과 같은 시현이 우리 두 사람에게 열렸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걸히고 이
해의 눈이 열리는지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
는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
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
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
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

“이 시현이 닫히고 나서 하늘이 또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집합시키
……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더라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 시대를 맡기
며 이르시되,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인하여 우리 후에 올 모든 세대의 사
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현이 닫히고 나서 다른 위대
하고도 영화로운 시현이 갑자기 우리
에게 열리더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
니하고 하늘로 올티워 간 예언자 엘리
야가 우리 앞에 서 계십이라……

“그러므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
렀음을 알리라.”(교리와 성약 110 : 장
요약, 1-2, 4, 11-13, 16)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하늘 사자들
이 성스러운 열쇠와 권세와 권능을 요
셉 스미스에게 주었습니다. 겻세마베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열쇠는 우리에게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선
포하며, 그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이
르렀음을 전할 권능을 부여해 주고 있
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귀기울여 들
었던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의 예언자
께서는 오늘날 이와 같은 열쇠와 권능
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인류에
게 전해야 하는 이 성스러운 메시지를
좀더 깊이 연구해 보시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이 진실하다는 간
증을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구
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교회 재정 위원회 보고

월포드 지 에드링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보고할

우리는 마감 기일이 1976년 12월 31
일인 교회 연례 재정 보고서와
1975년 9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까지의 교회 운영에 관한 연례 재정 보
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교회의 회계
기간이 마감 기일을 8월 31일로 하던
회계 연도에서 역년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과에서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
타 관리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그리고 기금 수입과 지출 관
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관장단이 예산 절차에 따라
교회의 제반 기금 지출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
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 위
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예산에 따라 기
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교회의 확장과 전자 자료 조사 분류
방법의 발전과 병행하여 교회 재정과
와 기타 각과는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위원회와 법률과는 공동으로 연
방 정부와 주와 기타 각국 정부가 교
회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
하여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과와 독립되어 있는 감
사과는 전세계의 선교부를 포함해서
위에 언급한 모든 조직에 대한 감사를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
의 규모와 범위는 교회의 성장과 광범
위한 활동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
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기금에 대
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에게 지명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교회 재정과
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
은 재단 법인의 사업은 전문 감사 기관
이나 정부 조사 기관이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회계 자료
에 대한 검토와 재정 운영을 관리하는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기
초로 삼아 재정과와 법률과의 책임자
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75
년 9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16 개월간 교회의 모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회계가 여기에 설명된 절
차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여졌음을 확
인하는 바입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재정 위원회

월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턴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교회 본부 역원 지지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최 근에 브라질 상 파울루 신전의 초대 신전장으로 핀 비 폴슨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그의 부인 새러 밀리서 브로드벤트 자매가 신전 매트론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폴슨 자매는 초등학교 본부 회장단 제 1 보좌로 봉사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로서 봉사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폴슨 자매를 그 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슨 자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 엘돈 태너 형제를 대관장단 제 1 보좌로, 메리온 지 롬니 형제를 대관장단 제 2 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드,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형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형제들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교회 축복사로 엘드리드 지 스미스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으로 그리고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프랭클린 디 리차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이 디어 도어 터틀, 닐 에이 맥스웰, 메리온 디행스, 폴 에이치 던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

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엘마 소니, 스테일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디어 도어 엠 버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즈 에이 켈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베슬리 스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애드니 와이 고마즈, 조셉 비 워스틴, 에스 딜위스 영,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시 던, 렉스 디 피베가, 진 알 쿡, 찰스 에이 디메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켈로스 이 애시, 엠터셀 밸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본 제이 페더스 톤, 딘 엘 라슨, 로이든 지 데릭,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럼, 제임즈 엠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이상의 여러 형제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터 엘 브라운 형제를 관리 감독으로 에이치 버크 피터슨 형제를 제 1 보좌로,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제 2 보좌로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십이사도 정원회 지역 대표 전원.

템플 스퀘어에 아직까지도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어베틀리 홀은 1877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880년에 완공되었으며 1882년에 헌납되었다. 신전 벽의 일부로 사용된 앞면에 보이는 돌은 채석장에서 번호가 붙여져 운반되었다.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앞으로 임명될 청남 회장단.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바바라 브래드 쇼우 스미스 자매, 제1보좌로 제네스 러셀 캐넌 자매, 제2보좌로 매리언 리차즈 보이어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주일학교 회장으로 러셀 엠 넬슨 형제, 제1보좌로 비 로이드 포울먼 형제, 제2보좌로 조 제이 크리스티슨 형제,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청녀 회장으로 루스 하디 핑크 자매, 제1보좌로 호텐스 에이치 차일드 자매, 제2보좌로 아데스 지 캡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위원회 위원 전원.

초등학교 회장으로 나오미 맥스필드 썬웨이 자매, 제1보좌로 콜린 부쉬먼 레몬 자매 제2보좌로 도러시아 루 크리스찬슨 머독 자매, 기타 현재 구성된 임원 전원.

교회 교육 기구 임원으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엔 엘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매리온 디 행스, 폴 에이치 던, 빅터 엘 브라운, 이상 여러 형제들과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이상의 여러 형제 자매를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 위원회 위원으로 윌포드 지 에드링, 해롤드 에이치 베넷, 웨스튼 이 해밀튼,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이상의 여러 형제들.

테버나클 합창단 단장으로 오클리에스 이반스, 지휘자로 제롤드 디 오틀리, 보조 지휘자로 도날드 에이치 리플링거, 수석 올겐 반주자로 알렉산더 슈라이너, 올겐 반주자로 로버트 쿨딕과 로이 엠 달리 형제.

이상의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킴블 대관장님, 이상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임원 전원이 만장 일치로 지지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여러분의 지지를 받은 호머 더럼 형제와 제임즈 패러머 형제와 리차드 스코트 형제가 순위대로 자리에 앉도록 지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 우리와 그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금단의 열길로 유혹하는 이상한 말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라 말하는 자의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외침과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귓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각 종파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이 교를 통하여 또는 저 교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교의 가르침에서는 예수를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알라 신은 인류를 구속할 아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가 말만 하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파의 지도자는 십자가상의 희생을 돌이켜 보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하간 그 일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침례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기만 하시오. 주님께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종파에서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고백과 고해성사와 연옥에서의 정죄와 성직자의 의식에 대해서 주장하는 종파도 있으며 또 주님은 위대한 도덕 스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리아의 처녀 수태설은 기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평범한 제자들이 종교를 빙자하여 날조한 꾸민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는 종파들도 있습니다.

모든 종파가 제각기 그들 나름대로 신학적 특이성에 맞게 형성해 놓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종파에 따라 형성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고 외치는 이같은 허튼소리 자체가 시대의 정조의 하나님

니다.

예수께서는 말일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는 그의 이름을 딴 거짓 종교가 일어나고 그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이 유도될 뿐 아니라 이같은 거짓 교리와 거짓 교사들이 도처에 횡행하게 되리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의지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참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요, 주님이신 예수께서 말일에 친히 나타나시어 그의 복음을 새로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께 나아와 현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율법대로 생활하도록 권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며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성신의 권세로써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과, 그분들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은 자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화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가르치는 교리와 나의 간증이 진실함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세로써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엘로힘이요, 여호와와는 그의 아들이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서 그들은 최고의 위치에서 계시며, 온 우주를 지배하시네.

거룩하신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지네. 그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는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이시네.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요, 인간은 그의 메시지를 듣네.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영원하신 하나님들이라 증거하시네.

그러므로 하늘에 무한하시고 영원하

신 하나님이 계심을 아십시오. 모든 권세와 힘과 지배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권세란 없으며, 그분이 모르는 진리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하고 충만한 모든 선한 것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요 지지자요 보존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곧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화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생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정의와 그 본질의 견지에서 볼 때 영생이란 영원한 가족 단위로 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바로 모든 인간 중에서 맨 먼저 태어난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증인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사랑과 택함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제정하셨을 때, 위대하신 엘로힘께서 그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고 진보하여 그

1930년경 십이사도 정원회 : 앞줄, 왼쪽부터 : 뎃지 클로슨, 리드 스무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정원회 회장), 조지 에프 리차드; 둘째 줄 : 윌슨 에프 휘트니,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핀들 스미스, 제임즈 이 탈버저; 셋째 줄, 스티븐 엘 리차드, 리차드 알 라이만, 멜빈 제이 벨라드, 존 에이 윌소



와 같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 하셨을 때 그분은 그의 계획을 실천에 옮길 지원자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모든 천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그들이 미래의 지상 생활에서 겪게 될 위험과 시련을 알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구속주의 필요성을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천군에게 다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이 될 자로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의 계획의 조건이 효과를 거두게 하겠느냐?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행하여 이로써 모든 인류가 불멸의 상태로 다시 부활하게 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장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오며,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겠나이다. 죄를 회개한다는 조건부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나이다. 아버지시여,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수없이 많은 세상을 지은 창조주였던 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때 택함을 받고 예비되었으며,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장차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태어나시어 돌아가신 후 영광스러운 불사불멸의 상태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써 문자 그대로 완전하게 아버지와 같이 되리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그때 영으로 태어난 장자는 육체를 입고 태어날 독생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불사불멸과 영생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후 차례대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구속주요 구원자인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지상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존재하게 될 해의 왕국이 된 지구에서 영생을 누

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와의 복음이 나타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모든 일을 알려 주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후 성신의 은사를 받고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율법은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에게 나타내졌습니다. 베드로는 “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43)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거룩한 분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약속된 메시아시요, 구세주와 구속주요, 다윗의 자손이셨으며, 정해진 때가 이르러 약속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이셨습니다.

필멸의 속성을 가진 여자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분은 필멸의 권세를 상속받으셨으며, 따라서 그분은 육체의 모든 유희와 질병에 굴복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사불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은 불사불멸의 권세를 상속받으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다시 말해서 그분은 그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불멸의 영광으로 다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임하게 된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회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변호하도록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불사불멸의 은사를 거저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주 여호와시요, 주 예수님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희망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사불멸을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는 고통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 2서 17절)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일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외에도 그분은 여러 번 나타나시어 지상의 천구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머지않아 그분은 의와 평화의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의 모든 영광으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악인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들은 임재하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요, 우리의 입법자시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려 하고 그의 면전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백성이요, 그의 우리에게 들어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 받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역을 행한 옛 예언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나이 25:23, 26)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과 우리에게 맡겨진 성스러운 책임에 따라 이제 나는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

고결한 성품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를 “불행과 비참”에서 해방시켜 줄 덕성 곧 “이 ‘구시대의’ 덕성”
이 되살아나기를 기원함



여러분 앞에 서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말씀과 아름다운 합창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일전에 나는 어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고용인 한 명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내 친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결한 성품이 몸에 배어 있는 분이 라네. 그는 나와 함께 30년간 일해 왔는데, 나는 그에게서 부정적하거나 불충실한 생각이나 행동을 한 번도 관찰해 본 적이 없었지. 그러한 고용인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신뢰감을 갖게 된다네.”

그 전에도 종종 그랬었지만 나는 그 날 이후로 고결이라는 단어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도 종교나 과학이나 경제에 관한 문 제이든 지방 행정이나 국정에 관한 문

제이든 어느 분야에서든지 완전히 정직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고결한 성품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덕성을 되살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나는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결한 성품이나 고결한 성품의 결여는 거의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 즉 우리의 모든 언행과 생각과 욕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단에서 말씀하는 분들로부터나 현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는 정직, 신뢰, 의로움, 신의, 진실, 친절, 정의, 자비, 사랑, 성실, 그리고 기타 의로운 생활의 원리에 관한 설교와 권고의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한 인간이 이러한 모든 성품을 자신의 내면에 갖출 때, 또 그와 같은 성품이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소망의 원동력이 될 때, 비로소 그는 “완전하고 분할되지 않으며 꺾이지 않는 상태 또는 자질 즉 도덕적인 건전성과 정직과 경직함으로” 정의되고 있는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길을 추구할 것인지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로 통일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자신이 하나 있고, 사업을 위한 자신이 하나 있으며, 또

오락과 가정과 여행 등등을 위한 자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에드워드 샌포드 마틴의 다음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상의 성전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으며

자신의 죄로 상한 심령을 갖는 사람도 있고

앞아서 이를 갈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명성과 재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부절없는 근심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많음”, 오버트 시 태너,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테저렛 주일학교 본부 임원회. 1955년, 118페이지)

그와 같은 우유부단한 자와 정반대 되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이상적인 분 즉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을 우리는 충실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분은 인간은 이중적인 생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한 목적으로 일관된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생애는 바로 고결한 성품을 몸소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덕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치에서도 고결한 성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최고의 값을 부르는 입찰자에게도 매수되지 아니하는 투표권과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점이 없는 성품을 갖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공개하고, 정도를 벗어나거나 이기심이 있거나 나약하지 않

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선출하거나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지켜 나가며, 사리사욕이나 권력욕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항상 깨끗한 자세를 가지는 용기 있고 정직하며 확신에 찬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을 갖춘 대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영국인 농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는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자기 농장의 주위를 일단의 사냥꾼들이 말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밭으로 들어오면 말발굽에 짓밟혀 농작물을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그는 일꾼 한 명을 보내어 문을 닫게 하고 절대로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일꾼이 문 있는 데로 가자마자 사냥꾼들이 다가와서 문을 열도록 명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주인의 지시를 이야기하며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명의 사냥꾼이 번갈아 앞으로 나와서 위협하기도 하고 뇌물을 주어서 문을 열게 하려고 해 보았지만 그 일꾼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말을 탄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다가와서 위풍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테지? 내가 바로 웰링턴 공작이야. 나는 불복종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 나와 친구들이 지나가도록 어서 그 문을 열어라.”

그 젊은 일꾼은 모자를 약간 들어 인사를 하고 나서, 모든 영국인이 존경해 마지않는 그 사람 앞에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웰링턴 공작님께서서는 제가 명령에 불복종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저는 이 문을 열 수 없으며 또 지나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서 공작은 그 일꾼에게 모자를 들어 올려 경의를 나타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일을 하도록 뇌물로 매수시키거나 위협해서 겁에 질리게 할 수 없는 남자나 소년을 존경한다. 이와 같은 군인들로 조직된 군대가 있다면 나는 프

랑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웰링턴 공작을 들여 보내지 않은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수정하여 게재함, 청소년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 인스트라터 출판사, 1891년, 112-113)

웰링턴 공작이 분명히 보여 준 바와 같이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존경을 받습니다. 나는 지도자들이 서로 존경하고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국가간의 의견 대립과 분쟁은 해결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축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업계에서는 고결한 성품이 어떨까요? 실업가와 금융인은 바로 고결한 성품을 지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뇌물과 협잡과 속임수와 기만과 권력을 이용하여 광대한 경제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 들을 때, 서로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한 그룹이 다른 그룹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할 때, 거기에는 고결한 성품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 사업은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고용인들은 더 정직하게 자기의 책임을 수행할 것이며,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가짜 투성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정부도 부정한 상술과 품질이 나쁜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결한 성품이 노조 지도자들과 노동조합들의 결의와 협상의 지침이 된다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지고 있는 것과 같이 결코 불의하게 산업 분야를 지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각자의 축복과 이익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탐욕과 억압과 빈곤은 물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야기되는 고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 역시 고결한 성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이외에는 고결한 성품의 원리를 실천하고 가르치기에 적절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

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고결한 성품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자인 새뮤얼 존슨은 이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간략한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식을 갖추지 않은 고결한 성품은 미약하고 쓸모 없으며, 고결한 성품을 갖추지 않은 지식은 위험스럽고 무서운 것입니다.”(라셀라스, 제41장,

만일 과학이나 물리학 등의 분야에서 고결한 성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며,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려는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갖지 아니한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정직해야 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 만연되지 않은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직업과 활동 분야에 스며들어와 있는 도덕적인 부패와 부정적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괴로움과 비통과 고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 1666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 뱌뮈스뜨 몰리에르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결한 성품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정하고 솔직하며 친절하다면 다른 덕성들은 거의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덕성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동료의 부정 행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인간 혐오, 제5막 제1장)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결한 성품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가 많이 부패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 우리는 가정과 가족 생활을 첨가해야 합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기초가 부정과 이혼과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경시하는 생각으로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침식 작용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가 부정할 때, 간음과 사통과 난혼의 죄로 인하여 비통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파탄된 가정이야말로 국가의 큰 비극의 하나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파탄된 가정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결한 성품이 완전히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에서와는 달리 일어나게 될 그 반대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는 완전히 정절을 지킬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할 것이며,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혼외의 간음을 범하는 생활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이 차고 넘칠 것이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할 것이며, 가장 훌륭한 교사인 모범을 보이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은 의롭게 양육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정직과 고결한 성품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해해야 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그들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항상 그들의 이상과 원리에 진실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게르하르트라는 독일의 어린 목동은 바로 그러한 모범을 보인 소년이었습니 다. 그는 매우 가난하였습니 다. 어느 날 그가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사냥꾼 한 명이 숲속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소년이 사냥꾼에게 말해 주었을 때, 사냥꾼은 만일 소년이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면 후하게 사례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양떼를 잃어버릴까봐 양떼를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대답했을 때, 사냥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양들은 네 것이 아니잖아. 한 두 마리쯤 잃어버리는 것은 네 주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거든. 네가 일 년에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내가 주마.”

소년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마을로 가서 내게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오고 안내자를 인도해 오는 동안 네가 내게 양떼를 맡기면 어떨까?”

소년은 머리를 가로 저으며 말했습

니다. “양들은 아저씨의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게르하르트는 사냥꾼에게 자기로 하여금 주인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한 약속을 지키리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죠?”

중지에 불린 사냥꾼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참으로 충실한 소년임을 알았다. 너를 잊지 않겠다. 내게 길을 가리켜 주련. 그러면 내가 혼자서 길을 찾아 가겠다.”

그 사냥꾼은 공작(대공)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게르하르트를 매우 좋아하여 후에 사람을 보내 그 소년을 불러다가 교육시켰습니 다. 게르하르트는 부자가 되고 권력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충실한 목동”이라는 이야기를 수정하여 게재함, 청소년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청소년 인스트라터 출판사, 1891년 11-13페이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결한 성품은 전혀 얻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우리로 하여금 고결한 성품을 갖지 못하도록 꾀어 내어 어둠과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 가는 사탄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의 구세주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서는 아무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에서 이탈할 때, 우리를 반드시 불행과 비참과 속박의 상태로 인도하게 될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자신부터 시작하여 고결한 성품의 원리를 어떻게 고수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다 함께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활과 소망과 목표를 정직하게 평가하여 봅시다. 그런 다음 성실히 노력하여 그러한 것들을 정돈하고 고결한 성품과 그에 부수되는 덕성을 갖추려는 이상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우리가 일을 영원한 구원과 승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인

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고결한 성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시로 나타내진 진리에 관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조롱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한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부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으며, 바울이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고 옥살을 들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 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 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시 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 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25절)

이외에 요셉 스미스는 고결한 성품에 관한 선언을 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를 쓰면서 그는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 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든

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일상 생활에서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친밀한 동료들 가운데 대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대륙까지 우리의 선조들인 개척자들을 인도하여 성스러운 예언에 따라 위대하고 강대한 백성이 되게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원리에 관하여 타협하였던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시시피강에서부터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평원을 횡단하는 최초로 긴 여행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히버시 킴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언자요 지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조부입니다. 일전에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택함을 받고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의의 대업을 위하여 고결한 성품을 갖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받은 모든 것과 그들이 앞으로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과 극복을 한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설교집, 8:89)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허가를 받는 것은 고결한 성품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로 움이 무시되거나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실은 1841년 1월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서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 계시는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순교자로서 죽음을 겪게 된 예언자의 충실한 형이었던 하이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1844년에 카테지 감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다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며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24:15)

이 말씀은 고결한 성품으로 이웃을

대하는 전세계의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물몬경의 예언자들은 고결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성령이 그들의 동반자로 임하게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해 왔으며 오늘날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결한 성품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오늘 이 성대한 태버나클의 연단에 앉아 있는 헌신적인 총관리 역원의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을 알고 영원토록 감사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수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은 청렴하고 성실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을 갖지 않고 봉사하고 있으

며, 겸손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인 모든 사람이 구원과 승영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며, 그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통하여 교회의 활동을 관리하시고 계시기를 간증드립니다.

오늘 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전세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하게 할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감명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토요일 오전 모임
1977년 4월 2일,

1976년도 통계 보고

보고자 : 프랜시스 엠 기번즈 형제
대관장단 서기

교회 회원이 참고하도록 대관장단은 1976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회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를 발표하였다.

교회 단위 조직

1976년말 현재

시온의 스테이크 수 :798

와드 수5, 481

스테이크 산하의

독립 지부 수1, 422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 및 독립

지부의 총 수6, 903

선교부 산하의

지부 수1, 716

복음 선교부 수148

교회 회원

스테이크 산하 회원 수3, 283, 264

선교부 산하 회원 수459, 485

총 회원 수3, 742, 749

1976년도 교회 성장

스테이크 및 선교부 산하의

축복받은 어린이 수88, 522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52, 281
침례받은 개종자 수133, 959

일반 통계 (1천명을 단위로 한 것임)

출생율 29. 72

결혼율 12. 34

사망율 4. 32

신권

1976년 12월 31일 현재,

아론 신권 소유자

집 사141, 341

교 사109, 396

제 사188, 122

아론 신권 소유자 총수438, 859

1976년 12월 31일 현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장 로320, 876

칠십인26, 328

대제사 120, 117

총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467, 321

총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906, 180

(1976년도 한 해 동안 32, 387명이 증가됨)

교회 조직 (등록)

상호부교회 1, 129, 135

주일학교 3, 387, 454

아론 신권회 267, 352

청녀회 249, 724

초등학교 498, 867

복지 계획

연간 도움을 받은 자 110, 306

유급 직장 취업자 29, 657

복지 계획에 동원된

사람의 노동일 수 (대략)400, 607

복지 계획에 동원된

장비의 사용일 수8, 219

이외에 아이다호주의 티튼 홍수 재난 복구 사업에 동원된 사람의 노동일 수는 125, 000일이나 됨.

계보 협회

1976년도에 신전 의식을 받도록 조사

분류된 성명3, 539, 340

계보과는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80 대와

구두 접견 장치 5 대를 사용하여 현재

35개 국에서 기록을 수집 중에 있음.

1976년도 동안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한

기록은 30 미터짜리 두루마리 910, 661

개의 4.5퍼센트나 늘어났으며, 이를

책으로 만들면 300페이지짜리 4, 334,

559권에 달한다.

신전

16 개 신전에서 1976년도에 집행된 엔

다우먼트 의식의 수

산 자를 위한 의식43, 645

죽은 자를 위한 의식3, 421, 793

총 엔다우먼트 의식의 수3, 465, 438

교회 학교 제도

신학 연구원을 포함해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1975-76년도 등록생 수322, 587

세상을 떠난 분

엘빈 알 다이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 루엘러 리스 크리스찬슨

자매, 십이사도 보조로 고인이 된 엘

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의 미망인 :

아이더 조세핀 머독 커컴 자매, 칠십

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고인이 된 오

스카 에이 커컴 장로의 미망인 : 힐로

하와이 스테이크의 알레이 케이 아우

나 스테이크 부장 : 멕시코 토레온 선교

부의 다니엘 오 트레비노 선교부장 :

옥든 유타 리버데일 스테이크의 밀런

맨 에트우드 스테이크 부장 : 리런드 알

카우먼 박사, 암 연구와 치료의 개척

자 : 케이트 비 카터 자매, 유타 개척

자의 딸. *



선교사로서 우리 걸음의 폭을 넓히자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자들을 찾고 그들과 우정 증진을 도모할 책임을 더욱 많이 지도록 요구하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대회의 영을 느끼며, 지금까지 전해진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 15-16)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 계시에 따라 회복된 복음을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교성 133: 37 참조)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파, 당파, 종파 가운데에 아직도 교활한

계교로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므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인간을 속이려고 숨어 있는 자들이 많음이다.”(교성 123: 12)

우리는 진리와 보다 나은 생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마음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연구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자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과 진보와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김블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걸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행하는 데 걸음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들로 하여금 선교사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우정 증진 활동을 갖게 해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를 찾고 우정 증진을 도모하는 성공적인 회원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주요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함.
매년 수천 명이 훌륭한 회원의 생활을 통하여 감명을 받고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입교하고 있습니다.

2. 친구나 이웃에게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복음에 관한 대화를 시작함.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적든 많은 게 의치 않고 우리는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알고 싶어하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들을 가정으로 초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의 명단을 선교사들에게 보내십시오. 이같은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선교사들에게 제공해주며, 이 일은 열성을 갖고 행하면 무기한으로 계속 될 수가 있습니다.

3.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교회 모임이나 교사 모임이나 기타 행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함. 그들과 우정 증진을 도모할 때 그들은 필요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훨씬 쉽게 거칠 수 있습니다.

구도자 소개와 우정 증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면 선교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가르칠 수가 있으며, 따라서 개종 침례자의 수도 증가될 것입니다.

이외에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선교 대상은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입니다. 수천 명의 회원이 비회원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과 우정 증진을 도모하고, 그들의 가족으로 하여금 선교사와 함께 복음 토론 공과를 배우게 하여, 그들이 간증을 얻게 될 때 침례받고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련 장로들이 비회원 자매와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만이 회원인 가족들을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수련 장로들 중 많은 사람에게 벨기세택 신권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만이 회원인 이러한 가족들을 그룹 단위로 가르치도록 제언합니다. 그룹 단위로 가르치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강화시켜 주게 되어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많은

개종 침례자들이 불어날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다른 한 가지 분야는 우리 선교사의 수입입니다. 현재 복음 선교사가 25,000여 명이 있으나 전세계의 각처에서 점점 선교부가 더 많이 조직됨에 따라 젊은 형제와 자매는 물론 노부부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보다 훌륭하게 준비를 갖춘 선교사들을 더 많이 배출시키라고 당부하셨는데, 현재 이 일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대부분, 특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 비용을 전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신권 정원회와 교회 회원은 교회 선교사 기금으로 현금하여 이러한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정원회 회장은 현금을 우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발전에 대한 보고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대한 선교 활동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어떤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교회 선교사 기금으로 또 수표를 보내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나는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족 우정 증진 선교 프로그램으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족들과 독신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들 중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항상 전하고 있는 많은 간증 중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는 이 위대한 선교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와 같은 헌금은 참된 회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천 명의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외에도 수천 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종자에게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개종자들은 훌륭한 스테이크 선교사로서 일할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킴블 대관장님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재조직하시면서 스테이크 선교 사업에 대해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는 스테이크 내의 칠십인 정원회를 강화시키고, 스테이크 선교부의 선교 사업을 촉진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복음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자기들이 행하는 선교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람으로는 군복무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여러분은 군복무 중에 있는 교회 회원이 무려 2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자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생활함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군복무 중에 있는 회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을 교회에 개종시키고 매년 선교사들에게 수천 명에 달하는 구도자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는 프로그램은 영감을 받아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과 기타 도움이 되는 제언에 따라 교회 회원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칠 구도자들을 찾을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르침을 받음에 따라 회원들은 침례 전후에 그들과 우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말은 진실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우리는 3백 5십여만 명의 회원 선교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선교 사업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물론이즘” 곧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권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내셨으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충만한 복음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머리되시는 분으로 위대한 예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곧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선교 사업을 행합시다.

그러면 하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성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의 주장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는 가장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값진 소유물인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 : 13-14)

구세주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은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인간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일치되지 않는 철학입니다.

서로 모순된 가르침이나 상이한 교리가 같은 결과를 가져 온다는 그러한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진리가 한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많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불변하며 모순이 없으며 오직 하나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각각 상이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파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간증과 경전의 교리를 통해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이며 침례도 하나이며, 참된 교회도 하나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는 신앙이 그릇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며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참된 길을 따르며 변화될 수 있도록 신앙을 탐구해야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함께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 6) 예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 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요 5 : 2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 : 30)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예수와 그의 아버지는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손에게는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교리와 의식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그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 : 22)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 교리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지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도 여러 다른 종파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진리를 해석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어떤 교회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상에 성역을 베푸실 때나 말일에도 그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는 예언자와 사도와 구원과 승영의 복음 계획으로써 자신의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종파에서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구원의 의식을 관리할 권능도 갖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실족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써 그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는 영적으로 동조된 자들에게 “한 무리, 한 목자”(요 10 : 16)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 주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선의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에 나가고, 나는 나의 교회에 나가되 우리 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독교가 참된 복음과 참된 원리를 가르치며 또한 회원들을 하나님의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며 승영시킬 수 있는 구원의 의식을 관리할 권능을 갖고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한복음 10 : 1~5)

그들이 이 비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백히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누탈하고 또 해치느니라”(요한복음 10 : 7, 9, 11-12)

예수가 선한 목자라는 간증은 팔레스타인의 목축의 상태에 익숙된 자들에게 잘 알려진 비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는 그의 음성에 따르는 자는 목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후에 왕이 되었던 소년 목자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사 40 : 11)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는 그들의 여호와 곧 약속된 메시야였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목사들을 양떼보다 급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도적과 삯꾼에 비유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거짓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보다 큰 비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무도 오해하는 자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6 : 16)

예수께서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와 목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고대에 사도들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또한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셨으며, 그들에게 행하신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스스로 임명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요 15 : 16)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 의식을 가르치고 집행하도록 부름받은 인정된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신권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남아 있을 동안 예수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똑같은 교리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전하라고 명을 받았던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오직 하나의 계획이 있을 따름입니다.

구원을 위한 이러한 요건의 다양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엡 4 : 4-5)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 : 8)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여지는 성역, 하나님의 정통 복음 교회, 하나님의 성신은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합과 같이.....”(고전 14 : 33, 34) 이와 같이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고 하나인 것입니다.

계시가 끊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순수한 교리는 세상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왜

곡되었으며, 그때신 불경스러운 새로운 교회가 교회의 의식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교리는 신화적이고 혼란된 교리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혼란은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미혹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배도”(살후 2 : 1-4참조)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기독교는 오랫동안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하나의 근원을 주장하기는 하나 많은 교회와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에 의해 세워진 의식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이 많은 기독교파 중에 진실로 옳은 교리는 어느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지침으로서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 여러분이 진실로 빛과 진리를 찾기 위해 이 약속대로 행한다면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 예언자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알기 위한 단순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 4-5)

예수께서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유일한 분이시며, 그들은 오직 하나의 우리 즉 교회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진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참된 교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권능선을 추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지도자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교회에서는 인간 가운데서 성역을 행하시는 역원 즉 예언자, 사도, 감독, 칠십인, 장로, 제사, 교사와 집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시에 따라 인도됩니다.

교회의 주요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 28 : 19)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동일한 은사가 오늘날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계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등입니다. 이러한 은사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교리와 성약 46편, 물문경 모로나에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이 교회의 회원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 즉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 : 18)고 하신 능력이 오늘날 참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능을 가진 자의 성역에 의해서 교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의식과 축복도 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약과 의무는 현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성신을 통한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 교회가 진실되다는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계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힘이 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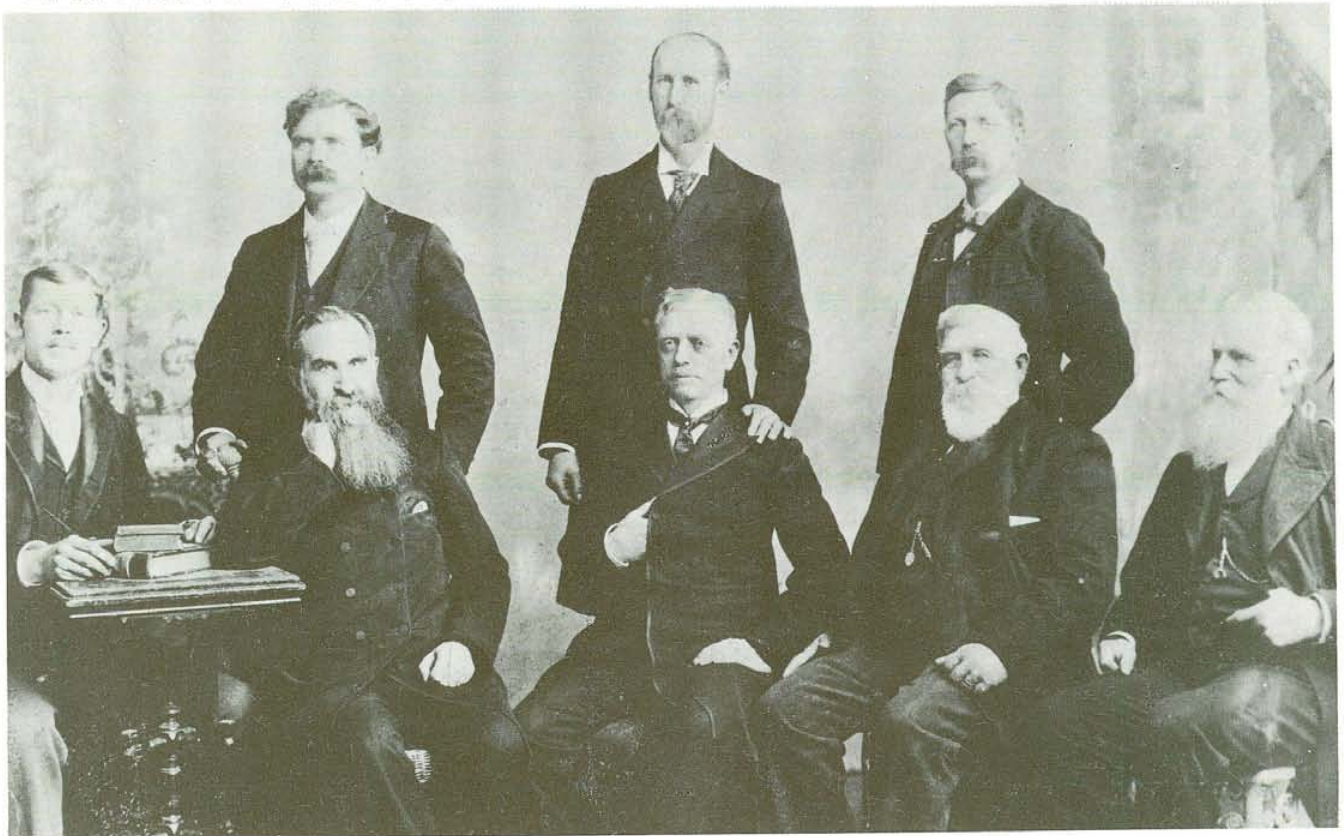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옳다고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확신을 갖기 위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경전과 성신의 도움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알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면 틀림없이 승영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다는 간증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경전은 그 방법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사 55 : 8)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은 종이며 특별한 증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교회에는 식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이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자가 계십니다.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의 시대에 회복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가 세우신 초대 교회는 배도로 인하여 이 지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언자가 되신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원래의 교리와 의식을 회

1896년경 칠십인 제일 평의회회의 회원. 뒷줄, 왼쪽부터 : 브리감 에이치 로버츠, 조나단 킴볼, 무론 더블류 웰즈; 앞줄 : 존 밀스 휘터키(행정 및 재정 서기, 정원회 회원은 아님) 조지 레이놀즈, 시모어 비 영(정원회 회장), 크리스찬 디 프엘스테드, 에드워드 스티븐슨



복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교회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일하는 25,000명의 장로와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름을 받아 자진해서 봉사하고 있으며 자매인 경우 18 개월, 형제인 경우 2년간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우리의 목적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말일성도 선교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어떠한 메시지도 이 메시지만큼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여러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너무도 클 것입니다”(엔사인, 1975년 5월호, 7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장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는 가장 강한 동기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값진 소유물인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전에서 수행되는 특별한 의식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영원히 함께 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장을 연구할 때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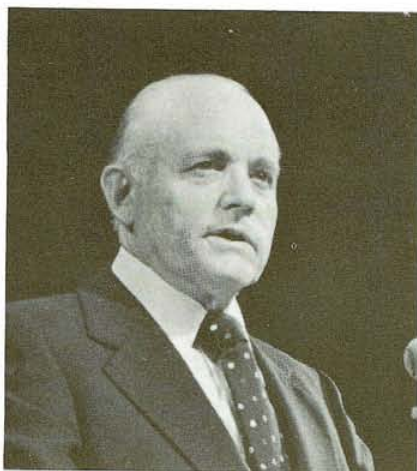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된 목자시며, 그리스도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며,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만이 있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한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자는 오늘날 그의 교회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이 진리가 참되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이 참됨을 간증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찬에 대한 명상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성찬식 동안에 갖는 깊은 명상의 순간은 우리의 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순간입니다



어린들이 모입니다.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 옵니다.

가족은 대개 아버지, 어머니,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도 있으며, 자녀가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종종 혼자 있는 독신 회원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가족도 불어났으나 이제 는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솔즈버리 감독은 그의 정중한 태도로 친절하게 악수하며 우리를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의 복도를 지날 때 우리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 복음 교사인 독시 형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사랑에 찬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였던 켈센 형제도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앉아 있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닐슨 자매와 휘트니 자매도 만날 수 있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빛을 가져다 주어 헌터 자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아름다운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였습니다. 어떤 부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들 옆에 앉게 했습니다. 우리 뒷줄에 앉은 어떤 분은 나의 어깨를 건드리며 우리를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 가운데 앉아 있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이상의 관계인 문자 그대로 형제 자매 가운데 앉아 있었었습니다. 울개은 은은하게 연주되었

얼마 전에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급히 서둘러 내가 속해 있는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안식일날 성찬식에 참석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 가정의 신권 소유자의 인도로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배성찬을 바칠지이다”(교성 59: 9)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지켜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모여옵니다. 남자, 여자, 청소년,

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계의 큰 바늘이 성스러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기 몇 분 전에 조용한 명상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감독단 보좌 한 분이 위엄있고 친밀한 태도로 단상으로 걸어 나와 인사의 말씀과 회중이 부를 찬송을 알려 주었습니다.

제사들은 조용히 성찬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경건하고 진지한 태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또래의 많은 소년들이 그 시간에 오락이나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텐데 그들은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집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단정한 복장으로 아론 신권의 첫 번째 직분인 그 책임을 진실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제사들과 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부모가 계신 훌륭한 가정에서 온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에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과 그의 보좌와 가정 복음 교사와 주일학교와 청소년 조직에서 그들을 돕고 있는 신권 지도자와 교사들입니다. 소년단과 탐험대 지도자와 교사들입니다. 소년단과 탐험대 지도자 이외에 그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제사들과 집사들은 교회의 충실한 모든 장로에게 주어지는 다음 계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갈 것입니다. “은 세상에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교성 68 : 8)

찬송과 기도가 끝난 후 다시 우리가 다음 찬송을 부르는 동안 제사들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은혜 내려
줍소서
우리 성찬 취할 때
주님 사랑에 편히 쉬리
(찬송가 70장)

한 제사는 준비된 떡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기쁘게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교성 20 : 77)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들은 떡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소년이 우리가 앉은 좌석으로 와서 하얀 성찬기를 나에게 내밀었고 나는 성찬을 취했습니다.

나도 역시 헌터 자매가 성찬을 취할 때 그것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헌터 자매는 다음 사람이 성찬을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찬기를 옆사람에게 물리면서 성찬을 취했습니다.

나는 거의 2천 년 전에 예수께서 배신당하셨을 때의 저녁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유월절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유월절 잔치에는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양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의 율법은 시조 아담에 의하여 시작된 이후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희생을 하실 때까지 수세기에 걸쳐 지켜져 왔습니다.

주님과 12 제자가 그때에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 : 22—24)

이와 같이 주의 만찬 즉 성찬은 희생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취하는 자들은 모두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며 또한 그들이 그를 따르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성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동안,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그의 서한에서 훈계한 바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

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 : 27—29)

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상위에 두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가?” 그때 나는 반성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이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찬이 집행될 동안 잠시 동안 깊은 명상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기 성찰과 자기 통찰 즉 반성과 결심의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사가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마시게 하소서.....또 저희들이 항상 그를 생각함을.....그리하여 그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이 물을.....성결케 하소서, 아멘. (교성 20 : 79)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작은 어린애들의 울음 소리 때문에 정적이 깨어지곤 했습니다만 그의 어머니는 속히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될 동안 정적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뿐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린이의 울음 소리는 주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자신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마친 그의 생애의 초기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소년들의 성찬 전달이 끝나고 이어서 격려와 지시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폐회 찬송과 기도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침해받을 수 없는” 성스러운 순간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거리에서 공치기를 하고 노는 소년들과 산속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자 만일 모든 사람이 침례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며, 그 의식에서 맺은 성약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안식일에 성찬식에 참석하여 그를 섬기며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전 대관장님이었던 한 분은 그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맺은 성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성약의 책임을 누가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도달하기 힘든 것이며, 얼마나 광범위 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불경과, 속된 것과, 태만과, 반목과, 질투와, 술취함과, 부정직과, 증오와, 이기심과, 어떠한 형태의 악함도 추방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제와, 근면과, 친절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존경하고, 신권을 존중하고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며 인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밀레니얼 스타, 85 : 778)

그날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했기 때문에 그날이 더욱 뜻 있는 하루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교성 59 : 9-10)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는 한 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물로 죽으셨으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는 다시 살아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모두 그를 충실히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살아 계신 그리스도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전통적인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살아 계신 구세주의 계시에 있습니다.



나는 생애의 7년간 주님의 종으로서 영국 제도와 아일랜드에서 일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요 특권이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선조의 나라인 이 나라는 아름다웠으며, 우리는 거기서 고향에 온 기분을 느꼈으며 또한 그 나라의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킴벌 대관장님, 영국 제도와 아일랜드와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에 있는 말일성도들은 대관장님을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로 지지하며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살아 계신 사도들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살아 있는 예언자와 살아 있는 십이 사도로 구성된 정원회를 갖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민족적인 문제와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가진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의 말일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훌륭한 성도 중 몇몇 사람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대부분은 교인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국 제도에서의 구세주의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까지는 우리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에 산재해 있는 5천 5백만의 주민들을 위해 한 선교부와 약 180 명의 복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960년 전반기까지도 이곳에는 스테이크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에는 27개의 스테이크와 앞으로 곧 스테이크가 될 5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스테이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12개의 지방부를 갖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11,000 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100,000 명이 넘습니다. 1960년까지는 와드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75 개의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갖고 있으며, 47 개의 건물이 건축 중이거나 건축을 위한 수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제도에는 선교부, 스테이크, 지역, 와드, 지부

및 기타 교회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376 개의 교회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영국 제도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식과 성스러운 원리를 가르쳐 줄 주님의 선교사들과 말일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들의 필요 사항을 100분의 1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도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기독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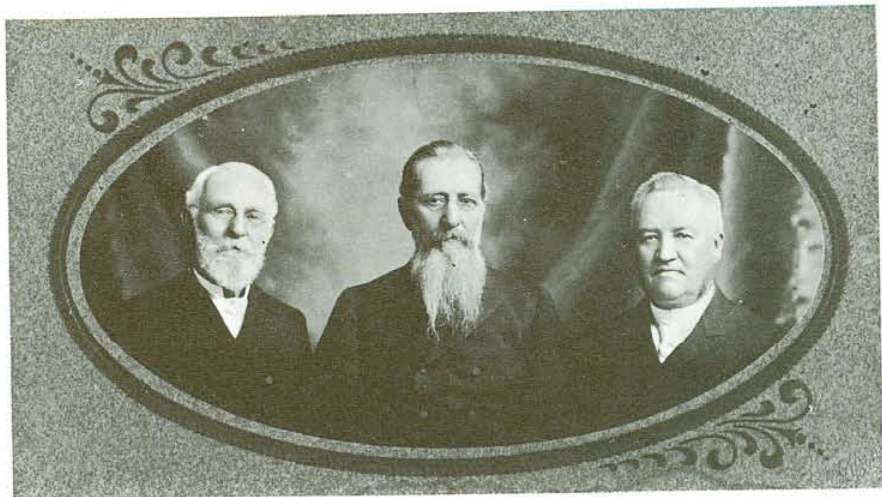
런던 타임즈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은 기독교인인가?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 이들을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부를 수 있다……”

“사실상 그들을 기독교의 또 하나의 종파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종교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신약상의 기독교인의 메시야였으며, 또한 구대륙에서 그의 성역을 끝마치고 신대륙을 방문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도 하다. 전통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과 신교는 예수의 승천 이후에 지상에 다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러므로 물론이 따르는 그리스도는 전통 기독교가 따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알콜성 음료, 흥차, 흡연을 금하는 교회” 런던 타임즈, 1976년 6월 18일 물론 특별 기사, 2면)

대부분의 기독교파는 물론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믿는 것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교회의 신앙개조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며 그분은 육체나 지체나 감정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지체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신회는 개체를 가진 세 분 즉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구성됩니다. 신회와 신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분의 속성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관장단(1901-10): 조세 에프 스미스, (중앙), 그의 제1보좌, 존 알 윈더(오른쪽), 제2보좌, 안손 에이치 윈드(왼쪽)(유타주 역사 협회 제공)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전이나 후에도 살과 뼈를 가졌으며, 감정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눅24 : 39-40)

예수께서는 아래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24 : 4-5, 24)

십계명 중의 첫째 계명에서 주님은 경전의 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 : 3-5) 많은 사람이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지금도 절하

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선지자나 경전을 믿는다고 공언하나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을 비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하늘 왕국에서의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과 뼈의 몸과 감정을 가진 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비난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 : 13)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은 또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인간이나, 주권에 의해서 조직된 종교로서 오늘의 제자에게 하늘 왕국에서의 구원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미혹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노니, 곧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나의 율법이 되는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 아버지께 올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비록 사람으로나 왕으로나 주권으로나 명의상으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 정하여졌을지라도 나 곧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요,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할 때나 그 뒤에 도 남아 있지 아니하리라.

“무릇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로 말미암은 것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림을 받아 멸망되리라.”(교성 132:12-14)

인간이 구원을 얻어 하늘 나라에서 영생을 얻도록 주께서 정하신 방법에는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계시며 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것이며, 그의 계명을 알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예배하거나 인간의 교리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교리와 전통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에서 또다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9)

하나님은 몸이나 지체나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 신앙은 성경의 교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며 다만 인간의 교리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주께서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때로부터 인간은 금송아지와 새긴 우상으로 만든 거짓 신들을 만들어 수세기 동안 백함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서 수억에 이르는 자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영생 곧 성스러운 목적은 오직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그들은 살과 뼈의 불멸의 몸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성경에서 기록된 것과 동일한 그의 교리와 계명과 의식을 가진 교리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 계시며, 곧 권능과 영광 중에 이 지상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숨기지 못하리라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가르치신 진리의 핵심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입니다.



지식을 얻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그가 지상에서 3년 동안 성역을 베푸실 때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명백히 이러한 개념은 그가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교리는 그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교리를 적을 때 너무나 신중하게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편지를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기록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날 어느 교회가 27절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바 모든 것을 회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름 부음을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이용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브룩뱅크 장로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좀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성구를 읽으면 한가지의 문이 떠오릅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의 백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실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으로 있었을 때 자신이 경험하고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능력과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현재 기독교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독실한 회원이라면 고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이 교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지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바울이 말한 인봉의 권세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동일한 인치는 권세가 예언자 엘리야에 의해서 회복되었으며, 후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의 모든 사도에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주어진 예수의 교훈과 가르침은 너무나 성스러운 것이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다하는데 더욱 충실하다고 권고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에게는 이것에 대한 암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돌아가신 후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만일 예수가 그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했다면 그는 어디에 계셨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동안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에게 약속했듯이 영

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조직을 갖추어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시현에 관해서 값진 진주 29—3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이해력이 새로와져서 나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지상에 있을 동안에] 순종치 아니한 영들[영의 세계에서]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지지 않았음을 알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는 의로운 영들[영의 세계에서]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나니,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행10:34) 하시기 때문에 지상에 살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시대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이러한 개념 중의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 이유를 그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지상에 살고 있는 남자나 여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기초와 원리에 따라 심판을 받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의식들이 대리로 행해진 후에 영의 세계에서 이러한 지상의 의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인을 위한 구원의 원리에는 자비와 친절과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숭고하고 중대한 원리가 잊혀져서 현재 기독교계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식은 초기 기독교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은 자주 행해지던 일반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써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초기 기독교도 간에 행해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진리로부터 배도가 생겨났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24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러한 교리와 의식은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자들까지도 이러한 의식을 종교개혁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오직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자신이 이러한 교리를 생각해 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내려와 세상을 가득 채울 그들의 일부이었습니다. (단 2:34—35, 44—45 참조)

그 왕국은 이제 굴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와 같은 성스러운 원리를 가르칠 예언자가 있습니다.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현재의 모든 회원에게 주는 생생한 경고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 사람들이 계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이 일을 서둘러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계보 사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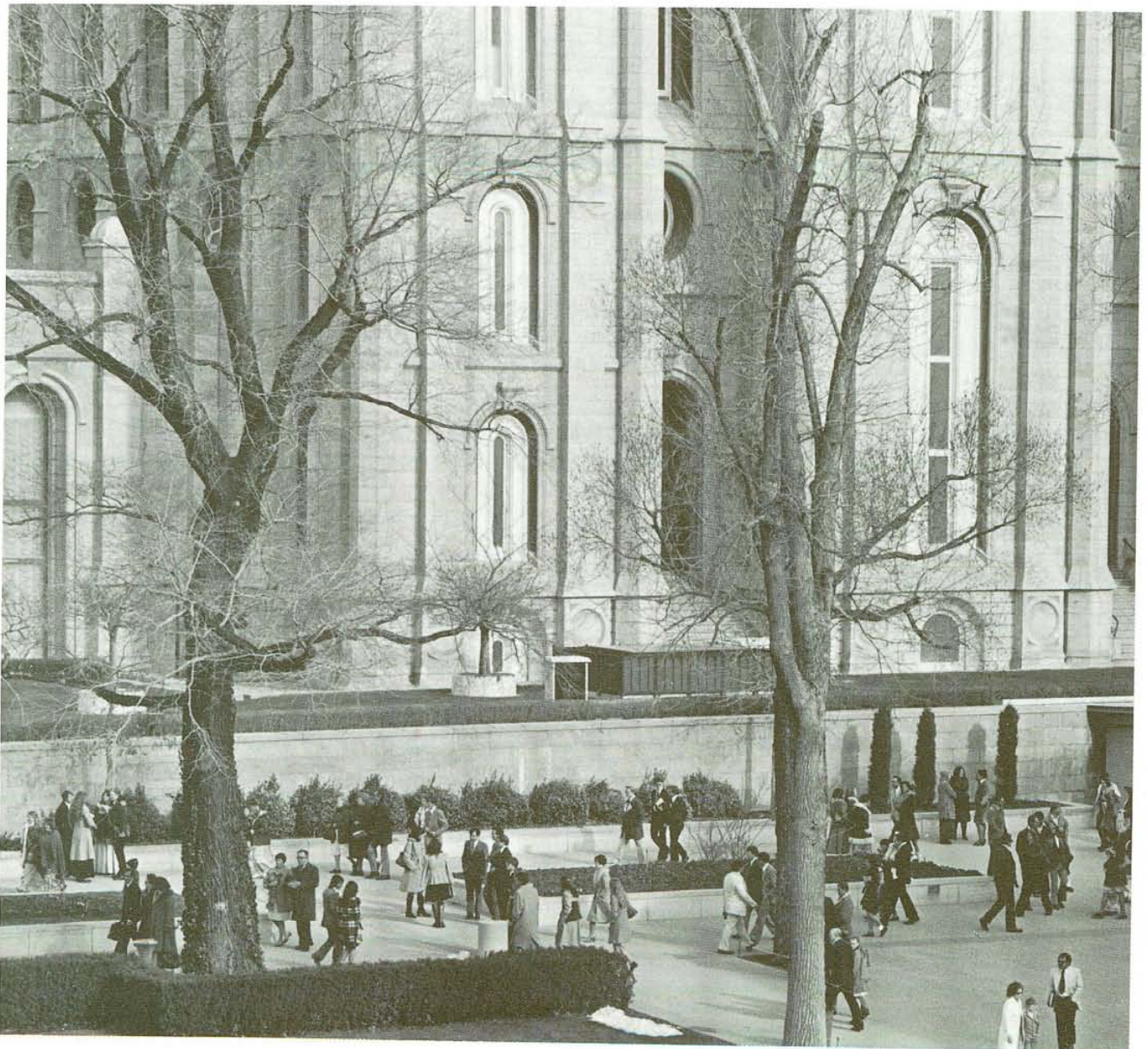
운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계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틀림없이 “왜”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연구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고대 성도들처럼 높은 곳에 계시는 자로부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며,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며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중요시 하라는 것이 교회 회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선교 활동의 계속이며, 완성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선교 사업의 중

요한 일부입니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사업의 긴급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을 재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진척시켜야 할 필요성을 알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거나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까지도 그 지식을 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로렌 시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구조하는 자에게 성신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교회기 시작된 지 126년째 되는 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복음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두 선교사는 존 머독 장로와 찰스 원델 장로였습니다. 그들은 1851년 10월 30일에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머독 장로는 그 당시 59세였으며, 교회 초기의 충실한 회원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대체사로 성임된 첫 그룹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에 의하여 두 번이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성 52 : 8, 99 : 1 참조) 그의 아내는 난 지 6시간밖에 되지 않는 쌍둥이를 남겨 두고 사망했습니다. 이 쌍둥이를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맡아서 길렀습니다.

그가 요셉 스미스의 집에서 살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스미스 형제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겨울 동안……예언자의 방에서 우리는 여러 번 기도회를 가졌다. 어느 날 이 모임에서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하며 강한 신앙을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정오경에 나의 마음에 시현이 열리고 나의 이해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인간의 형체를 가진 가장 아름다운 한 분을 보았다. 그분의 용모는 건장하고 해같이 빛났다. 그분의 머리칼은 밝은 은회색이었으며, 가장 위엄이 있었으며 곱슬곱슬하였다. 그의 두 눈은 푸르고 꿰뚫어 보는 듯이 예리했다. 그의 목은 백옥같이 희었으며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늘어진 성의를 입고 있었는데 그 색깔은 눈부시게 희었다.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분의 표정은 가장 위엄이 있는 반면 가장 사랑스러웠다.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전체를 살살이 훑어보고 있을 때 그분은 나에게서 사라졌고, 시현은 닫히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현은 수개월 동안 나의 마음 속에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강한 사랑을 남겨 주었다.” (존 머독, 존 머독의 생애에 관한 초록, 26 페이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초기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교회에 가

입하게 되었고, 후에 캐나다나 미합중국으로 이주한 자도 많았습니다. 195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이 나라를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그들의 나라에 남아서 시온을 건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후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한 예언자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었는데, 그는 1976년 2월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지역 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킴블 대관장이 이곳에 와서 하신 메시지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라는 감탄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오스트레일리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하는 이유는 교회는 물론 교리에 대해 공부하는 모든 개인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3—17절)

베드로는 구세주와 함께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으며,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를 베드로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누가복음 2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인 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복음이 참되다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성령의 증거보다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나 존 머독 장로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현대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진리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 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8절)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는 말씀은 화평과 뜨거운 느낌을 말하며 영혼을 울리는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종종 이러한 느낌이 주어집니다. 선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떠나고 난 후 혼자 가만히 집에 있을 때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가지며 그들이 메시지를 읽고 연구하고 간구할 때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화평과 기쁨 속에서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것은 혈육이 가져다 주는 느낌보다 더욱 정확한 지식과 확실한 증거를 가져다 주는 느낌입니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개종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매우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20세가 되어 사범 대학을 다니러 집을 떠났을 때 나는 또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종교적인 신조를 찾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가를 공부했고 또한 명상에 잠기기도 했으며, 힌두교와 불교와 선종과 대부분의 신흥 유태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찾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연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집에 장로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야 할 것인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아무런 결실도 없는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몇 차례에 걸쳐 복음 토론을 가졌으나 이미 내가 어디선가 들었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끈덕진 노력으로 서서히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참으로 옳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자주 기도하라고 권고하였고 나도 그렇게 하였으나 여전히 확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느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로들이 나에게 찾아와 다음 토요일에 침례를 받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이 더 많은 질문과 기도를 할 시간을 갖도록 일주일 후에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 허드 장로는 벨슨 장로에게 나를 위해 간증을 드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열렬하게 간증하였기 때문에 간증 도중에 나의 마음 속에 벨슨 장로로부터 나오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그 느낌은 더욱 강해져서 마치 조그마한 구름과 같이 내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끝나자 두 장로는 그들은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며칠 후까지 나의 경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물문경, 니파이삼서 11장부터 26장까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문 밖으로 나가자 나는 물문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다시 마음이 따뜻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반드시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강도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찾아 오는 성령은 동일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과 진실로 연구와 기도으로써 그리고 교회에 참석함으로써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단순합니다. 혈육이 그것을 알려 주진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확인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 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며, 이 교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가 계신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단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가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이 읽고 들은 것을 여쭙어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그와 같은 영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임을 압니다. 이것은 나의 철학도 나의 신조도 아니며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영원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경전은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이 특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내가 받은 조인 중 기도에 대한 조인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의 좌우명과 닮아 되었으며, 영원한 힘의 원천과 신성한 것에 대한 나의 지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경전상의 훈계

나의 부친은 내가 어렸을 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결코 혼자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다정스런 충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너는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충고는 진실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보이지

않는 능력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스러운 경전에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감명깊은 모범과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충고에 관한 훌륭한 훈계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눅 18 : 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 : 41)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한 자기 회를 정복하여 너희 처소에서 너희를 옮겨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교성 93 : 49)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교성 59 : 21)

그후 주께서 부활하셔서 서반구의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실 때 이러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행여 마귀가 너희를 피어 사로잡을까……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채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삼 18 : 15, 18—20)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교

통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교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1. 자주 기도한다. 우리는 경전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엘 34 : 21) 매일 “아침, 낮, 밤”으로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기도해야 합니다. 더우기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니이 32 : 9 ; 교성 88 : 126)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엘 34 : 27)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2. 명상하고 기도할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골방이나, 은밀한 장소나 광야에서”(엘 34 : 26)기도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은밀한 중에”(니삼 13 : 5—6) 기도함으로써 정신이 산만해짐을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기도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성 112 : 10) 우리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엘 34 : 17—18) 우리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막 11 : 25) 그러나 경전은 만일 우리가 “궁핍하고 험벗은 자를 외면하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를 찾아보지 아니하고……[우리의] 소유를 나누지 아니하면”(엘 34 : 28)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4. 우리의 기도는 의미있고 적절한 것이라야 한다. 각 기도에 동일한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매일 우리에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지루한 잠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의 말을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빨리 대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경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존대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존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일과 원수의 권세를 막아 주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복리와 이웃의 복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엘 34 : 20, 22—25, 27)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일과 모든 결정 사항에 관해 주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앨 37 : 36—37)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성 59 : 21)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주께서는 현대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성 78 : 19)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손상을 가져올 것을 구하지 말도록 합니다. (약 4 : 3)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합니다. (앨 31 : 31—33.) 우리는 교회의 대관장,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부장, 감독, 정원회 회장, 가정 복음 교사, 가족, 나라의 지도자의 복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외 많은 제언을 할 수도 있으나, 성신의 도움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롬 8 : 26)

5. 기도를 통해서 간구한 후에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무릎 꿇고 있을 동안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란 우리가 어떤 덕성이나 축복을 간구할 때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덕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진실한 신앙, 북크래프트사, 1966년, 208페이지)

기도의 능력과 효능

나는 경험을 통하여 기도의 효능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1922년 북부 영국에서 짧은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 교회의 반대 세력은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반대 세력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선교부장은 우리가 일체 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사우스 실드로 와서 성찬식에서 말씀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이 꼭 찰 것

입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거짓된 선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의 모임은 대성공을 이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승락했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모임에 갔습니다. 나의 동반자는 첫째 원리에 관해서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배도에 관해 말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모임에는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의 동반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영감에 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감동되었으며, 나는 내 일생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좌석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내가 배도에 관해 말씀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에 관해 말씀하였으며, 그의 신성한 사명과 물몬경의 진실성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비회원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금식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946년에 나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유럽으로 건너가 노르웨이로부터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부를 다시 세우고 복지 물자를 분배할 프로그램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런던에 본부를 설치하고 그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휘관과 먼저 회담을 가졌습니다. 내가 맨 먼저 만나고 싶었던 분은 그 당시 유럽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장군과 만날 약속을 하기 위해 그의 비서실로 갔습니다. 그의 비서는 “선생님, 적어도 3일 이내로는 선생님들이 장군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

은 대단히 바쁩니다. 그의 일정표는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용무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베를린으로 가야 합니다.”

그는 단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나와 우리의 차 속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고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채 15분도 못되어 우리는 장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기관에서 기증된 구호 물자이든지 그 당시는 군대를 통해서 배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군에게 설명한 대로 우리의 주장은 물자를 우리의 경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며, 또한 일반 어린이용 식품을 기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 프로그램과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드디어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물자를 모으십시오. 여러분이 물자를 모두 모았을 때는 정책이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우리의 물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물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의 대관장단에 전보틀 보내면 24시간 내로 여러 화차분의 물자가 독일로 향해 수송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이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나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물자를 우리의 경로를 통해 성도들에게 배부하겠다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계시며 우리가 그에게 의지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영혼을 만족시

키는 일입니다. 전능자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박해가 따르고 역경이 닥칠 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화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혼에 화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평온의 영은 우리 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소년이었을 때, 나는 기도에 대한 이 짧은 시를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시를 기억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언젠가는 응답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말없이 기다린다.

나의 기도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겨 버린다.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다 큰 축복으로 응답하시리라.

(엘리자 엠 힉콕, “기도”, 애송 중 교시, 제임스 길크리스트 로선 편, 뉴욕: 플레밍 에이치 레벨 컴퍼니, 1933년, 160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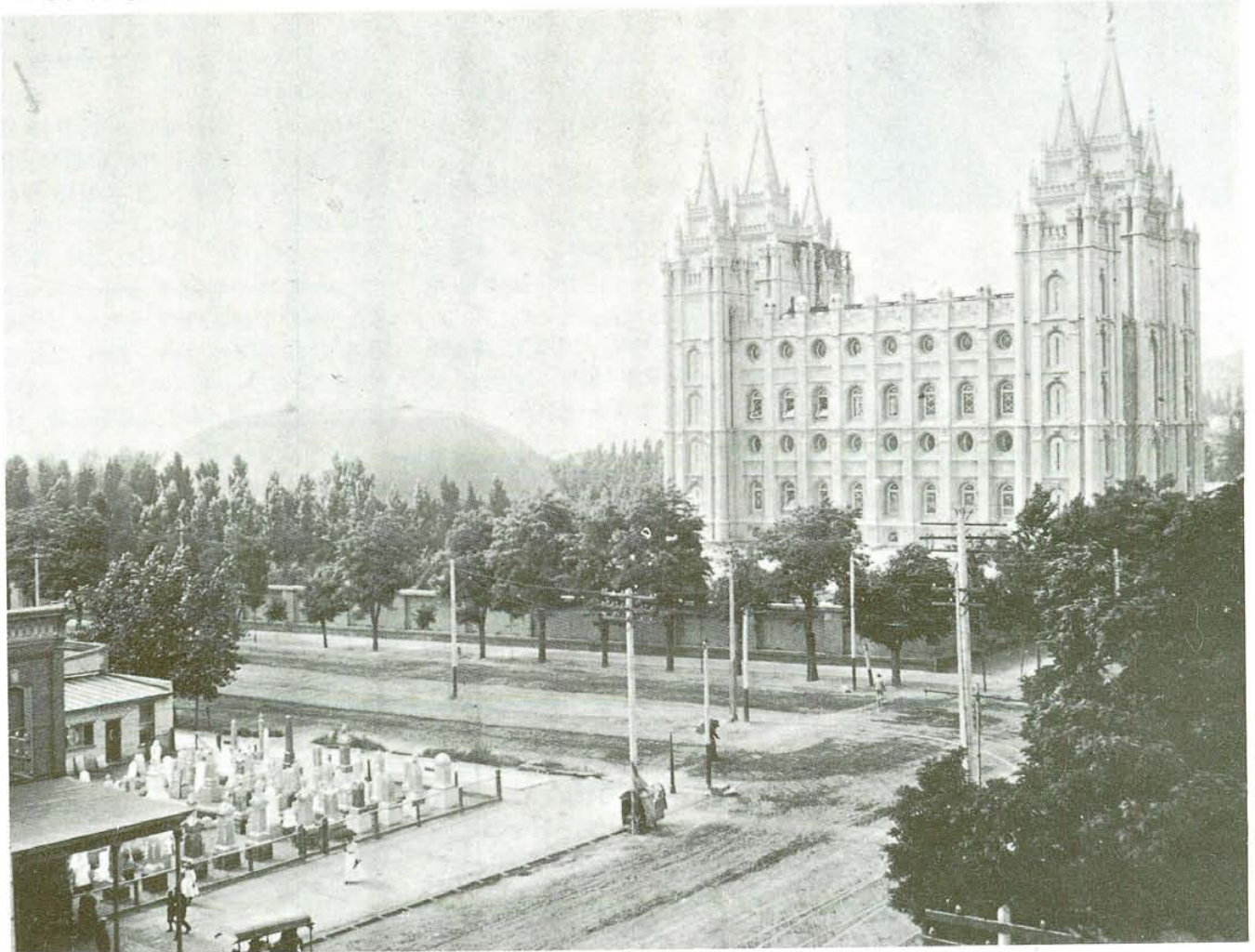
기도에 관한 간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

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즉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께서 참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나의 음성이 미치는 곳에 있는 회원들과 비회원들에게 겸손하게 권고하노니, 기도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접한 유대를 가지십시오. 이 복음의 시대에서 기도의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과 더 밀접한 교통을 갖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892년에 찍은 솔트레이크 신전과 그 주변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살아 계신 예언자의 삶의 방향과 양식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입니다.



지난 신권회에서 말씀드린 이후로 관리 감독단의 책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관장단은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책임은 앞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이관된다고 발표하셨으며 그의 교회의 많은 세상적인 책임이 관리 감독단에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감독단으로서 전세계를 통해 청소년과 본부에 계시는 아론 신권 및 청녀를 돕는 많은 역원과 사귀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위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특별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의 복지와 성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왕국의 세상적인 일에 관한 아론 신권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 나는 보좌한 분과 미국과 캐나다 이외에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모든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세상적인 일을 관장하는 교회의 일반 조직과 그 시설에 대해 역점을 두게 하는 교회의 급성장을 보다 잘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조직상의 변경을 하도록 영감을 주셨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원리 하나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훈은 마태복음 16장 13-18절에 기록된 구세주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진 신권과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신권과 교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신권과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나는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킴블 대관장님이 교회를 관리하실 때 일어났던 모든 변화는 계시의 결과입니다. 그 계시는 구세주께서 그의 교회의 초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계시입니다.

나와 보좌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킴블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지시를 기꺼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충실한 성도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리 대관장은 여러 번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라는 현명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인 말씀 중의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극히 인비 사항에 속하는 어떤 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명문 가정 출신의 아름답고 젊은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의 집을 떠나 현재 동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편과 함께 유태인 거리에 살고 있는 자들과 사귄 적이 있었던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후 그는 매우 흥미있는 편지를 내게 보냈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일 남편은 그의 길고 더부룩한 수염을 깎습니다. 그것은 스테이크 부장의 권고와 신권 공보에 나와 있는 지시 때문이며 그가 신전에 가기 위한 추천서를 얻으려면 악하고 단정치 못한 모습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세와 야곱도 얼굴에 수염을 길렀습니다. 나는 고대 예언자의 지혜와 영성을 남편의 얼굴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세대가 배운 훌륭한 일의 상징물을 제거하는 듯하였습니다.’ 그 편지는 나에게 한 과제를 던져 주고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로서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지시받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암시 같은 것은 여기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것을 솔직히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나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녀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자매님의 편지에서 나를 “사랑하는 리 대관장님”이라고 적었던군요. 편지 맨 첫 문장에도 나를 주님의 예언자라고 불렀던군요.’

“또한 자매님의 편지에 자매님의 남편을 모세나 야곱과 같이 예언자처럼 보이게 한 수염과 머리를 깎게 되어서 슬프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그에게서 그러한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겠군요. 나는 자매님이 오늘날의 예언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현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수염도 긴 머리도 없었으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또한 자매님이 주님의 예언자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종인 저도 그러합니다.

“‘자매님의 편지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나는 문득 내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몇 명의 선교사와 선교부장과 함께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이 순교당하셨던 카테지 감옥이 있는 지역에서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순교당하게 되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선교 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요셉 스미스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브리감 영 대관장과 함께 또는 교회의 다른 대관장과 함께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에 의해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그들의 후계자에게 충성하느니보다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의 외모를 따르려고 합니까? 자매님은 회원으로서 오늘날 교회를

관리하시는 자들을 존경하지 않고서 자매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매님은 왜 자매님의 남편을 자매님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현대 예언자와 같이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모세나 야곱과 같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자매님의 눈에 눈물이 그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위대한 성품을 따르십시오” 율해의 말씀, 유타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 출판사, 1974년 97—98 페이지)

살아 계신 예언자의 지시를 따르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교훈은 열왕기하 5장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람 왕의 위대한 용사였으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졌으나 왕은 후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14절을 읽어 봅시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롬니 부대관장님은 살아 계신 예언자에 관한 그의 재미있는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랜트 대관장이 살아 계셨을 당시 어느 날 연차 대회를 마치고 거리 저쪽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연로하신 분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어느 형제와 내가 한 말씀때문에 심히 화가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언어로 보아 외국에서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를 진정시킨 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은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 예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입니다.’

“‘형제님은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하고 답했습니다.

“‘형제님은 그의 후계자이신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이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고 말고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도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그런 후 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은 히버 제이그랜트 대관장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믿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분이 양로 연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귀에 거슬렸을 뿐입니다.’”

(대회 보고, 1953년 4월 6일, 125 페이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지시는 혼란과 역경의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킴볼 대관장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르기를 빕니다.

나는 오늘날 킴볼 대관장님이 모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젊은이를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젊은이와, 부모와, 가정 복음 교사가 따라야 할 단계



젊은이 여러분, 나는 영원을 향한 여러분의 발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상의 생활에서 갖는 가장 훌륭한 기회의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성스러운 명을 받아 선교사로서 봉사할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준비함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에 훌륭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해야 할 6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1. 적어도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밀접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증거”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라디오의 가냘픈 손가락이 한 곡을 뜬다
그 곡조가 밤하늘을 통하여 강 건너 바다 건너 멀리 퍼진다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선율이 꽃잎처럼 바람에 나부껴 산너머 멀리 떠돌아

다닌다면 붉은 장미꽃과 같은 선물이 푸른 창공을 나른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의심해서 무엇하리.

(에델 로밍 플러, “증거”, 종교서적 작업에서, 제임즈 달튼 모리슨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로스 출판사, 1048년, 407 페이지)

2. 여러분 자신의 경전을 가지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표준 경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3. 이 경전을 자주 사용하여 손때가 묻어 친밀감을 갖도록 하십시오. 오래된 은 구두는 발에 잘 맞습니다. 그것을 오래동안 사용하여 친해지십시오. 매일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늦어도 내년까지 물문경을 한 번 읽을 결심을 하십시오. 하루에 평균 2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4페이지씩 읽는다면 내년까지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신약을 모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가치있는 목표입니다. 다음 해까지 물문경을 완전히 읽겠다는 목표보다 낮은 목표는 세우지 마십시오.

4. 선교사 부름을 위한 저급 동장을 가지십시오. 이 제언은 여러분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이 시각에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비록 그 액수가 적을지라도 선교사 부름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5. 교회에 활동 회원이 됩시다. 이것은 주일학교와 신년회와 성찬식에 참석하며, 여러분의 연령에 따라 소년

단과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6. 가정의 밤에 참여하십시오. 영원한 계획의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은 특별한 영의 일부입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결코 받지만 마십시오. 기도와 여러분이 경전을 통해서 배운 예언자들의 생활과 경험을 여러분은 가정의 밤에서 가족에게 특별한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토대로 삼으십시오.

이제 부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태도는 곧 아들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언자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6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에게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오후 에즈라 태프트 멘슨 회장이 하신 훌륭한 말씀에서 그 토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경전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3. 매일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경전을 읽을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4. 자녀가 그의 시간을 이 거룩한 목적에 바칠 때 개인적인 헌금과 희생물을 바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저축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5. 그들이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범을 보임으로써 인도하고 신권회나, 소년단,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와 보조 조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과 침례와 회개와 성신의 은사의 축복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6.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경험과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하십시오.

아버지되시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가정 복음 교사입니다. 이제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들이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선임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신권 연령의 청소년 동반자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 이러한 단계를 연구해서 아버지를 초빙해서 가정에서 이러한 원리와 단계를 가르치게 합니다. (젊은이는 이 책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청소년 동반자를 발전시켜 주는 임무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분이 기도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함으로써 축복받게 된 것을 간증한다.
2. 여러분이 지명된 가정을 방문할 때 언제나 경전을 휴대한다.
3. 여러분의 경전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성구를 쉽게 찾아보기 위해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 준다.
4. 저금 통장을 보여 주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재정적으로 준비하는지 말한다.
5.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흐뭇한 기쁨을 말한다. 간증을 듣게 함으로써 얻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말한다. 또한 청소년과 함께 즐긴 훌륭한 활동을 통하여 맛본 기쁨을 말한다.
6.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지는 정규 가정의 밤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경험하는 성장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과 나의 청소년 동반자에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823년 6월 어느날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모로나이는 예언자 요셉에게 3번 나타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요셉은 들로 나갔으나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집으로 가서 쉬어라.” 요셉은 들의 담을 막 지나려 했을 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로 그 천사가 나타나 그 메시지를 다시 반복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이 메시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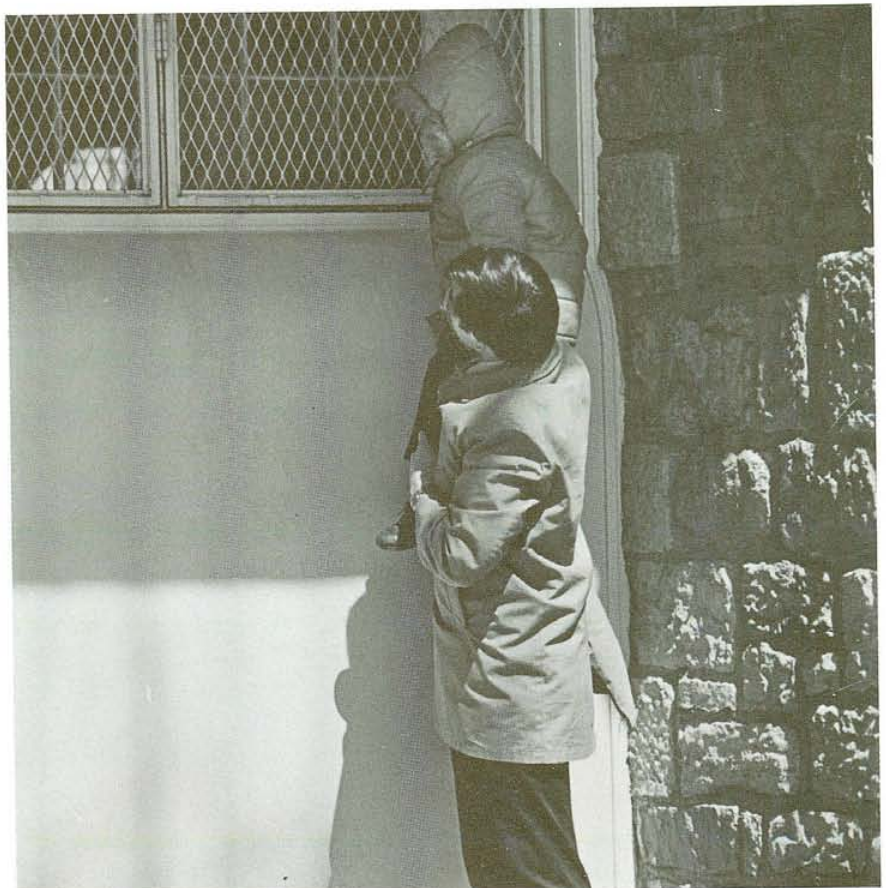
여러분은 몇 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음의 일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

고 이 6가지 선교사의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 번이나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여러분의 부친께 이야기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부친은 집으로 돌아가 그 일에 대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담을 막 지나려 했을 때 땅에 쓰러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4번이나 떠 올랐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준비하겠다.’

1. 하루에 두 번 이상 기도하겠다.
2. 개인용 경전을 준비하겠다.
3. 그 경전이 남아질 때까지 사용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4. 나는 능력껏 스스로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조금씩 늘어 나가겠다.
5. 나는 주일학교, 소년단, 아픈 신권,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그의 나의 연령에 적합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6. 나는 가정의 밤을 통하여 얻는 축복에 감사하겠다.

이제 젊은이 여러분,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년과 청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지역에서 보낸 수개월 동안이 가장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보다 훌륭한 감독이 되고 보다 훌륭한 남편이 되며,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보다 훌륭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을 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결정은 여러분의 인격과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먼저 확고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런 후 용기를 갖고 준비해서 훌륭하게 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복음의 효력

지 호머 더럽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 지지받은 총관리 역원은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서약합니다.



신 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과 총관리 역원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께 나의 전생애와 내가 가진 모든 노력과 재능을 다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유도러 자매도 이 성약에 나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러분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부름을 수행함에 있어 나의 아내가 나의 동반자로서 함께 내조하겠다는 그의 지지와 사랑을 감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도 오늘 밤 소년단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소년단은 믿음직스럽다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밤 특별히 관심이 쏠리는 것 즉, 소년단이 매우

경건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 구세주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과 기쁨과 기회는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신권을 가지신 형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축복받은 이 직책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직책보다 그 범위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구세주의 본을 따라 친절과 예지와 봉사로 이 일을 행해야 함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모사이야서에 있는 베냐민 왕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 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여,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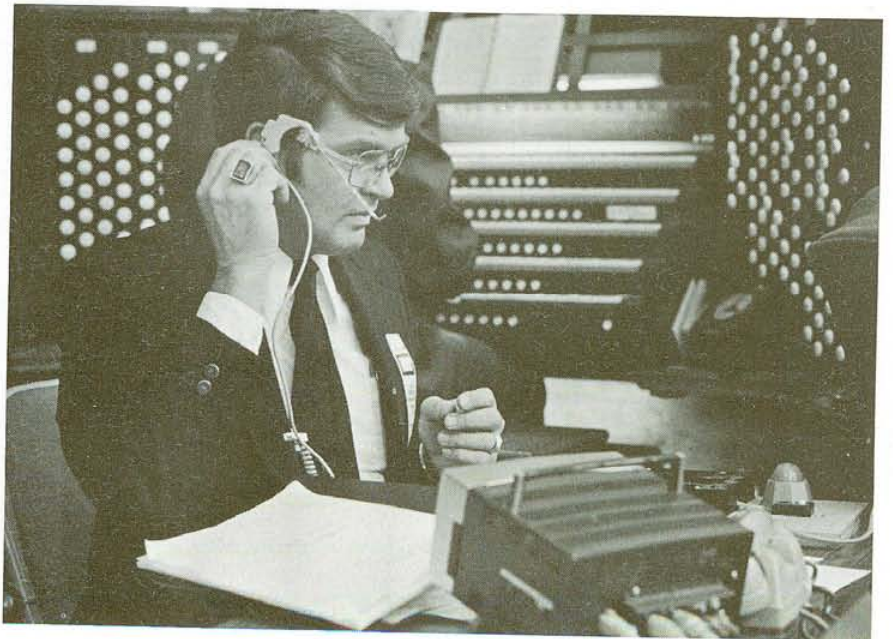
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17)

세상 사람들은 이를 기억하여 그것이 니파이가 말한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루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니일 11:22)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큰 사명의 일부입니다.

니파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언고자 하는 것”이며 찬사는 그에게 “그러하도다,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니일 11:23)하는 말로 확인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 필요가 있으며, 신권을 소유한 우리 형제들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과 이러한 원리를 내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그러한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가르쳐 주며,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인 예지의 최고의 표현으로 발전시키도록 가르쳐 주는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여러분께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은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는 살아 계시며 실재하시고, 그가 선택하신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통하여 오늘날의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 복음의 간증의 진실성을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를 내가 경험한 대로 겸손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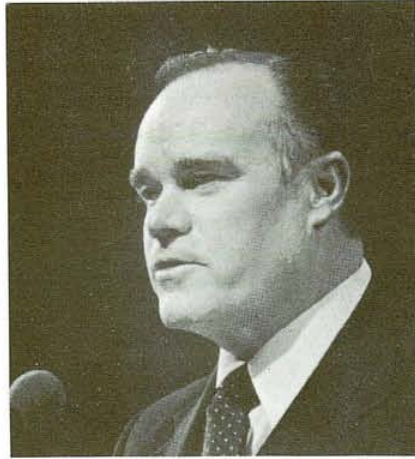
오늘날 이 세상에는 87,000여 명의 학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운데 하나의 학위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 박사, 변호사, 엔지니어, 석사, 학사, 여러 분야 및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 유효성을 증명해주는 이러한 서류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이 유효하다고 믿지 않았다면, 내 이름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학위도 이곳과 다른 곳에 있는 열 개의 종합 대학 및 단과 대학에서 이것을 획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학위증을 받는 자 중 상당한 과정을 밟아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조금도 의문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와 같이 훌륭한 자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영원한 복음의 가치와 그 진실성을 깊이 확신했으므로 이를 증언합니다. 나는 그들이 학위 수여자 명단에서 내 보잘것 없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는 모든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며,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도 모든 인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는 나의 간증 역시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세상의 악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적을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회복되었으며, 죄 사함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열쇠는 참되며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하에 오늘날의 교회에서 계속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수많은 증거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감사와 언약에 관한 간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자매가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샌디에 살고 계시는 나의 모친이며 또 한 자매는 나의 아내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합니다.

나는 예언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4년 동안 그분을 곁에서 모셔 왔으며, 또 삼년 동안은 벤슨 회장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신전에서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심을 간증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남편이 활동적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여, 신권을 받아 들이도록 기도하신 인자하신 어머니에게 찬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어머니의 지지 속에서 자라왔으며 결국은 부친께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간증을 받으심을 보았습니다. 나는 부친을 존경하며 사랑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내 친구가 되어 부

자 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었습니다. 부친은 일하는 법과, 사랑하는 법과, 비판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양친께 크게 감사합니다.

나는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짧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나는 3, 4천여 회의 모임에 참석했다고 생각되는데,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의 아내는 언제나 나를 잘 내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일학교役員회 모임에 나가려 하자, 아내가 “일찍 들어오시죠?”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는 돌아오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11시가 되고 11시 30분이 되어도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열려고 하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결국 아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들어오실 생각이 말아요.”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한 번도 아니고 헤일 수도 없지 않아요.”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차는 내쉬 램블러로 앞좌석을 침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오버코트를 둘러쓰고 차 속으로 들어가, 좌석을 펴고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는 현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차 있는 데로 와서 내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몹시 추웠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의 아내는 참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많은 세월 동

안 나를 한결같이 도와 주었습니다. 항상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감사합니다. 나는 선교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중에 수많은 간증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내 딸이 귀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축복을 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축복을 하자, 채 축복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나의 삶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며, 앞으로도 바칠 것임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살아 계심을 내가 알며, 그의 일을 사랑하고, 복음의 원리가 참됨을 내가 알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언자와 심이사도 평의회와 리차드 형제님과 기타 회장님들을 지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날에 “오직 한 일”(빌 3:13)을 좇아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 하신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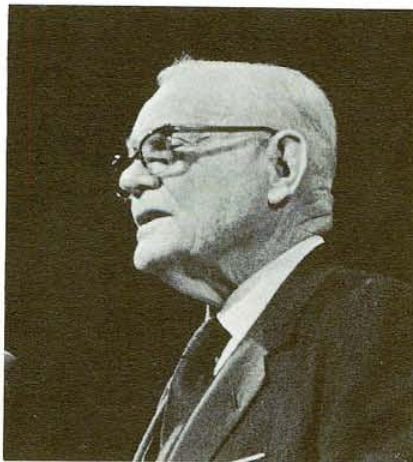
전기 기사 이 지 홀덴이 185피트 높이의 스프링클러 신전 동북쪽 탑 꼭대기의 구리 철탑에 매달려 있다. 전구에 불이 켜지면 8,100축광의 빛이 발생한다. (엠편드 사진, 1893)



그리스도의 빛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세 가지 면 (1) 모든 인간을 밝혀 주는 빛, (2) 성신의 은사, (3)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 : 45-46)

이 영은 분명히 우리들의 양심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웹스터 사전에서는 양심을 이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식”

물론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영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끊임없이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매 무엇이라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마음을 기울여 혹 간악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을 악마의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보라 나의 형제들아, 선과 악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일은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라. 또한 이를 판단하는 일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아는 것 같이 지극히 간단한 일이나.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모로나이서 7 : 13-16)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과 더불어 거하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다면) 그들이 진리를 알고 더욱 큰 빛과 성신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될 때까지

형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세 가지 면에 대하여 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밝혀 주는 빛입니다.

둘째는 성신의 은사입니다.

세째는 좀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와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7, 12절)

다른 계시에는 이 빛에 대하여 이같이 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복음교리, 데저렛 출판사, 1973년 7-8 페이지)

이제 스미스 대판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주제의 두번째 면인, 성신의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성신은 하나의 인격체요, 영이며, 신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증언과 지식과 복음의 진리를 전해 줍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진리를 불어 넣어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신과 성신의 은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고벨로는 침례를 받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 성신을 받았으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성신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 그가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시켜 준 성신은 그에게서 떠나갔을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99페이지)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합당한 인간에게 빛과 진리를 받을 권리를 줍니다.

성신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과 회개와 침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신의 영과 권능과 인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위해서는 의로운 생활 즉,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늘 일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신은 신회의 세번째 구성원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므로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교성 130:22)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위대한 증인이며, 사자이고, 간증자입니다. 구세주는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 16 : 13-14)

성신의 증거와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개인적인 간증을 받습니다.

성신의 은사의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성신과 함께 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에 관해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 백성에게 왔으며 저들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였더라.”(교성 6 : 21)

세 공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와 같이 암흑에 있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고전적인 어투로 설명했습니다. 마태 복음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하나라 하나이다”(마 16:13-14)

이같이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주님의 훌륭한 사업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안 것이 분명합니다. 빛이 그들 주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빛의 참된 본질은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난 후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 : 15)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6)고 대답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중에, 베드로는 그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들 주위의 영적인 암흑의 세계를 비추는 빛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답에 응답하시는 중에, 예

수는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서 빛을 이해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같이 답하셨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성신에 의해서 오는 계시의 반석 위를 의미합니다—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 : 17-18)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이해시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빛이 있음을 알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예수와 니고데모가 한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 : 1-5, 3 : 6-10절 참조)

인간은 성신의 은사에서 나오는 빛과 권능을 실제로 받고 경험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교성 131 : 5)이라는 세번째 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벤후 1 : 10)하여 얻는 것으로 예언자 요셉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 사함을 위한(침수로써의)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주께서는 이내 그에게 아들이, 네가 높이 올리우리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께서 완전히 그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어

떠난 경우에도 그를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확실하고 그 사람이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게 되면, 성 요한의 간증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는 다른 보혜사를 영접할 특권을 갖게 된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0페이지)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주께서 오하이오주의 초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제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곧 나의 친구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곧 약속된 성령을 보내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노니 다른 보혜사는 요한의 간증속에 기록된 것같이 내가 이전에 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바로 그 보혜사니라.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의 약속이니, 곧 해의 왕국의 영광이니라.”(교성 88 : 3-4)

나는 충실한 모든 말일성도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원하며, 하늘에서 인봉되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릴 약속을 받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정사, 5 : 388)

나는 이 성서적 기록을 읽으면서, 영혼속에 더욱 분명한 뜻을 가진,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 모든 시대의 인간의 기록된 경험을 보았습니다.

리하이의 손자인 이노스는 의에 굶주려 주께 간구하였던 바,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가 복되리로다.”(이노 5)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몇 년 뒤에 이노스는 이와같이 약속된 축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나의 휴식의 처소로 떠나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다. 내가 그 안에서 쉴 것을 앎이로다. 죽어야 하는 나의 모두가 죽지 않는 불멸의 것으로 바뀌며,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뻐하나니, 그 때에 내가 기쁨으로 주를 대할 것이요, 주는 내게 이같이 이르시리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전당에 너를 위해 마련된 처소가 있노라.”(이노 27)

엘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네게 언약하노니, 네게 영생을 주리로다. 나를 섬겨 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의 양떼를 한 곳에 모으라.”(모 26 : 20)

열 두 명의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구

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 너희가 어찌 되기를 내게 원하느냐?

“이에 저들이 셋을 제하고는 모두 이르기를,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살며 부름받은 뜻을 다하여 인간들을 가르쳐 인도하다가 생을 끝마치고 나서는 속히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를 원하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각각 향년 칠십 이세를 수하고 나의 왕국으로 나를 찾아와 나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리로다.”(니삼 28 : 1-3)

모로나이가 혼자서 야벳인의 기록을 요약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와같은 위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충실하였음이다. 그러므로 너의 입은 웃이 정결케 되리로다. 이제 내가 너의 언약을 알았으며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전에 예비한 처소에 앉게 하리로다.”(이더 12 : 37)

바울은 디모테인들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딤후 4 : 6-8)

이 율법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받았습니다. 1839년 봄에, 예언자 요셉과 그의 성도들이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대관장의 조부님인 히버 시 킴볼 형제님께서, 성도를 돌보고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큰 일을 맡아 하셨습니다.

4월 6일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지가 두 달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소식 하나 듣지 못했다. 감옥에 있는 형제들도 그대로 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파멸이 따르고 있다. 마음이 몹시 슬프고 외롭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성신이 내게 ‘기록하라’고 하시어, 나는 종이를 집어들

어 무릎꿇고 다음과 같이 적는다.

“진실로 나의 종 히버에게 이르노니, 그때는 나의 아들이라. 그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때가 내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내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나의 종 요셉 스미스에게 거슬리지 않고, 내가 축복한 말이라면 가장 사소한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존중했으니, 그러므로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이름이 하늘에 쓰여져,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 하리라.”(울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북크래프트사, 1975년 241페이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이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요,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 것임이다. 진실로 내가 네게 승영을 맺어 주며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네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앉을 보좌를 마련할 것임이니라.”(교성 132 : 49)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요약과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위대한 진리의 진실성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교성 84 : 46) 깨우쳐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르며, 신앙을 갖고 침례받으며, 권능을 가진 자의 안수례에 의하여 성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의 가르침에 따를 때,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받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이같이 행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의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0페이지) 예언자의 권고에 따른 사람은 더욱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얻게 됨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 신권 소유자를 축복하시어,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을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위대한 형제애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와 행하는 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전미국 기독교 및 유대교 협의회로 알려진 기구와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도시마다 평의회를 두고 지방 역원과 위원회로 이루어진 전국적인 기구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외에서는, 캐톨릭과 신교와 유대인과 물론이 각기 한 사람씩 나와 우정 증진과 형제애를 위해 공동 의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 때 나는 전세계의 모든 종교인과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구의 회장인 데이비드 하이엣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품과 가치를 존중하는 형제애는 철학적인 수사나 깊은 사고가 아닌 의식적인 행위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애는 잘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형제애란 권리나 존경심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히 단순하고

도 심원한 것입니다!” (“집단 간의 고집과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 엔 시 시웨이 소책자, 1974년 12월, 3페이지)

나는 이 기구의 회원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목적과 이상을 연구해 보는 동안에 그들이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는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나는 형제애나 자매애를 위해 또는 기타의 원인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생각해 보았으나, 내 마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형제애의 단체인 하나님의 신권의 조직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직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늘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회원이 되는 데에는 큰 책임과 기회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원이 되고, 각자의 정원회의 숫자를 채우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유일한 조직적인 우리 형제 모임에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모든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가족 단위는 영원하며, 모든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영원한 진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형제애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고 생각하며, 그들이 정직하며 명예롭고 이웃 사람에게 선하게 대한다면,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기타 필수 요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제실 때 세우신 것과 같은 조직인 그의 교회에 속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며,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교성 59 : 9)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은 자주 모여 주 예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필요가 있느니라.” (교성 20 : 75)

더 나아가, 그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제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성 66 : 77)

그리고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 : 32)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이곳에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스스로 준비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 목적으로 지구는 창조되었으며, 경전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아브라함 3 : 24—25)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고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권능을 받은 종의 지시를 받아 그의 교회에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헨리 디 테일러 장로가 “인간은 홀로 서지 못함”이라는 제목으로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에서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소년이 북서 지방의 목재소에

서 일하고 계신 삼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삼촌이 정거장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읍니다. 두 사람은 목재소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갔읍니다. 소년은 주위에 뿅뿅하게 서 있는 큰 나무들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언덕 꼭대기에 멋있게 생긴 나무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감격해서 소리쳤읍니다. ‘삼촌, 저 큰 나무 좀 보세요! 저건 정말 근사한 목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조지 삼촌은 머리를 서서히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저 나무는 훌륭한 목재가 될 수 없어. 그것은 작은 여러 개의 목재는 될 수 있어도 훌륭한 큰 목재는 될 수 없어. 나무가 동떨어진채서 자라게 되면, 가지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된단다. 그러한 가지는 나무를 목재로 만들 때 옹이가 된단다. 가장 좋은 목재는 숲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생기는 법이지. 나무는 함께 자랄 때 크고 곧게 자라는 법이란다.’”

테일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혼자 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자랄 때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유용한 재목이 되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5년 4월, 54-55페이지)

스터얼링 더블류 실 장로는 “행진”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기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2500년 전에 무지한 그리스인들이 여럿이 발맞추어 행진하는 과정을 완성했을 때부터라는 말이 있다.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성격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 사람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하고 협동할 수 있게 된 그 날부터 문명은 시작되었다.”(“통찰력과 투지력” 1977년 3월, 지도력, 북크래프트사, 1958년, 1:222-29)

교회의 모든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발맞추어 행진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돕고, 교회를 돌보고, 모든 인류와 우정을 나누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신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불행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복지 프로그램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으나,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해 축적해 두는 것입니다. 전세계 각 곳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불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창

고에 쌓여 있는 일용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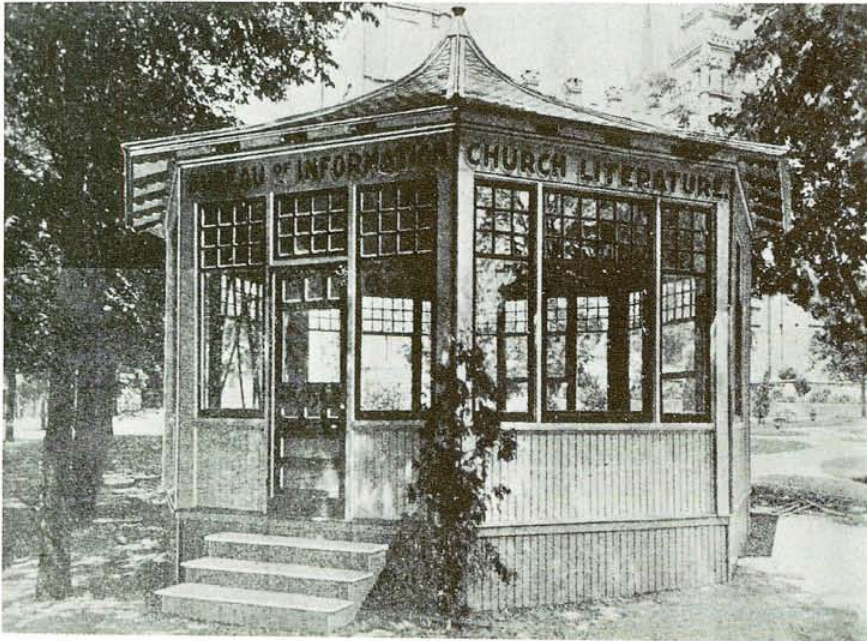
이것은 참된 형제애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한 사람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고 받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봉사하기는 쉬운 일이나, 불행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 물건을 주는 것은 우리의 자비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진실로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는 일을 하는 또 다른 분야는 신전과 계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왕국에서 진보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스스로 행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의식을 행합니다.

교회 활동 분야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사이 좋게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굳게 해 주며 우리가 형제를 지키는 자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가르치는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활동적인 형제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그 사업의 정신을 파악하게 되면, 정원회의 형제들과 계속해서 어울리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무관심한 장로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고도 함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요일 날 모임에 참석하기보다는 낚시나 골프 치러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무관심한 장로들이라도, 예를 들어, 어느 마을 유지나, 어느 회원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청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원회의 일원으로 와서 정원회원의 자격으로 함께 앉아 있으면, 일종의 우정이 생기게 될 것

뎀플 스케이의 최초의 공보파. 이 조그만 건물은 1897년 솔트레이크 정착 50년제 축제를 위해 건립되었으나, 후에 이것은 화강암으로 된 이층 구조의 공보파 건물로 대체되었으며 또한 그 건물은 1976년에 제2 방문자 센터를 만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입니다. 우리의 대제사들께서는 칠십 인이나 장로들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장례식에서 대제사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돌아가신 형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정을 보게 됩니다.”

이와같은 사고에서, 맥케이 대관장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부, 스테이크, 와드, 정원회에서 일하시는 동료 관리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정원회가 형제애와 봉사하는 면에 좀 더 효과적이 되도록 하십시오. 정원회는 성스런 유대와 도움으로 신권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단위입니다.

“나는 특히 수련 장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거니와 — 사업계에서 성공적인 분들과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리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연구에 쏟는 전문가와 사회와 정치계에서 앞장서서 고집을 모든 분들이…… 정원회에서 더욱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서로 돕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병을 앓는 분이 계시면, 두세 명이 함께 그를 방문하십시오.

“장로 여러분에게는 병을 앓고 있어서 그들의 추수를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 추수를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회원 중에는 아들이 선교사에 나가 있는데, 기금이 거의 다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써 주신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세주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 40)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 속에 생각하셨던 바로 그 행위입니다.” (대회 보고, 1955년 10월, 129페이지)

이 형제애를 모든 세계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구세주의 명령에 따라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내 보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 : 19—20)

귀환 선교사들이, 어느 곳에서 일했든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위해 봉사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언제나 재미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선교 사업의 정신을 파악하여 모든 인간이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중에, 그들이 일했던 곳의 사람들에게 이전에 느껴지지 않던 사랑을 사랑으로 대치시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문호를 폐쇄한 여러 나라의 정부가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의 형제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가족과 재결합하여, 결국은 하나의 큰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편파적이라는 비난은 듣고 있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말일성도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관심과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원리와 행하는 행위로 이 형제애의 감정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진진 사업과 복지 사업과 위대한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권회 조직의 가정 복음 교사와 상호부조회의 방문 교사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관심과 염려를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방문이 행해지는 곳에서, 교회 회원들은 위대한 형제애와 자매애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리기 위해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에 속한 한 사람이 우리 라디오 방송국의 일을 맡아 뉴욕시로 전근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뉴욕에 한 번도 와 본 일이 없었으나, 그곳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 그곳에 온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신권 정원회에서는 그를 반겨 맞아 주었으며, 아내와 아이들도 똑같이 환영을 받고 이내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다른 한 사람은 그와 동시에 다른 방송국을 운영하라는 전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말일성도 교

회에서 회원들과 여러 번 함께 했으나 다정한 감을 느낄 수 없어 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잘못일 수도, 아니면 교회 회원들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개인과 정원회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다한다면, 교회 회원은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최근에 어느 신권 소유자가 말해 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십대의 아들과 딸과 함께 매우 큰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은 별로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차 속에서 나를 끌어냈을 때, 나는 쇼크를 받아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자동차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현장으로 몰려들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내가 마비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이동시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조사하다가 내가 신전복을 입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물론이었습니다. 내가 구급차에 안전하게 실려 읍으로 떠나는 것을 본 그는 감독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를 축복해 줄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병원의 당직 의사는 스테이크 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나는 중환자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단의 한 사람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집에 유숙시키며, 식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3, 4일 후에 나의 가족은 피닉스에 있는 나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와드 회원들은 힘을 합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가족을 도와 주었습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형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자가용 비행기나 이동식 주택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들것을 비스듬히 눕힐 수 있게 한 이동 주택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하니 많은 친구들이 모여 나를 맞아 주었으며, 훌륭한 의

사이자, 나와 같은 신권 정원회에 소속한 나의 친한 친구도 나와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모로 도와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무엇보다도 신권이 행사됨을 분명히 목격했으며, 그러한 형제애를 길러 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관장단 보좌였던 스티븐 엘리차즈 부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그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해도, 성신권을 받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내려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이 됨과 인간성을 충분히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이룰 것에 대하여 주님께 평생토록 감사드리며, 몇몇 선조들이 누리던 이 축복을 다른 어떠한 유산보다 내 아이들과 자손만대에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대회 보고, 1955년 10월, 88페이지)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 25:21)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에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도와 드려야겠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목표는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인봉하여 의인을 위해 마련된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신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바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일해야겠습니다.

나는 그가 오실 때는 주님의 영화로운 사업의 완성을 위해 그를 도와 준 사람들에게 앞서 그의 신권을 지닌 충실한 형제들을 부르실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어, 다시 오실 것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합당하게 그를 맞이하여 그를 도와드리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위대한 잠재 능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그에 관련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경문의 시대의 2대 대관장이셨던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과 구원과 승영을 위한 모든 의식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야 행할 수 있는 다른 의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아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식과 열쇠는 갖고 있지 않으며, 이곳에서는 받을 수도 없습니다”(설교집, 15:137)

우리는 부활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지상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조부모나 조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나이 열 한 살 때 어머님을 여의었으며, 부친은 내가 이십 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내게도 구세주께서 하였던 대로 부활의 권능이 있다면, 그 분들을 더 오래 살게 해 드릴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고 사랑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어 준 사람들의 수많은 장례식에서 영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육신으로 되 돌아오신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열쇠는 “이러한 행위의 단계를 벗어나 그들의 육신을 다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침례 의식을 받고 죄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출 권능의 열쇠를 받는 것과 같이, 부활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성도에게 나아가 부활시켜 성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지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의식의 하나이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설교집, 15:137)

주 예수께서 베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이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

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막 4 : 38—39, 41)

창자 우리의 육신과 영이 완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얼마나 무력한 피조물입니까! 이같이 제한된 힘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바람과 파도와 폭풍우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성구를 기억하고 있으나, 이는 이전의 모렌조 스노우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한 구절로 집약됩니다. “하나님도 한 때는 인간과 같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 창조하고, 조직하고 모든 것을 제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우리는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에게는 풀을 자라게 하고, 새싹을 돋게 하고, 씨앗을 싹트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의식이 없습니다”라고 브리검 영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난 인간의 제한된 능력에 따라 조직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씨앗을 뿌려 우리는 채소와 나무와 곡식 등이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에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을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육으로 난 사람에게 주신 모범에 따라, 이 지상에 왕국을 세웠습니다.”(설교집, 15 : 137)

수많은 인간은 “영의 발전과 창조를 위하여 공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의 시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을 받고, 우리가 성실한 행동으로 영화롭게 되면, 우리는 영과 육신을 만들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쇠는 육신의 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설교집, 15 : 137)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바로 하늘의 권능입니다.

인간으로 지음받아 모세의 선조인 아브라함은 “사람이 사람과 이야기하듯 주와 얼굴을 마주 대고 말씀”(아브라함 3 : 11)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나는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주께서 친히 만드신 많은 것들을 보았고 그것

들은 내 눈앞에서 불어나 드디어 그 끝을 볼 수 없게 되었더라.”(아브라함 3 : 12)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좌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세계를 보여 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 모든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을 네게 보이느니라.”(아브라함 3 : 15) 그런 다음에 끝없는 창조와 우주와 세계가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취하여 제단에 바치려 한 자객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구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위로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 땅을 다스리며 모든 지혜와 분별으로써 태초부터 네 눈으로 본 모든 예지들을 다스림이라. 나는 태초에 네가 본 모든 예지를 가운데 내려왔느니라.”(아

브라함 3 : 21)

그런 다음에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열어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그런 뒤에 계속해서 이같이 약속하

대관장단, 1889~98, (중앙) 윌포드 우드립 대관장, (왼편) 제 1 보좌 조지 큐 캐논, (오른편) 제 2 보좌 조셉 에프 스미스.



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영의 세계에서의 생활]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지상에서의 생활]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 3: 22-26) 즉 그들이 자신의 지체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면 무엇이든 행한다면 그러한 영광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지를 갖고 계시어 그들에게 영체를 주셨으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그들을 위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영체인 그들에게 육신을 입히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지상에 있게 되자, 주님은 그들이 발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그들이 지상을 떠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이 지상에 놓이게 될 때가 이르러 육신을 내어 주기를 허락한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상의 부모 중에서 영의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완전한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 때는 인간과 같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무한히 발전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영을 창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영을 창조하거나 낳을 수 있는 권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나 [이 세상의 온갖 전문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해도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자녀에게]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갖게 할 권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형제 여러분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도 아니며, 우리의 일을 다 마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이곳에(이 지상에) 살아 있는 것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설교집 15: 137)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왕국을 형성하거나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부름 밖의 일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때가 되면, 육신의 몸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행하고, 첫째와 둘째 지체를 지키며,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물질을 조직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곳과 우리 눈에 보이는 불박이 별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수백 만의 지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물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재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설교집 15:137)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가를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9)

우리는 충만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될 때 보다 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리와 성약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된 아브라함에게 대해 읽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충실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한다면 결국은 그러한 능력을 기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오 높은 영광 보좌”로 이 말씀을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 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 곳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
출생과 친구 모든 전생 일
완전히 잊었는지라도
은은히 주는 당신의 말씀
나의 거할 곳 천국이니
나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
이제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인 줄
성령으로 아나이다.
지식의 열쇠 회복되기 전
참 그 이유 몰랐으며
하늘의 부모 홀몸이라니
꼭바로 이성을 보라.
어머니 역시 계심을 진리
영원한 이성 말하네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마치오면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
즐거이 이 몸 맞으리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 할 때
당신 곁에 함께 살라
허락하여 줍소서

(찬송가 117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일찍부터 영원한 세계에서 주께서 인정해 주실 완전한 삶을 향해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이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간증과 이러한 축복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나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모든 행동에서 이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한 줄기 밝은 빛

매리온 지 름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평화롭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재난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은 모든 것이 침울하기만 했던 1918년대에 군대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한줄기 밝은 빛.

(레나 길버트 포드)

내가 이 가사를 인용한 것은 현재 우리 앞에는 장차 곤경을 당하게 되리라는 불길한 조짐이 있으나 그러한 곤경 중에서도 “한줄기 빛”이 있어,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현대의 위기” 제임스 러셀 로웰)는 이 말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한 다음 연설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는 현재 세계에 팽배해 있는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도처에서 책임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우려를 감추어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위가 요란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미래의 양상에 대하여 보다 절망적인 것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무력감과 숙명론의 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두려운 예언이 흔히 인류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시대적인 정조로 주어질 때가 흔히 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상당한 문제점이 됩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문명 사회는 일부의 인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커트 발트하임, 연설, 1974년 8월 30일.)

다가오는 암흑을 또다시 불길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끝없이 나타나는 결핍의 심연의 막바지에 서 있는 인류를 그린”(폴 에릭 부부, 스탠포드 대학 신문사, 1974년 12월 17일) 풍요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최근의 신문 논평에서 찾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50여 년 전에 지상의 주민이 개심하지 않으면 파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일성도에게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원인을 포착하여, 그것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절박한 재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지상의 주민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다.

“그러므로” 하고 주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에게도 계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였나니”(교성 1: 15-18)

여기서 주님은 과거 11년 동안에 그와 요셉 스미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즉 계시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자손임을 분명히 밝히셨으며, 주께서 지구를 창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폭넓은 경험으로 지상의 주민을 점차 괴롭히고 황폐케 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아담으로 시작된 첫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 뒤를 이은 모든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번영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의 지시대로 따른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지상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주님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스스로 재난과 파멸을 초래하게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시와 경고는 복수심에 불타는 폭군의 독단적인 칙령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상하고 사랑에 가득찬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며 충고와 탄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유일할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진보에 필수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율법을 선포한 것으로, 지구 자체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인간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각 요소는 순조롭고 유익하게 되며 협동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파괴적인 현상으로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또 계속 그러한 재난을 야기시키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불순종은 “대홍수를 야기” 시켰습니다.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 임프르브먼트이라, 1921년 6월 738페이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

에 주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은 “저의 하나님을 예배”(모세 5:5)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의 의미는 나머지 모든 주님의 계명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의 필요성을 줄곧 역설하신 것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출 20:2,3,7)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6-37)

주님은 이 세대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계명에 대하여 암시하셨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교성 1:16)

이러한 계명은 다른 것과 함께, 그것을 지키는 데 따르는 약속된 축복과 더불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명에 이와 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교성 42:21)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그러나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 (교성 59:5, 15-16, 23)

여러분은 우리 세대가 이러한 계명을 지켰으므로 합당하게 이 보상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지금과 같이 사악한 행위를 계속할 때, 우리가 당연히 받게 될 저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음에 들어 보겠습니다.

1898-1901년 당시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뒷줄 왼쪽부터 앤슨 에이치 린드, 존 더블류 테일러, 존 헨리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프란시스 엠 라이만, 조지 티 스미얼, 매리너 엠 에릴 : 둘째 줄 브리감 영 이세, 조지 콧 케논, 제 1 보좌,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조셉 에프 스미스 제 2 보좌, 프랭클린 디 리차즈 : 앞줄 마티아스 카울리 장로, 에이 오웬 우드럼 장로, 러저 클로슨 장로가 이 사진에서 빠졌다.



“이는 황폐하게 하는 벌이 땅의 주민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때때로 벌을 쏟아 부으리니, 드디어 땅은 공허하게 되며 그 주민은 내가 올 때의 밝음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백성에게 고하였던 것같이 이 일을 네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나의 말이 증명되어 온 것 같이 이빈에도 증명되리라.”(교성 5:19-20)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같이 충고하시며 예언하십니다. “너희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 자유를 지켜 스스로 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땅이 진동하여 술 취한 자같이 이리 저리 흔들릴 것이요, 태양이 얼굴을 가려 빛 발하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이 피로 물들 것이요, 별들이 심히 노하여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 스스로 떨어지리라.”(교성 88:86-87)

이제 어떠한 정부의 조치나 국가의 군대나 모든 인간의 학문과 지식을 총동원한다해도 이러한 재난을 물리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생활하고 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재난은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결국 “인류를 필연적인 죄악과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끌어 넣습니다. (탈메지, 임프로브먼트 이라, 1921년 6월, 739페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인간이 회개하여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의 죄악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세히 예언하십니다.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한 줄기 밝은 빛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그의 계명을 범하면 재난이 이르게 되리라고 누차 경고하셨으나,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재난을 돌이켜 축복을 가져다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이 홍수를 몰고 왔듯이, 순종은 에녹의 시온을 성결케 했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번



성하였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모세 7:17-18)

고대 미대륙에서 반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불에 타 멸망되어, 의로운 생존자들은 함께 사회를 이루어 수백 년 동안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니파이사서 2, 16 참조)

말라기를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인이 충실하면 계절에 때 맞추어 비를 내리 기뻐지게 하고, 추수기가 되면 사람들이 수확한 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탈메지, 임프로브먼트 이라, 1921년 6월, 738 페이지, 말라기 3:8-12 참조) 말일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이야기한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가득하신 진노로 임하시는 날에라도 원수들은 불에 타서 패망하나 의로운 자는 구할 것이며, 의로운 자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느니라.”(니일 22:17)

예수는 우리 시대에 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을 휩쓸어 가는 징벌을 보기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황폐케 하는 질병이 땅을 뒤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 악인 중에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는 자들도 있으리라.

“각 처에 지진과 많은 황폐가 있으리라.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게 대적하며 겹을 들어 서로 치며 죽이리라 하였더라.

“……주가 이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자 저들은 근심하더라.

“이에 내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에는 너희와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교성 45:31-35)

“내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임하는 줄 알게 하려는 자인 연고라.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 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그러나 [이 점이 밝은 빛줄기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주는 그의 성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며 저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교성 1:35-36)

우리가 충분한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믿고, 계명을 지켜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계시어, 언제나 돌보아 주심”을 알고 마음속에 큰 지주를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이 진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가 우리를 보내 주셨고, 우리의 행위로 주께서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으로 들려 주신 바에 따라 일어나게 될 바가 결정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을 따른다면 세상의 평화를 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따르리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우리가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중재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기꺼이 공의의 요구를 들어 주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속주가 계십니다.”



나는 우리가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훨씬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안다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서로를 믿는다면, 훨씬 더 진지하고, 신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진다면,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관심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주제는 곧 평범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진실로 해 놓으신 일이 왜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회에 끼친 영향 외에, 나 개인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하고 질문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이같이 되물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하였거나 집을 저당하였으나 그 상환금을 치를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별로 기분좋은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계획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전에, 빠뜨린 과목이나 낙제한 시험처럼, 반드시 보충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 24)

저당물을 찾는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수위를 살펴으며 구원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 교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는 영적인 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영적인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신앙, 자비, 공의와 같은 형체가 없는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덕은 말이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관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및 촉각을 통해서 배우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러한 오관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을 전혀 쓸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만져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적히며, 순수한 지식으로 우리의 기억속에 담기게 됩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교성 88: 79, 교성 93: 24와 야곱서 4: 13절 참조)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면, 영적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없이, 영적인 계산서를 청산해야 될 날이 있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저당물을 찾을 권리도 상실하게 됩니다.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정하게 취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공의의 법칙이 우리가 계산서를 청산하는 데 대한 척도가 됩니다.

정의의 여신은 흔히 저울을 들고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편견이나 동정심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공의에는 동정심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정의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공의의 저울에 달리게 됩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같이 외쳤습니다.

“공의가 만물을 다스려 율법으로 심판하며 율법은 벌을 가하리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엘마서 42: 22)

여러분께서 엘마서 42장을 읽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공의의 위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나 정의만 좇는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할 것이요.”(세익스피어, 베니

스의 상인, 제 4막 제 1장)

비유한 가지를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것을 대단히 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빚을 지게 된 것에 대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나중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얼마 후에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당장 갖게 될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채권자를 거의 염두에 두지도 않았으며, 때때로 조금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청산해야 할 날이 닥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계약을 이행해야 할 날은 닥쳐 왔습니다. 부채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나타나서 빚을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보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제는 빚을 다 갚아 드릴 능력이 없군요.”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채권자가 말했습니다. “계약대로, 당신의 재산을 차압하고 당신을 감옥에 집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계약에 서명했으니, 이제 이행해야 되었습니다.”

“지불 기한을 연장해 주시든지 아니면 빚을 감해 주실 수 없을까요?” 채무자가 빌었습니다. “내 물건을 가져 가시고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자비를 믿으시지요? 자비심을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채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란 언제나 편파적인 것이요. 그것

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는 빚을 못 받게 될 것이요. 당신은 공의를 믿습니까?”

“내가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는 공의를 믿었지요.” 하고 채무자가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의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생각되어 내 편인 것 같았어요. 그때는 자비가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언젠가 필요하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지요. 공의는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 계약대로 지불하게 하든가 아니면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일입니다.” 하고 채권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법칙이지요. 당신이 그에 동의하셨고 그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공의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공의를 주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다른 편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어느 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감해 주지 않으면, 조금도 자비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고 채무자가 호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의 법칙은 성립될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립되는 듯이 보이는 두 가지의 영원한 이념입니다. 공의와 자비심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방법이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의의 법칙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자비심을 펼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와 주러 왔습니다. 그는 채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채무자가 선견지명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와 같은 궁지에 몰리게 된 그를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 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사이에 들어서 채권자를 보고 이같이 제의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 드리면 그 사람을 계약에서 풀어 주어 그가 자기 재산도

그대로 지니고 감옥에도 가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채권자가 그 제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을 때, 중재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공의대로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가 갚을 수 없으니, 내가 갚아 드리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정하게 받을 것이며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요구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동의했습니다.

중재자는 이번에는 채무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 준다면, 나를 당신의 채권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아, 그러고 말고.” 하고 채무자가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감옥에서 구해 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그 은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정해 주는 날까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방법을 제시해 주겠소.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요.”

이같이 하여 채권자는 빚을 다 받았습니니다. 그는 공의롭게 대접받았습니다. 계약은 하나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자비로운 손길에 의해 구함을 받았습니니다. 두 가지 법칙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도 제 몫을 다 주장하게 되었고, 자비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영적인 채무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계약이 만료되어, 청산을 해야 할 날이 닥쳐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지만, 그 날이 이르러 저당물을 찾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날이 임박하게 되면, 우리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누구든 아무나 우리를 구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영원한 율법에 의하여, 기꺼이 우리의 빚을 갚아 줄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치루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재자가 없고,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공의는 거침없이, 조금도 동정의 여지가 없이 우리에게 엄중히 내려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법법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서 마지막 하나 남김없이 전부 몰수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영광스런 진리는 그러한 중재자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그를 통해서 영원한 공의의 법칙을 범하지 않고도 우리 각 사람에게 자비가 온전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교리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많은 것이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치가 뿌리에 닿지 않는다면, 즉 그것이 진리에서 잘려 나간 것이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생명도 실체도 구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손길은 자동적으로 뻗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와의 성약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것은 주님의 조건 즉 죄 사람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라는 절대 필수 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공의의 법칙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우리 각자는 구원과 평

고침의 자비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매우 실용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크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각자가 영적인 계산서를 청산해야 하는 길을 열어 줍니다.

여러분 중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애써 피하고자 하는 조용한 명상의 시간을 가질 때, 어떤 불안한 일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양심에 거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크든 적든 어떤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심으로는 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잘 압니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범법은 모두 우리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게 청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바빌론의 벨사살 왕과 같이, 저울에 달려 모자라는 점이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공의의 요구를 들어 주시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구속주, 중재자가 계십니다.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마음이 겹허하며 누우침의 영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니이 2:7)

이미 주께서 모든 인간을 육신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므로, 부활은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둘째 사망 즉,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영적인 사망에서의 구원도 가능케 하십니다. 이 구원은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할 수 없으므로, 깨끗한 자에게만 이르게 됩니다.

만일 공의가 우리에게 범법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자비가 시험 기간을 거치게 하고 참회를 하게 하며 준비를 하게 해서 합당한 자격을 얻도록 해 줍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이신가를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보잘것 없는 말씀이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느낌은 말하지 않고도 영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때로 나는 불완전한 짐을 벗어 버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순간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해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가 살아 계심을 확인하며, 나의 간증을 굳건히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절망과 죄의 짐을 주 앞에 풀어 놓을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루었노라”하고 관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함께 일하는 십이사도 여러분과 주님을 특별히 증거합니다. 나와 그분들의 간증은 참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그를 보내 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가 큰 영감을 받은 시를 끝으로 인용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사랑
크고 넓으셔서
구세주 보내시어서
수난케 하셨네.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

하나님 구속 계획
완전하시어서
공의 사랑 자비 모두
조화 이루셨네!

(찬송가 20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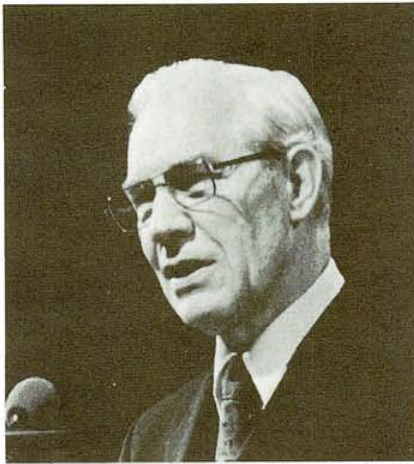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과 우리의 온전함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는 권고와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단계는 팔복에 관한 구세주의 산상수훈을 적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820년 이른 봄, 어느 맑게 개인 아
름다운 날에, 열 네 살 난 소년이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
이 생각하는 바와 느끼는 바를 말씀드
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약 1,800년 동
안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젊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그의 교회와 충만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회복이 그의 경험을 그와 같이
중요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교회와 복
음이 회복되었음을 성령의 증거로써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일이 있

었음을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제시에 관해서 구세주께서
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개인적
인 제시의 반석이라는 의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 : 18)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총관리 역원 각자가 그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교회 회원은 반
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문제입니
다. 아내는 교회 직책을 맡은 남편을
지지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을 뒷받침해 주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형제는 자매를, 자매
는 형제를 받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좋은 친구요, 현모양처
요, 선교사로서도 역할을 다하는 동반
자인 나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의로운 가족을 양육해 주신 장인 장모
님과 여러 해 동안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겨 온 우리 자녀들과 충성스럽게 적
극 뒷받침해 준 우리 가족과 확실히
천국에 거할 것으로 믿어지는 훌륭한
신 부모와 형제들이 최근에 내가 부름
받은 것이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이 됨
을 알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업은 보람이 있는 사업입니
다.

데릭 자매와 나는 삼 년 동안 영국
북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며 만족하게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 48 시간
밖에 안 되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돌
아와 아일랜드 공화국에 수립되는 새

로운 선교부를 맡아 달라는 부름을 받
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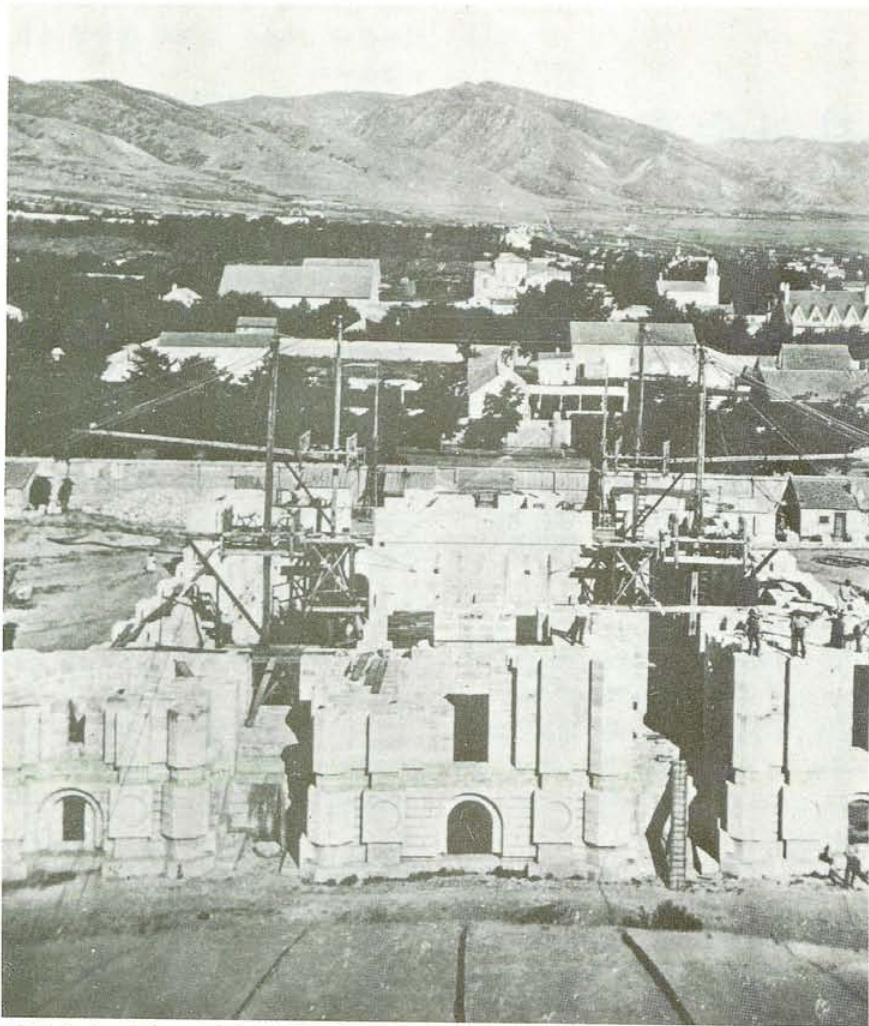
사회적인 압력이 매우 강한 아일랜드
에서 어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보
고 바보라고 합니다. 나의 가족과 친
구들도 나를, 바보라고 하는군요. 그러
나 나는 어떤 육이라도 달게 받고 매
일같이 나를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극히 회의적이었던 다른 사
람들은 그가 침례받은 날 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참되지. 참된 것
일 뿐 아니라, 완전히 참된 것이며,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지.”그
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
르치는 데서 얻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
수록, 몇 년 전 어느 친구와 나눈 팔
복에 관한 산상수훈의 개념에 더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 각 구절은 완전을 향해 규칙
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특별한 단계
를 나타내줍니다. 성경에는 팔복에 관
한 산상수훈의 장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 : 48)는 말씀으
로 끝맺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우리가 승영을 위해 거쳐야 할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구세주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 : 3)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는, “심령이 가
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니삼 12 : 3)라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는 자”라는 말
이 그 의미를 명백히 해 줍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한 폐의 말이 유
타주의 회의 의사당의 북쪽에 있는 엔사
인 플랫폼에서 뛰놀았습니다. 여름에는
매때로 쌍안경을 갖고 산기슭에 가 앉
아 우리는 말 떼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
기도 하고 산 밑의 평원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체로 그 말들은 별로 보
잘것없이 보였으나, 그 중 한 마리는
우아하고, 품위있고, 그 무리를 넉넉
히 이끌 만한 자격이 있는 말이 있었
습니다. 우리는 이 종마를 잡아 보려



1877년에 슈트레이크 신전의 이사진을 찍기 위해 일꾼들이 잠시 인손을 멈추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명의 사진 작가가 테비나클 지붕 위에 장비를 갖추고, 바로 앞마당을 경사지게 내려다 보며 카메라를 정동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찍었다.

고 몇 번씩이나 줄을 던져 보았읍니다. 하루는 우리가 성공했으나, 곧 줄 저쪽 끝에서 맹렬하게 날뛰어 우리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보았으나, 그 말을 탈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해 보다가 우리는 포기하고 그 말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전문 훈련사가 아랍 중 말을 훈련시킬 때 여러 달 동안 함께 일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다 끝나면, 그 말들을 우리에게 가둔 채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는답니다. 며칠 후에 음식과 물을 멀리 떨어진 곳이기는 하나 보이는 곳에 놓아둡니다. 그런 뒤에 문을 열어 주면, 굶주린 말들은 시창기를 채우려 달려 갑니다.

말들이 음식과 물 있는 곳에 이르기 직전에 훈련사가 휘파람을 불니다. 훈련사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되돌아오는 말들이 가장 좋은 말로 뽑히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 25,000여 명의 젊은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과 성령의 속삭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각국에서 이러한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기 보다는 그들 마음대로 행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계획에 따르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

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그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변화의 기적은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이것은 둘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생애 효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 침례를 받게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함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순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단합의 유대가 생겨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으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은유하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큰 축복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로나이가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5)라고 기록한 바 있으니, 여러분은 기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구별하여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으로 제시하신 단계를 밟으면, 여러분의 수용 능력은 훌륭하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 여러분의 받아들이는 능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물론경에는 이같이 써어 있

입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 (니삼 12:6)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신은 위대한 교사이며, 우리에게 만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경전을 상고”(요 5:39)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계획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단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계획에 따른다면,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교성 98:12) 완전하게 될 때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생은 곧 유익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계획에 대하여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미있고,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세주의 가르침에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은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마음이 청결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부산물은 마음이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마음의 화평을 얻은 사람은



가족의 화평을 원합니다. 그는 사회의 화평을 원하게 됩니다. 그는 국가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원하게 됩니다.

베릭 자매와 나는 최근에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리메릭까지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벽과 정류장마다 “영국인이 물러가면, 평화가 온다”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것은 길이나 도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개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면 국가의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생활화하면 사람들이 화평한 마음을 간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온세상에 외칩니다.

구세주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주님은 기꺼이 사회적인 압박과 비난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

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 이같이 구세주께서는 아름답고 기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충족케 하시는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르는 변화의 기적을 설명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팔복에 관한 산수수훈을 끝맺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3-14, 16)

예언자 니파이의 구세주에 관하여, “만민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부인치 아니하시고,”(니이 26:33)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께로 나아와, 주님의 길과 그의 선하심을 취하여, “이 세상에서 영생 곧 불사불멸의 영광을”(모세서 6:59)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교성 14:7) 은사를 받으실 것을 우리는 거듭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인 표준을 지키기 위해 계속 힘써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 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 22-25)

나는 경전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종종 그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상기시켜야 할 필요성을 아셨다는 사실과 이러한 큰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주께서 지구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시고 그것

이 보기 좋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새로 창조한 자녀에게 처음으로 지시하신 것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물몬경에도 역시 계속되어 나옵니다. 의롭게 일하는 사람은 풍요를 누리게 되고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기근과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 경전에서도 다시 명하셨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 42)

주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풍요하게 축복해 주신 물질을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경전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세주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권고와 비유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되었습니다. (마 25: 14-30)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는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여 그들이 받은 것

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췄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 25: 21)

그러자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땅을 파고 주인이 준 달란트를 꺼내 와, 주인이 준 것을 불리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잘 하였도다.”하고 반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마 25: 26)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 28-29)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의 자녀에게 일을 성취시켰을 때 따르는 기쁨과 만족과 보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일을 하도록 특별히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기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다섯 가지 목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앎으로써,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 중요한 책임을 가장 잘 성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킴블 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그것은 순간적인 행복감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므로, 가장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특히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까지 이르러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결혼과 이혼, 데저렛 출판사, 1976년, 10페이지)

오늘날에는 이같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조직을 뿌리채 없애 버리려는 사탄의 세력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파멸시키려 교활한 계략을 꾸미

는 사탄은 우리 가정의 성스러운 기반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그는 불신 풍조와 이혼을 다반사로 여기게 하며, 결혼 서약을 통하지 않는 남녀 관계를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역사는 그러한 과정은 인류를 파멸시킴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성스럽게 결합하는 영원한 본질을 확실히 인식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과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훌륭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요셉과 엠마 스미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 스미스가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었을 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 그는 그 일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엠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올리버와 내가 이층으로 올라오고 요셉도 곧 뒤따라 와 계속 번역을 해 나가려고 했으나, 그는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한 구절도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래 층으로 내려 가, 과수원으로 나가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는 한 시간가량 나가 있다가, 집에 돌아와 엠마에게 용서를 구하고는 우리가 있는 이층으로 올라와 다시 번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 역사, 1:131)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되찾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무릎꿇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한다면, 부부사이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결혼 생활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고합니다. 경전의 충고를 받아들여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도록 하십시오. (엡 3:17)

둘째, 영원한 결합으로 오는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영원한 가족을 갖는 권리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의로운 결혼 생활은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혈통을 타고 지상에 나올 특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총관리 역원에게 주어지는 선택된 특권 중의 하나는 일 년에 30, 40 번씩 교회의 스테이크를 방문하여, 스테이크 부장의 가정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몇몇 가정을 목격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지명되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스테이크 부장은 치과 의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의 집안 분위기와 가구를 둘러보니 그가 참으로 훌륭한 관습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르쳐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하여, 가족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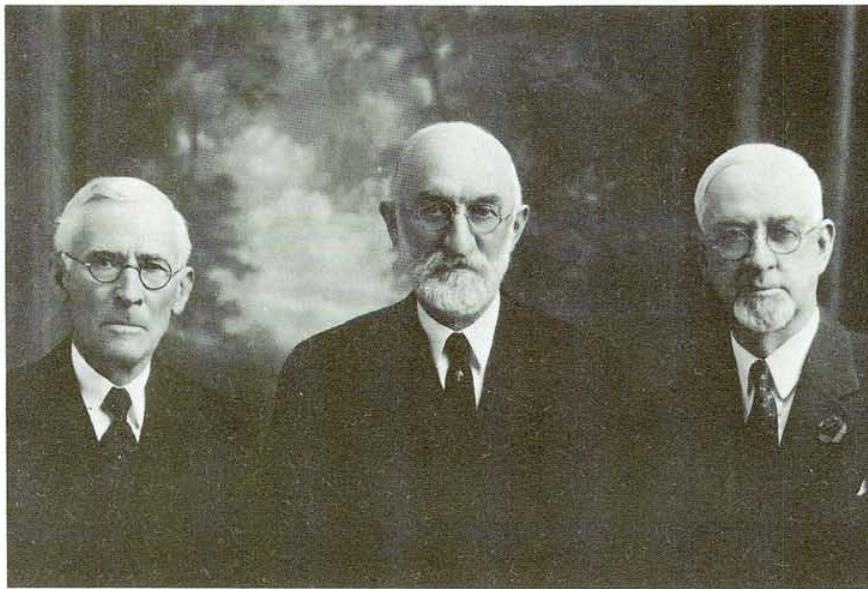
나는 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각자 담당할 책임 분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압타이 하루에 달걀을 몇 개나 낳으며, 옥수수가 얼마나 크게 자라며, 가축이 들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족은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을 그들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를 권합니다.

세째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직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분담시킴에 있어, 주님께서는 가족을 부양하는 이 임무를 남편 곧 가장에게 위임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건전한 정신과 강한 육신을 갖고 있으면,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성실히 이행하여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온 가족이 안정감을 지닌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일을 성취시켜 가족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되시는 분들이여, 여러분의 사업을 정직하게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매일매일을 어제보다 더 훌륭하게 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라는 의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

1925-31년 당시의 대관장단. 중앙, 러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오른편에, 안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제1 보좌와 찰스 더블류 니블리 제2 보좌.



희에게 보이리라.”(고전 12 : 31) 가장 훌륭한 표준은 분명히 교회 봉사를 하는 데서 우리가 받은 과제를 성취시키려 하는 목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교회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최고의 수준으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모든 노력을 다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은 깨끗하고 진전한 환경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어느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미 독립 200주년 준비 위원회의 일원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한 일에 대한 것을 들려 주는 아주 흥미있는 편지를 받았습니 다. 그녀의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써어 있었습니 다. “나는 학기 초에 한 사친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6학년 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책을 읽으라고 지명받은 사실을 알았습니 다. 나는 그때 과연 그 책이 아이들이 읽어서 좋은 책인가를 알아 보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 다. 내가 그 책을 읽어 보니, 6학년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책이라

는 것을 알았습니 다. 그 속에는 불경한 언사와 폭력과 어른 특히 부모를 무시하며 음울하고 좋지 못한 표현으로 가득했으며,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행은 조금도 없었습니 다. 나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그 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내 의견을 말했습니 다. 그는 비판하기 전에 여러 권의 책을 모두 읽어보고 나서, 그 때도 같은 의견일 때는, 그 반대 의견을 편지에 써서 주면 반대 의견에 대한 특별한 증거로 삼겠다고 했습니 다.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계속해서 다른 책들도 읽어 보았으나, 그것 역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나는 마지막 책을 다 읽어 보기도 전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나는 후에 이 학교의 장학관이 나에게 그 사무실로 와 달라는 부탁을 기꺼이 응했습니 다. 그는 그들이 기초 독서 과정에서 그러한 불경스런 책을 읽히는 것은 교육 정책상 위배되니 당장 그런 책은 없애겠다고 말했습니 다. 그는 그들에게 불량 도서를 지적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 당황했으며, 앞으로도 도서를 검열하는 사람

이 그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주의시키겠다고 말했습니 다.”

우리는 삶을 이끌어 주고 지도해 주는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 다. 우리는 경전을 연구하고 이해하여 주님의 율법을 알고 그에 따라 이 지상에서 행동하게 됩니 다. 이 큰 축복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임무가 따르게 됩니 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 말일성도의 가정이 있는 마을과 읍과 도시마다 우리가 영향을 미쳐 도덕적인 표준을 세워 놓도록 해야 합니 다. 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도덕적인 표준을 세워 놓는 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신 위대한 잠재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생활에는 힘이 넘치게 됩니 다. 우리 모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훌륭한 역군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성취의 기쁨으로 넘치게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지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게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 다. 아멘. *

연장을 든 채로 신전 계단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인부들(1890년). 신전 내부의 마지막 손질을 할 당시의 모습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 시대에 예언이 성취됨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셨는데,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눅 24 : 16)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그에 대해서 또 그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들이 그가 가르치고자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눅 24 : 25)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와 그 밖의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그에 관하여 증언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예언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의 옷을 제비뽑는 데 이르기까지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시편 22 : 18 참조)

그리고 누가는 주께서 그들에게 이해의 눈을 열어 주시어 경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계십니까? 만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종말을 “처음부터”(사 46 : 10)라고 하셨다고 이사야가 한 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경전에 나와 있으며,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세계 역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말일에 크신 권능과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임하실 구세주의 강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강림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먼저 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윌리엄 커퍼가 작사한 찬송가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루시는 일 참 오묘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의 영화로운 강림을 위해 주께서 준비해 오셨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묘한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미 말씀된 것 중에서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예언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의 진에 홀연히 임하실 것이며,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겹물과 같으시니 누가 능히 그의 오시는 날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말 3 : 1-2 참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강림에 관한 것은 아니었음은,

그가 홀연히 주의 전에 임하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케 하지도 않았으며,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아이로 나타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일에 오실 때는 사악한 자들이 바위에게 “우리에게 떨어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 : 16)고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실 사자는 바로 예언자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절정의 시기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없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데릭 형제로부터 요셉 스미스 소년이 1820년에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고 주의 예언자로서 등장한 것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를 인도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과거 200여 년 동안에 이 세계가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지난 수세기와 비교하여 알 수 있다면, 왜 그 일이 500년 전이나 일천 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교회와 왕국을 세울 열쇠를 주셨으며,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신권과 사도의 권능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엡 1 : 10)신 오묘한 뜻을 나타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께서 오묘하신 주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듣는 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모르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에 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앞으로 올 세상을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세상의 구속주께서 감독하실 것을 바라며, 하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단합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

로, 그것은 성취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다른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당시 열 여덟 살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무런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던 예언자 요셉을 하루 밤에 세 번이나 방문하셨을 때, 아직 준비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은 몇몇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스라엘의 쫓긴 자와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며,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 11: 11-12)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신 증거로는 주께서 말일성도를 이 계곡으로 불러 모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2000여 년 동안의 방황과 박해를 받은 뒤에 고향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있으니, 즉 이제는 이스라엘도 국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말일에 구세주의 재림에 앞서 있을 예언의 성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말일에 관하여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는 그 앞에 일어나게 될 일을 너무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보다는 우리 시대에 더 많이 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집이 산 위에 세워지리라(우리는 산 위에 있습니다.)는 것과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든 것임을 아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사 2: 3)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하여 이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계곡으로 모여들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두 손밖에 없이 수천 미일 떨어진 곳에서 와야 했던 그 시대에 성도들이 이 당당한 건물물을 짓기 시작한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황량한 이 계곡에 들어왔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신전을 지을 곳에 지팡이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수천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았으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또 다른 준비 작

업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자 말라기로 되돌아가 보기로 합시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이 준비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 4: 5-6) 킵블 대관장도 개회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엘리야가 오신 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에는 햇빛이 나무와 초목을 자라게 하고, 씨앗이 싹트게 도와 주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1836년 4월 3일에 엘리야가 킵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이 세상을 떠난 선조의 마음을 이 지상에 있는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곳에 있는 자녀의 마음을 선조에게 돌이키는 열쇠를 되돌려 주어,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온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계보 협회라고는 없었으나, 이제는 전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전에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보내온 신문에는 계보 모임에 관한 기사가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는 이곳에 있는 우리의 계보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내가 버튼 형제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계보과에는 600 명이 넘는 사람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이 나라와 유럽 전역의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에 수록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80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화상암 동굴에 이려한 필름을 보존해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 세상에 다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4백만 권의 계보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준비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교부장으로 남부 여러 주에

내려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새로 개종한 어떤 사람이 계보를 조사하려 도서관에 가서, 텍사스에 살았던 한 판사 부부가 작성해 놓은 족보를 발견했는데, 그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아내와 함께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가며 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전에서 행하는 사업을 준비시키기 위해 성령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계보를 모으게 된 이야기는 얼마든지 더 많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전에서 날마다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엘리야가 와서 이루어지는 기이하고 오묘한 사업의 일부입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세 군데의 유태교 회당을 둘러 보았습니다. 한 곳에서는, 벽면에 안락의자가 매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왜 거기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람비(율법 박사)의 설명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 의자는 왜 저곳에 두었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오시는 날 그 의자를 내려다가 앉도록 해 드립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엘리야가 이곳에 오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과 엘리야가 오신 결과 전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해몽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언자의 말씀을 믿으며, 이 교회는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우리 구세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라 명하신 것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날을 서두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선견자 요셉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한 훌륭한 간증을 지지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먼저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호평한 정기 간행물을 읽고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을 때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달에는 발행 부수가 상당히 많은 어느 잡지에 담배, 술, 흥차, 커피 등을 금하여 신체의 건강을 권장하고 있는 물문의 생활 방식을 격찬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우리의 방대한 계보 사업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의 조직, 복지 프로그램 및 가정의 밤 프로그램 등도 긍정적으로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보도에서는 이같은 관습의 기원이나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더구나, 어떤 책에서는 교회가 설립되고 발전한 데에는 신의 손길이 뻗친

적은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네 교회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만 빼놓는다면,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시를 받아들여지려면, 계시자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과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지지하는 모든 것을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종인 요셉 스미스를 무시하려 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 먹으면서도 그것을 자라게 하는 뿌리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압과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현대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소위 물문 건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1833년에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교성 89:1) 당시의 요리책에서 그런 방법이 제기될 수 있거나, 사람의 머리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현대의 의학 연구로, 그것을 지킴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면할 수 있고 일찍 죽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음이 밝혀졌으니 참으로 기적같은 일입니다. 계보 연구는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로 인해서 갑자기 일종의 취미처럼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시선이 물론 계보 자료 보고라는 곳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방대한 프로그램은 취미에서 발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조상들이 없이 구원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필요한 조건을 다 이행할 수 없었고 그러한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표명한 이 훌륭한 교회의 조직은 그가 계시를 받아 이룩한 것으로, 조직의 수정 가감은 예언자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복지 프로그램도 교회 초창기에 요셉 스미스가 언명한 원칙에 따라 그대로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빛과 진리”(교성 93:40)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초기 계시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입니다.

얼마 전,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내 옆에 앉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 문제로 화제가 이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물문에 관한 글을 많이 읽었으며,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많이 찾았다고 말했으나, 교회의 기원 특히 요셉 스미스에 대한 대목에서는 상당히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었으며, 내가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 교회에서 발행한 책에서 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이비엠(IBM)사의 판매 대리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고객이 아이비엠사의 제품의 품질을 제록스사의 대리에게서 알아보는 것이 정당하리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지으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교리와 성약을 꺼내어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

썸은 내 친구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습관은 존중하면서도 제시를 받아 그것을 시작한 사람은 무시를 한 바로 그것에 관한 구절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그는 내가 책을 보내주면 읽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 보면, 그의 관심을 끌게 된 교리와 관습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개한 사람에 대한 진실성도 알게 되리라고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에게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를 전능하신 분이 쓰시는 도구로 받들습니다. 그 예언자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가 신권과 함께 회복되어,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관한 것은 바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쫓겨 다녔으며, 부당하게 기소되고, 불법적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38세를 일기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망하기 전의 2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에 어느 누가 일생을 걸려서도 해내지 못할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는 590페이지에 달하는 물문경을 번역하여 출판했는데 이는 수십 개 국어로 다시 번역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지상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남긴 다른 기사도 마찬가지로 수백만 사람이 경전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 경전의 전체 페이지 수는 성경의 구약에 상당하는데, 이것이 모두 한 사람을 통해서 수년 동안에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그는 조직을 이룩했는데, 이것은 일세기 반 동안이나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145년 전에는 3000여 명의 회원이었던 것이 오늘 날에는 전세계적으로 35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구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놀라운 조직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그 조직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특수하고 유별하며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불멸의 본성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시현은 출생 이전의 존재로부터 무덤 이후의 영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부활은 만유의 것인데, 모든 사람이 구세주의 대속으로 부활의 은사를 입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에는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는 필수 요건이 따르며, 그 결과로 이 생에서의 행복과 앞으로 올 생에서의 승영이 약속됩니다.

그가 가르친 복음은 그 자신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적용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개인 지도를 받은 요셉 스미스는 모든 세대의 온 인류를 포용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복음 의식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죽은 자의 경우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면 머리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 사람씩 규명해 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계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흥미 본위의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순교하기 전 20여 년 동안에 지상의 여러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같이 대담하게 시행한 것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초창기 시절 암담한 역경 속에서도 형제들은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외치기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시현은 전지구를 포용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오늘 이 자리에는 전미대륙과 영국과 아프리카와 유럽 제국과 태평양 제도 및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시현이 꽃피운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강한 선견자로서, 이 말일의 위대한 시대에 지상에 임할 주님의 사업을 보았습니다.

가장 크게 놀랄 사람은 1844년 6월의 어느 무더운 날에, 얼굴에 칠을 하고서 비겁한 방법으로 아무 방비없는 예언자를 쏘아 죽인 자들일 것입니다. 예언자를 보호하기로 맹세했으면서도, 후에 무자비한 폭도의 손길에 그를 내맡긴 일리노이주의 토마스 포드 지사도 놀랄 것입니다. 토마스 포드는 자신의 역사 일지에 요셉 스미스는 “앞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가망이 있어 보이는 조직을 결코 설립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토마스 포드, 일리노이주의 역사……비 에이치 로버츠, 교회사 요해에서 인용. 2 : 347)

바로 이 토마스 포드는 오늘날, 일리노이 페어리아에 있는 공동 묘지의 한 귀퉁이에 거의 아무도 돌아보는데 없이 묻혀 있으나, 그가 잘못 판단을 내린 사람은 온 지구상에서 칭송받으며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열 두 살 소년 시절에, 나의 부친은 우리가 살고 있던 스테이크의 신권 모임에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뒷 좌석에 앉았고, 스테이크 부장인 부친은 앞의 연단에 앉았습니다. 내가 참석할 때마다 처음으로 본 것은 모임이 시작할 때, 3, 4백 명의 형제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각계 각층에서 모여 들었으나, 각자 마음속에는 똑같은 확신을 갖고, 다 함께 이 같이 위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쁨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뜻왕과 온 백성 경배하라
(찬송가 185장)

형제들의 신앙에 찬 찬송을 들을 때
나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음

니다. 내 어린 마음속에는 성령이 심어 주신 지식 즉, 요셉 스미스는 참으로 전능자의 예언자였음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나는 그의 말씀이나 글을 많이 대하게 되어, 그 지식은 더 강하고 확실하게 자라났습니다. 나는 바다를 건너, 동서남북의 대륙을 왕래하며,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현재도 그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거자요 증임을 간증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영화로운 그 귀한 신권
영원한 열쇠를 갖게 되리니
진실한 예언자 천국에 올라
뜻 예언자 중에 면류관쓰리.

(찬송가 185장)

오늘 여러분께 다시 분명하게 요셉 스미스는 진실한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회회를 감리하시는 분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분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살아 계신 예언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요셉 스미스가 증언하였고, 나 또한 증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연단에서 계심. 이 사진은 1955년 연차 대회 때 촬영하였음. 대관장단(스티븐 엘 리차즈, 데이비드 오 벡 케이 대관장,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가 크리스찬슨 장로 뒤에 앉아 계심. 그의 앞에는 부활절 기념을 위한 백합 꽃병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다른 총관리 역원이 앉아 계심. 그후 단상은 불어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앉을 수 있게 개조되었음



간결함이 주는 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가 아무런 꾸밈없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최 근에 나는 어느 대학생 층의 연구 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

다. “형제님은 어떤 경전이나 교회 역사의 인용문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고 계십니까?” 전에는 여럿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확고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힘있는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서 17절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소박한 주위 환경, 인사, 소개 및 부르심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나무 숲 속에서 열 네 살난 소년의 굳굳한 신앙과 열렬한 간구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두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름 부르시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 주며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게 해 주는 간결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현의 실재는 간결함에 관해 말한 니파이의 말씀에 새로운 중요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육이 간결함을 기뻐하며, 주 하나님께서 이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역사하심이라.”(나이 31 : 3) “나는 간결함을 자랑하며 진리를 자랑하며 또한 예수를 자랑하노니 예수는 나의 영육을 지옥에서 구하셨음이라.”(나이 33 : 6) “나의 백성들이 들어 배울 수 있는 간결함을 나의 영육이 즐겨워함이요,”(나이 25 : 4) 다른 여러 지도자와 현명한 교사와 더불어 이 위대한 예언자인 니파이를 통해서, 원리가 간결하게 가르쳐지고 설명된다면 좀더 쉽게 배울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브리감 영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한 가지 축복해 줄 것이 있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집 3 : 221)

간결한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며, 지적이고, 현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된다고 합니다. 흔히 간결한 진리는 잘난 체하며, 거칠고, 비천하며, 비판적이고, 논쟁하기를 즐기며,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곡해되는 수가 많습니다.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사회

에서는 형제 자매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결한 힘으로 가르칠 것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가 별다른 꾸밈없이 명백하고 알기 쉽게 가르쳐질 때 기뻐하십니다. 삶과 말씀과 행위가 간결하게 행해지는 것은 영원한 미덕입니다. 기독교인의 가르침과 생활에서 간결한 것이 빠지면, 배도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인간은 간결함의 빛을 생활에서 빼어 내면 암흑 속을 걷게 됩니다. “저들이 간결하고 진귀한 어린양의 복음을 던져버린 때문이요, 많은 주님의 성약을 빼내어 버렸음이라.

“이렇게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을 빼내어 버림은 저들이 의로운 주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려 함이라.”(니일 13 : 26—2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간결하고, 고귀하며 강합니다. 합당한 생활도 간결하고, 고귀하고, 강합니다. 내가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간결하게 가르쳐 준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받은 것도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늘 왕국에서 위대하게 되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간결한 기도가 주는 힘을 실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몇 주일 전에 대관장단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굶주림과 질병과 추위와 한 발을 경감시키기 위해(이제 국내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이 다 지나간 어느 가정의 밤 시간에 여덟 살 난 여자 아이가 “많은 눈이 내려 내년 여름에 온 가족이 함께 수영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덟 살 난 아이의 생각으로는, 가족이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이 많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간결하고 어린 아이다운 신앙에서 나온 그 아이의 기도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간구했다해서 극히 온당치 못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결하고 꾸밈없는 간증에서 언제나 나는 큰 감명을 받습니다. 열 두 살 난

소년이 간증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 앞에서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두려움과 감정에 북받쳐 떨어서 있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우리는 온통 그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마음의 평정을 되찾아 간증을 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린 소년은 그런 분위기에서 크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빛이더니, 숙인 머리를 들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님, 나의 간증은 아주 작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앉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적중한 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간증인들 아주 작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지나치게 커서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한 마디의 설교가 끝난 뒤에, 나는 여러 회원들에게 나의 간증 역시 아주 작아 좀더 자주 간증하여 키우도록 하겠다고 간증했습니다. 나는 간결하고 단순한 말로 깨우침을 받은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명백하고 단순한 행위로 간증이 자라고 교훈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일요일 아침에 이제 막 유년 주일 학교를 졸업한 어느 어린 소녀가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이 상기된 채, 머뭇거리며 연단에 나와 섰습니다. 소녀는 손을 들어 마이크를 자기 키에 맞게 잡아 당기고는, 용기를 얻기 위해 어머니를 슬쩍 쳐다보면서 성찬 봉독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러한 간결한 행위는 마음의 평정과 간증을 갖게 하며 경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일요일마다 전세계의 성찬대에는 제사들이 의식에 입는 예복은 아니지만,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성찬을 축복합니다. 굳건하고 경건한 집사들은, 질서있게 관례대로 성찬을 돌립니다. 이들 아픈 신권 회원들은 어떠한 회원도 이 거룩한 의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살피고 계획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들이 장차는 감독단의 일원이 되어 모든 와드 회원들을 여러 면에서 보살피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십대의 소녀들은 병자를 방문한다거나 비회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등

의 간단한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힘차고 보람있는 여성상을 구현하는 합당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됩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우리가 매일 친절하고 아름다운 행위로 아버지의 일을 해 나가는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백 명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들을 차에 태워주어 그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결하고 아름다운 뜻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교회에 새로 개종해 들어온 자매 한 사람이 상호부조회 공과를 가르치는 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녀는 여러 여인들 앞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아는 친지의 도움과 권고를 받아서, 하나의 간결하고 단순한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가족도 이끌고 인품도 높이고, 여러 면으로 관리하고 가르치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간결한 힘은, 언제나 인정받고 이해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

는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간결한 것이며, 회개와 용서는 단순한 단계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와드 건물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한 현명한 자매 회원을 가로막고 낮으막한 목소리로,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파문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는 벌써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참 무서운 일이지요”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자매는 “아니요,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짐이 덜어졌으니 그 형제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 모두 그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단순성과 사랑을 하나의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분이 취하신 각 단계가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한 가르침과 표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힘차고 간결한 말씀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 왼쪽, 매리언 알 보이어, 제네스 알 캐넌 바바라 비 스미스





1941년 10월~1945년 3월, 칠십인 제일 평의회 : 앞줄 안톤 알 아이빈스, 리바이 에드가 영 회장, 케이 하디 : 뒷줄 : 새뮤얼 오 베논, 존 에이치 테일러, 리차드 엘 이반스, 오스카 에이 커 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마 5:5)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 5: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마 5:44)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는 얻으리라”(마 10:39)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마 11:1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 16:26)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7)

분명히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
 세주의 말씀은 간절하여 설득력이 있
 습니다. 마법이나 신비는 영생에 이르
 지 못합니다. 영생의 은사와 구세주에

대한 지식은 수식과 신비에 의해서만
 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
 대한 보상과 복음의 기쁨을 놓쳐 버리
 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게 계율에 계율을 교훈에 교훈을 배워
 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이 제시한 간
 결하고 단순한 단계를 따름으로써 간
 결하고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겠습니다. 각 과제를 완수하고 각 교
 훈을 배움으로써 걸치레와 의식과 허
 식으로 하기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
 나님의 왕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칭
 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
 음으로 매일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복
 음의 간결한 진리로부터 순종과 이해
 를 배우고, 그것을 공평하고 솔직담백
 한 언행으로 실행토록 하십시오.

힘차고 간절하게 생활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기
 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
 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말쑤
 을 겸손하고 간절하게 여러분께 드립
 니다. 진실되고 간절하게 들려 주시는
 주님의 굳건한 말씀은 비판하는 사람

을 물리치고 사실 그대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하
 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
 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음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
 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 2서 17절)

우리는 세계 각처에 있는 인류에게
 이 위대한 하늘의 시현이 있는 다음에
 계시된 진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
 해 보기를 권합니다. 예언자 요셉은 그
 이후로 조롱받고 능욕 당했으며, 결국
 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조금도 혼
 들리지 않고 간절하게 “그러나 내가 시
 현을 보았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
 실이었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24절)
 라고 말할 용기를 가졌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영화롭고 간결한
 말씀이 진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매일 사랑하는 생활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판리 감독단 제 1 보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 주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해 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와드의 금식 간증 모임에서 어떤 젊은 아버지가 자신의 첫 아이에게 자랑스럽게 이름을 붙여 주고 축복해 준 다음 간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아이를 갖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기가 그들이 말한 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아기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좀 난처한 듯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아기를 안아 주고, 뺨을 부여 주며, 컷가에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모임이 끝난 뒤에 나는 그 새 아버지에게 가서 그의 간증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아기를 키우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녀들

이 성장한 후에라도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대하게 되는 비극 중에는 수많은 남녀노소가 매일 사랑을 받지 못하여 정말로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랑의 말을 듣고 이런 따스한 느낌을 받기 위해 무엇이라도 선뜻 내어 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절망에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다른 나라의 선교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과 만나기에 앞서, 나는 선교부장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는 일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일찍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한 선교사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으나, 선교부장은 자신이 없는 듯했습니다.

모임을 갖기 전 선교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을 때는, 과연 누가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선교부장에게 모임이 끝난 후에 그 젊은이와 이야기해 보고 싶으면 상관없겠느냐고 했습니다. 모임 시간에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입안에 껌을 하나 가득 넣고 씹던 것만이 생각날 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이 키크고 젊은 선교사는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 해 볼까요?” 내

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투였습니다.

우리는 한 옆으로 앉았습니다. 같이 앉아서 왜 선교사가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창 밖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때때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한번은 그가 맨 앞 자리에 앉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로 인해서 몹시 당혹감을 갖게 되었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나는 그를 집으로, 그것도 당장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틀 동안 기도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모임을 끝낸 뒤 나는 몇몇 사람과 함께 예배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그에 대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 마음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빠져 나와,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고는, 그의 눈을 쳐다보며, “장로님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내가 장로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만 하고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내가 예배당 문을 나와 자동차가 있는 데로 갔을 때 그가 다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어깨를 껴안아 주며, 눈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진심입니다.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슨 감독님, 제가 이제까지 살아 오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왜 그가 당황해 하고, 좌절되었으며, 불안해 하고, 선교 지역에서 떠나려 했는가를 알았습니다.

아들이나 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에게 웃도 사 주고 따뜻한 집도 마련해 주고, 교육도 시켰으니까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부모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품은 아이에게 참된 사랑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좀더 분별력있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나 딸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은 자녀가 한 일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을 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경전에서 부모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라.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이사야 4 : 14-15)

부모님의 가르침이 사랑의 황금율로 짜여져 인도된다면, 자녀들이 좀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려면, 그 말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사려깊은 행위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떤 표현을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부모나 자녀 혹은 남편이나 아내라면,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십시오.

행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비결의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섯 개의 낱말로 된 것입니다. 주의해서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은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단념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일상적으로 나타내는 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한 두 번씩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술 한 잔으로도 취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그런 방법을 적용시켜 자라게 되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참으로 사랑받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 낼 수 있습니다. 감옥이나 기타 공공기관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안에조차 애정에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자녀에게 가장 악랄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보다 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습관과 문화 양식이 전부 다른 이상, 이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줄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든, 어렵든 구세주께서는 이 계명을 어느 특정한 곳의 몇몇 사람에게만 또는 여기저기의 어떤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도처에 있는 모든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을 나타냅시다. 지금 보여 주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4-35)

우리는 모두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일 전에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 갈 때, 킴벌 대판장님이 나를 앞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어,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네, 때로는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일세. 요즘 들어서는 자네에게 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하며 감사하는가를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

나는 그의 영을 느꼈고, 그를 믿었습니다. 나의 영은 높이 솟아 오른 듯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심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효험을 낳게 합니다. 거들거들 노력해 보십시오. 나는 이 모범이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압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감사

리차드 지 스콧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 지지받은 총관리 역원이 “구세주께 봉사” 할 것을 다짐함.



내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타내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기에 앞서, 두려운 마음과 심히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나는 함께 생활해 나갈 형제들을 크게 사랑하고 존경하며, 성스러운 그들의 부름도 존중합니다. 나는 거대하고 당당한 떡갈나무 숲속에서 이제 막 싹터 오르는 도토리과 같은 심정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샘이 나의 속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아들에게 고귀한 의로움의 유산을 모범으로 물려주신 훌륭한 부모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큰 힘과 간증을 지니고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반려자인 아내와 귀여운 우리 자녀에게도 감사합니다. 나의 아내 지닌은 진실한 간증과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어 왔으며, 내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여러 귀한 젊은이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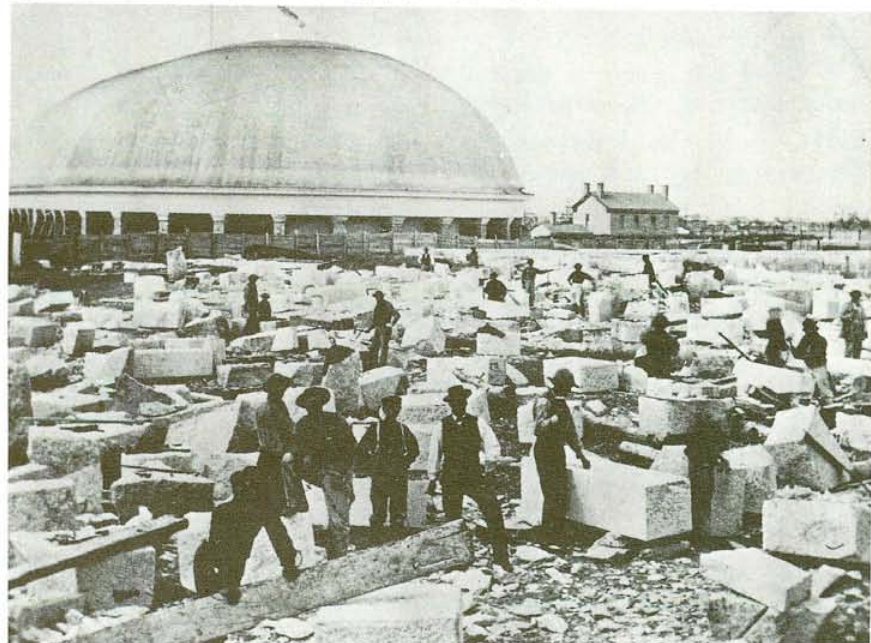
히, 선교 사업을 하다가 만난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서 나는 참으로 깊은 우정을 나눌 친구들도 찾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형제님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사랑하시는 예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는 김볼 대관장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겉보기와는 달리 자질이 아니라 이같이 큰 화강암이 건축하는 데 쓰이는 돌이 된다. 1871~72년 대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손에 의하여 이곳에 신전이 세워지게 된다. 뒷편에는 배버나클이 보이고, 오른쪽에 엔다우먼트 관이 보인다.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흠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 12 : 27)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 : 2)

나는 성령이 실제로 거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급한 때를 당해서, 명상과 기도를 한 뒤에,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확신을 받고는, 그러한 성신의 거하심으로 참으로 그것이 옳았다 하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도, 성신의 권세로 충고와 지시와 확신이 내게 이를 때가 있는 데, 이런 경우 내 마음속에 절박한 위험이 경고되어 닥쳐오는 위험을 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이 하나님의 예언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어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애와 모든 힘을 구세주께 봉사하고 주님의 왕국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짐합니다. 아멘. *

여리고로 가는 길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여러분께 말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셨을 것입니다. 동, 서, 남, 북에서 여러분은 솔트레이크로 가는 길을 여행해 오셨습니다.

길이라는 낱말은 아주 함축적인 것입니다. 한 세대 전에는 봄 호프, 빙크로스비, 도로디 라모와 같은 영화계의 거장들이 리오로 가는 길, 모로코로 가는 길, 잔지발로 가는 길 등의 제목이 붙은 영화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루드야드 키플링은 “맨덜레이로 가는 길”이라는 시로 불후의 명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오후 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유명해진 길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펼쳐 누가 복음에서, 역사적으로 여리고 가는 길을 유명하게 한 중요한 사건을 다 함께 살펴 보기로 합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구세주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 : 25-37)

우리는 누구나 지상 생활을 해 나가면서, 각자의 여리고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강도를 만나 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나는 부상당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갈까요?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는 결코 어느 것에도 비할 바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가는 길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상당한 자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소리치는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따라 갈 때, 완전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베푸신 여러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베테스다 못가의 병자, 간음한 여인,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여인, 야이로의 딸,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 등은 모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모두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베테스다 못가의 병자에게, 예수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 5 : 8)고 하셨습니다. 죄지는 여인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 8 : 11)고 충고하셨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는 영생에 이르도록 마르지 않을 샘물을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막 5 : 41)고 명하셨습니다.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야 나오라”(요 11 : 43)고 잊지 못할 중대한 말씀을 하셨

입니다.

이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속주에게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의 생애에서, 여기고로 향하는 나의 길에서도 그같이 귀한 경험이었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께 그러한 예를 두 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나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이고, 두번째는 내가 여기고로 가는 길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몇년 전에 누구보다도 큰 친절과 사랑으로 세상을 영화롭게 하여 영원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스 시 자콥슨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으며, 이민은 사람들을 도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장례식에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못 회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내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덴마크인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작고, 볼품도 별로 없어, 흔히 같은 반 친구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아침,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의 너털 너털 기워 입은 바지와 낡아빠진 셔츠를 조롱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기에 너무나 자존심이 강한 어린 루이스는 예배당을 빠져나와, 단숨에 솔트레이크시의 서부 2번가에 있는 길거리로 달려와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루이스가 앉은 길가의 도랑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주일학교 공과 내용을 적은 종이를 꺼내, 숨쉴듯 종이배를 접어, 흐르는 물에 띄웠습니다. 상처받은 소년의 마음속에서 “다시는 안 갈테야”라는 결심이 솟아 났습니다.

갑자기, 눈물 어린 루이스의 눈에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의 상이 물에 비친 것이 보였습니다. 루이스가 얼굴을 들어 보고, 조지 버비지 주일학교 회장이 서 있음을 알아 차렸습니다.

“같이 앉아도 되겠니?”하고 친절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랑가의 길바닥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길을 뻗친 선한 사마

리아인이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개의 배가 접혀 띄워졌습니다. 드디어, 그 지도자는 일어나서 소년의 손을 꼭 쥐고 같이 주일학교로 되돌아 갔습니다.

후에 루이스 자신이 바로 그 주일학교를 말했습니다. 그는 오랜 봉사 생활을 통해서, 여기고 길에서 그를 구조해 준 여행자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감동적인 경험을 들었을 때, 이런 쇠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혼자 갈림길에 섰네
그 얼굴은 환히 빛났지.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는 인생 경기에 들어섰다네.
길이 동과 서로 갈라져 있어
소년은 어느 길이 좋은지 알지
못했네.

그때 그는 마음내키는 대로 따라가
기로 했네.

그는 경기에 지고 월계관을 쓰지 못
했네.

결국은 무서운 울가미에 걸려 들었
지.

아무도 갈림길에 서서
그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은
까닭에.

그후 똑같은 장소에
한껏 희망에 부풀 소년이 있었지.
그 역시, 인생 경기에 들어 섰다네.
그 역시, 좋은 것을 찾고 있었네.
그러나 그 길을 아는 한 사람이
그에게 길을 가리켜 주었다네.
그는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나와
경기에서, 이겨 승리의 월계관을 썼
다네.

그는 지금 탄탄대로를 걷고 있지.
갈림길에서 좋은 길을 가르쳐 준 사
람이 있던 까닭에

이번에는 내가 여기고로 가는 길을
따라 처음으로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내가 열 살 적에, 크리스마스
가 다가오자, 다른 소년들과 마
찬가지로 전기 기관차를 원했습니다.
내 소망은 값싸고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배역을 감아 주는 기관차가 아니
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갖
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 공황 시기였으나,
부모님은 성탄절 아침에 내게 훌륭한
전기 기관차를 선사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신 것
임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그 기관차를 돌리면
서, 엔진이 바뀌 있는 데서 처음에는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을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 제일 정원의 회원 : 좌로부터 지 호머 더럼, 제임즈 엠 페러모어, 리차드 지 스크트.





대관장단 : 좌로부터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엔 엘든 테너 부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살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들어오셔서 아랫 마
울에서 혼자 사는 한센 미망인의 아들
인 마크를 위해서 태엽감는 기차도 샀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기차쯤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차는 내
가 받은 값비싼 기관차와 같이 길고
매끄럽지 않고, 짧고 뭉툭했습니다.

그러나 그 값싼 장난감에는 유조 차
량이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 기관차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 은
근히 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 유조 차
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크보다 더
그것이 필요하다면, 갖도록 해라.” 하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기관차에
그 유조 차량을 달고 매우 행복해 했
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그 나머지 것을 갖고
마크 한센에게로 갔습니다. 그 소년은
나보다 한 두살 위였습니다. 그는 그
런 선물을 받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
기 때문에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
니다. 그는 내 전기 기관차보다는 훨
씬 못한 기차에 태엽을 감아주고 그것
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뿔 듯이 좋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치있게 이렇게 물으셨읍
니다. “토미야, 마크의 기차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음을 크게 깨닫게 되었
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나는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려 와,
유조 차량과 내 것에 있던 것 하나를 더
빼어, 한센씨 맥으로 되돌아가서 마크
에게 쾌활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네 기차에 붙어 있던 차량 두 개를 잊
어버리고 왔단다.”

마크는 차량 두개를 자기 기차에 덧
붙였습니다. 나는 장난감 기차가 험차
게 달려나가는 것을 보며 도저히 말
로 표현할 수도, 또 잊을 수도 없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한센씨 맥을 나와, 친
친히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손
을 맞잡은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나오
기 위해 사망의 그늘진 계곡으로 들어
가, 생명의 다리를 건너와서 이제 나
의 손을 잡고 함께 우리만이 아는 여리
고 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사람에 따라
서는, 어머니가 읊으신 시귀로, 또는

즐거 부르시던 음악으로, 또는 노래 부
르시던 것이나 풍기는 냄새나 컷가에
들려 주시던 이야기로 회상하게 됩니
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줄 기회를 찾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
이, 우리가 여리고 길로 함께 간 그 날
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날, 이 세상에는 마음을 즐겁게 해 주
어야 할 사람도 있고, 행위로 이바지
해야 할 자도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
은, 귀한 영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 상처받고 외
로움을 겪는 자, 나이들고 방황하는
자, 이 모두가 우리의 도움을 외쳐 구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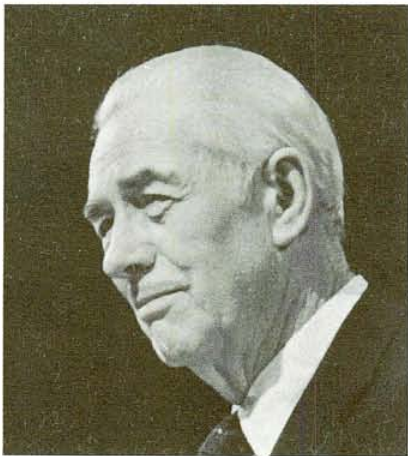
생의 이정표는 모든 여행자를 유혹
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는
길, 권세를 얻는 길, 인기를 끄는 길,
호화롭게 사는 길 등을 따라 나가기 전
에 갈림길에 잠시 서서 생각해 보십시
오.” “여리고로 가는 길로 나를 따라
오라.” 하고 은밀히 속삭여 주는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모두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주
님을 따라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한 일”이라 함은, 공평한 판단, 자비, 참된 신앙 및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몬슨 장로와 나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굉장한 많은 거리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이스 자콥슨 형제도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몬슨 형제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여리고로 가는 길을 조금 더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 22 : 42)

그 바리새인들은 생각이 혼란되어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마 22 : 46)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복지에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극히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시대로 이끌어 내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기로 합시다.

말일성도는 주님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로부터 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창조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를 안다고는 해도, 우리는 그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를 완전히 받아 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 버리거나, 길가에서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태도로 대한다거나, 주위의 압박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것입니까?

그렇듯 지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의식과 율례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의로운 일을 남게 하는 공평한 판단, 자비, 참된 신앙의 행사와 같은 더욱 중한 일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께 질책을 받았읍니다.

구세주께서 그와 같이 중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는 몬슨 형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인간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그가 그러한 관계를 복음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음은 뜻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크게는 하늘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도 고대의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우리는 의식이나 율례에는 참여하면서도 형제애, 정직, 자비, 미덕, 성실성과 같은 중한 일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 생활에서 빼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는 둘째로 큰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마 22 : 38, 39)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이것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첫째로 큰 계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하신 그의 계명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율법대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눅 10 : 10—37)를, 특히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비추어, 읽어 보기로 합시다. 이 성구는 우리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보십시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 25 : 42—43, 45)

그와 같은 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주님의 율타리에 들어갈 양으로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오른 편에 있지 못하고, 왼편에서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마 25 : 46)고 경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직접 대하는 우리 이웃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처사라

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20)

우리는 때때로 시간을 내어 산상수훈을 읽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조금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경에 나와있는 말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오거나 혹은 나아오려 할 때 형제가 너희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로 가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로다.” (니삼 12:23-24)

주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실 것이나,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니삼 13:14-15)

이 속에 얼마나 큰 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시다. “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잠시 멈추어,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니삼 14:1-2)

교리와 성약 1편에서는 이같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곧 주께서 오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저들이 이웃을 헤아린 그 헤아림에 따라 헤아리시는 그 날에 이르기가 지인 치는 권세가 주어졌느니라.” (교성 1:10)

이 가르침에는 무엇보다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심판 날에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대항 그대도 우리를 헤아리실 터이기 때문

입니다. 그것은 의아스럽게 생각될지 모르나, 바로 그것이 필수적인 주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큰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방법을 보여 주는 이 원칙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새로운 빛을 주며,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일도록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황금율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니삼 14:12)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 장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웃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혼란시키기로 뜻하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명으로, 나는 이 말씀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절단코 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니삼 12:20)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구와 함께 또 하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배어 불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니삼 27:19, 17)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여러분께 확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

는 과연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께서 세우신 높은 생활 표준을 참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 순종함은, 주님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등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계명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사 30:21)

우리가 불친절하고, 부정하고, 부정적하거나 잔인하다면, 우리가 위선적이어서 마음속은 악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경진할 때는,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진대 구원의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같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리고는 곧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삼 27:2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낮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니삼 14:21) 이 점 역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니삼 14:22)라고 말한다 해도 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중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 이웃을 정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니삼 14:23)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 : 1~3)

그러면 참된 의미에서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함께 사랑하도록 도와 주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입니다.

엘마서에는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정제하는 자가 쓸모가 없어 털어 내버리는 찌꺼기와 같으리니, 못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게 되리라.”(엘 34 : 29)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시지만 (니삼 13 : 24),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점에서도 순종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십니까? 이는 그가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존재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치 않은 것은 그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한 수단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지상 생활에서부터 스스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엄격하신 것이며, 주님은 죄를 털끝만치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의 하나는 우리가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릇 매사에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중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여 명령을 받아 마지 못해 이를 준행하는 자는 정죄를 받느니라.”(교성 58 : 26, 29)

예언자 아빈아다이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를 이러한 말로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는 주를 임의로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를 구속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진실로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죄 가운데

지내다가 죄를 안고 죽은 자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구원이 그러한 자에게 이르지 아니하며 주가 그러한 자들을 구속하지 않으심이라.”(모 15 : 26~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여 그에게 나아 오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 28-30)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니삼 13 : 33)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1953년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뒷줄 좌로부터 헨리 디 모일,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베리온 지 롬니, 리그먼드 리차즈, 아담 에스 베니온, 리차드 엘 이 반스, 앞줄, 좌로부터 조셉 필딩 스미스(평의회 회장),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매튜 카울리.



계시 : 예언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교회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총관리 형제들로부터 영감과 계시에 가득찬 말씀을 듣는 동안, 영적으로 큰 감화를 받고 이 영화로운 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태버나클 합창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는 축복도 받았습니 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아래 함께 모여 그를 경배하며 성신의 권세로 가르침을 받는 동안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심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러한데, 이는 우리가 물문경에 있는 모로나이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 다.

“저들의 모임이 교회 회원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므로, 영의 역사와 성신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행하여졌으니, 성신의 능력이 저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고, 권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

송하게 하였고 또한 그대로 행하여졌느니라.”(모로 6 : 9)

우리는 의롭게 생활하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길에 따르는 함정을 피하고, 겸손하며, 기도하고, 끊임없는 성신의 권고에 순종하여 악을 물리치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이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참으로 분명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교성 8 : 1-3)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날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참으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계시는 참으로 살아있는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개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같이 의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할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9 조)

고대의 경전에서도 이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 : 7)

예언자 아모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주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 13 : 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변함이 없으신 주님에 대하여 읽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신앙개조 제8조) 믿는 성경에서, 아담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구약의 예언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이었으며,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었고, 이같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 곧 최근에 일어날 일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 사업의 거룩함과 예수께서 외치신 살아 있는 복음의 필요성을 새롭게 덧붙여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다고 하는 소위 기독교 학자들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신약이 계시의 끝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하고 계시함을 간증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한 다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 : 21)

이 혼란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황폐와 더나가서, 부정과 거짓과 부도덕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고대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계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시급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하늘 문을 닫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예언자와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면, 주님은 자연히 그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슬픈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부름을 주시며, 그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권유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한낮의 햇빛 가운데에서도, 한밤중의 암흑속을 헤매는 듯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제명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주님과 그 하시는 사역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갈게 하며 너희 땅으로 늦과 갈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찌라……” (레 26 : 19-20)

성경이 “예언의 끝”이라면, 그것은 신앙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 때문에 때때로 하늘이 닫혀 철

과 같이 되고, 땅이 늦과 같이 된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영적인 암흑이 닥치는데, 이것은 니파이인의 역사에서 “촛불이나 햇불이나 잘 마른 나무에 불을 질러도 전혀 빛을 내지 못하였”(니삼 8 : 21)다는 실제적인 암흑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자신을 내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얕은 계산과 해석에 의존하려 한다면, 주님께서도 물론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기적과 계시에 관하여, 물론경의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같이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그쳤다 할진대 이는 신앙이 또한 그친 것이다. 사람의 처지가 참혹하리니 이는 마치 구속이 마련되지 아니함과 같음이라.”(모로 7:38)

절정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빛이 오시어, 하늘의 장막을 열어, 땅과 하늘이 다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빛이 사라지자, 다시금 암흑이 덮쳐, 하늘 문이 닫히고 “암흑 시대”가 임했습니다.

그 철의 장벽이 일 세기 반 전에 산

산히 부서져, 하늘 문이 다시 열렸으며, 그 이후로 계시가 계속되었음을 나는 오늘날 전세상에 간증합니다.

한 사람이 신의 지도를 간절히 기원했을 때 새로운 날이 통탄 것입니다. 은밀히 한적한 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리높여 간구한 그 곳에, 대낮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세상을 비쳤으며, 다시는 그 장막이 닫히지 않았읍니다.

오늘도 몇몇 형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할 바 없이 큰 신앙을 갖고 있던 요셉 스미스라는 어린 소년이며, 전례를 깨고, “철로 된 하늘”을 부수어 다시금 대화의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하늘은 땅과 입맞추고, 빛이 어둠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은 다시 인간에게 말씀하시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암3: 7) 다시금 보이셨습니다. 새로운 예언자가 이 땅에 세워졌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파멸되지 않고 다른 백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국의 영원성과 실제로 내려진 계시는 절대적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다시는 해가 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1898년~1901년 당시의 대판장단. 중앙이 로렌조 스노우 대판장. 왼쪽이 제1보좌인 조지 큐 캐논, 오른쪽이 제2보좌인 조셉 에프 스미스



인간이 창조주와의 대화를 부당한 것으로 힘주어 입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자녀들로부터 자취를 감추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는 언제나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새로이 여신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 계승에 관한 거룩한 율법을 마련하시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룩하게 지명받은 계승으로, 끊임없이 이어져나갈 것이며, 주님의 비밀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경전도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대 미국의 핵심적이고 귀중한 기록에다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거룩함에 대한 간증을 덧붙여 문헌경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 책을 성경을 뒷받침해 주는 거룩한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820년 그 역사적인 날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예언자에게 샘물처럼 끝없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귀중한 계시를 포함한, 그 외의 경전이 뒤이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계시는 교리와 성약이라 하는 다른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일성도 경전의 완성은 값진 진주인데, 이것은 고대 및 현대 예언자의 계시의 기록과 번역된 기사를 엮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스런 기록을 인쇄하여 엮은 것이 “예언의 끝”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가 계속되며, 교회의 서류함에는 달마다 혹은 날마다 내려오는 계시로 가득차 있음을 전세계에 간증합니다. 우리는 또한 1830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알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해서 해석해 줄 예언자가 계속해서 있을 것임을 간증합니다.

이제,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시다. 수많은 현대 종파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을 믿고 있으나, 현대의 예언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고대인들 역시 그들 보다 앞선 예언자들을 받아들였으나, 당대의 예언자들을 배격하고 저주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계시같은 것이 있다면, 몹시 두렵고, 지구 전체가 흔들릴 만한

것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모세 시대나 요셉 시대나 또는 현대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이나 밤의 어둠을 내쫓는 새벽의 여명과 같이 예언자의 마음속에 내려와 지울 수 없이 깊은 인상을 주는 계시를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내 영혼에서 불타는 듯한 간증의 권능과 힘으로 말씀드리거니와, 회복의 예언자로부터 지금 이 시간의 예언자에 이르기 까지 대화의 길은 막히지 않았고, 권능은 계속되며, 속까지 환히 비추는 밝은 빛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선율과 천둥 소리와 같은 호소력을 지니고 계속 들려옵니다. 약 일 세기 반 동안 거의 중지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왕국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날도 예언자를 부르시며 그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후 모임에 앞서 우리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불렀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다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과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렘 및 그외의 다른 대관장에 대하여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또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과 해롤드 비리 대관장 및 그밖에 이 직책을 맡았던 모든 분들에 대하여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크게 봉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조직했으며, 그것을 계속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보살핌으로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의 사업은 이 모든 분야에서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끝마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교회 광장 중앙에 있는 신전의 동쪽에 세워진 아름다운 네 개의 조각상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 네 개의 조각상은 내년에 나부시의 상호부조회 공원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세워지게 될 13 개의 명예로운 여성상 중의 일부입니다. 이 네 조각상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 광장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솔트레이크시티에 계시는 동안 그곳을 찾으셔서 조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든 비 힝클리 장로님이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것처럼 아름답고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내 생각은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마지막 날 밤 사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중 한 형제에게 “슬픔에 잠긴 나그네”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나그네
내 옆을 지나가면서
거절할 수 없는 도움
나에게 간절히 구할 때
어디서 와 어디로 가며
이름도 묻지 못하나
그 눈에 나도 모를
무엇 있어 내 사랑 끌렸네.

먹을 것 적은 상 앞에
말없이 나그네 찾아와
음식을 구하매 모두 주니
축복을 하고 먹으며
내게도 주어 받아 보니
그것은 천사의 것이라
급히 입에 넣었더니
부스러기는 만나였네.

내가 보니 나그네 셋가에
힘없이 누워 있었네.
맑은 물 목이 마른 그를
조롱하듯이 넘치니
쓰러진 나그네 세 번 세워
물을 떠 먹이고서
나 그 물 마셔보니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았네.

한 밤과 홍수 지나가고
겨울 바람 물려갔네.
멀리서 그의 소리 듣고
그에게 오기를 청하여
손님으로 따스히 맞아
편히 쉬게 눕히고
난 바닥에 누워 잠드니
에덴 동산 꿈 꾸었네.

나그네 심한 상처입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네.
내가 달려가 기쁨으로
그 상처 치료해 주었네.
아프고 깊은 나의 상처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때부터 아픔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 깃들었네.

옥에 갇힌 그를 많은 무리
조롱하고 놀렸으나
나그네 나에게 하는 말
“날 위해 목숨 버리겠느냐”
차디찬 피 온 몸 뿔싸며
내 몸은 떨렸으나,
내 영혼 기쁨에 넘쳐
“그리하리다” 대답하였네.

그러자 나그네 내 앞에서
그 모습 변화시켰네.
두 손에 분명한 못자국 보고
구세주인줄 알았네
점손히 무릎꿇은 나의 이름
부르며 하는 말,
“내게 행한 너의 모든
행실—기억하리니 두려워 말라.”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
러 날 동안 참으로 훌륭한 대회를 가
졌으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
쁩니다.

여러분께 평안이 깃들어, 주님의 기
쁨과 평안이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
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살아 계시며, 주의 뜻과 마음을 매일같
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어,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을 지시해 주심을 알고 있
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해 드
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1977년 4월 2일 토요일 복지 모임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라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교회 예비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요소는 감독의 창고, 생산 사업, 복지
사업 활동,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데저렛 산업, 직장 알선 계획 등
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차
대회의 복지 사업 모임에서 여러
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주님의 방법으로 도우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각 감독이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다시 지적해 주고 또한 과
거에 강조한 바와는 약간 다른 면에서
이들 자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은 옛날부터 이행되던 근본적인 지
도 원칙입니다. 예언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각각 저들이 가진 정도에 따라, 궁
핍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병들어 고난
을 받는 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값진 의복은 아니나 깨

끗하고 단정하게 입었느니라.

“이와같이 저들은 교회의 질서를 이
루어,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다시 계
속하여 평화를 누리니라.

“저들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쉼없고
굶주리며 혹은 목마르고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은 쫓아내지 아
니하였고, 헛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속박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
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교회에 속
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거
저 나누어 주었느니라”(엘 1: 27-28,
30)

교리와 성약에서 자주 배운 바와 같
이 감독은 가난한 자를 찾아 그들의
궁핍함을 보살피 주어야 합니다. 이것
은 비단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한 사람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인 문제를 가진 사람 또는 갖가지 생
활상의 인간 문제에 관련된 사람이 포
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는 주로 개인 신권 접견과 상호부
조회 역원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하
여 감독이 알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우선, 문제를 가진 개인에게 있으며
그 다음 그의 가족에게 책임이 지워집
니다. 이들이 자기의 최선을 다한 후
에야 교회와 교회의 복지 사업 단체에
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준하에서 오늘날
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방

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여섯 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독의 창고, 둘째, 생산 사업, 셋째, 복지 사업 활동, 넷째,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다섯째 데저렛 산업, 마지막으로 직장 알선 계획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자원을 일컬어 교회 예비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감독의 창고에는 창고 건물과 운송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회 회원이 기부한 생활 필수품을 접수하고, 보관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감독의 창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일용품들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일용품은 감독으로부터 수령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며, 상호부조회 회장이 작성하고 감독이 서명한 감독의 주문서가 있어야만 주어집니다. 앞으로 교회 도처에 더 많은 감독의 창고가 조직될 것입니다. 와드와 스테이크가 성장함에 따라 실시될 것이며 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독의 창고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가를 알려 주는 대단히 좋은 예를 솔트레이크시티의 웰페어 스케어에 있는 감독의 창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이 창고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독의 창고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규 직원으로는 간부 직원 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정신이 실제의 일에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창고에 온 32세된 형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며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불안해 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를 사랑과 이해로써 받아 들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반에 일용품을 저장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가 글을 읽지 못했으므로 간부 직원은 상자에 그림을 붙여 놓아 그림과 대조하여 선반 위에 상자를 올바르게 쌓아 올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동료 직원의 인내와 사랑으로써 이 젊은이는 선반에 올바른 일용품을 적절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봉급의 일부로써 양친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식료품이 지급되었습니다. 집에 가져 갈 식료품을 받는데 이 불우한 젊은이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과 성취감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창고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

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이 작성한 주문서에 서명하고, 사전 계약이 되어 있는 현지 상인에게 주문서를 제출합니다. 이들 상품을 구입할 자금은 일용품 생산 예산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지 생산 사업은 감독의 창고에 저장할 대부분의 일용품을 공급합니다. 이 생산 사업에는 곡식, 낙농 제품, 비육우, 양봉, 농작물, 과수원 등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이 아닌 생필품을 제조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발전되면 각 스테이크는 감독의 창고에 저장되고 분배될 생필품 생산에 어떤 방법으로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 사업의 확보 및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976년 10월 복지 사업 모임에서 하신 에이치버크 피터슨 감독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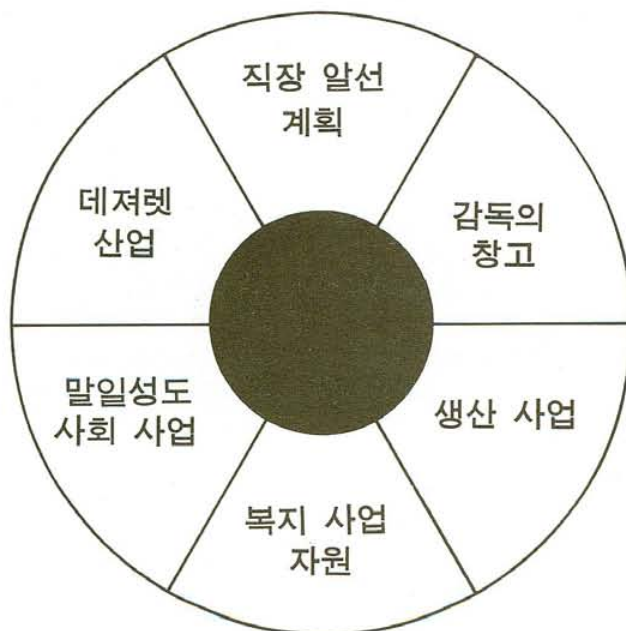
사용료, 의료비 등과 같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현금은 금식 현금에서 나옵니다. 수년 간 실시되어 오던 바와 같이 현금 원조보다 생필품 원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금식의 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리하여 회원들이 지금보다 더욱 관대하여져서 금식 현款的 금액을 두 끼의 식사비에 국한시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복지 사업 자원의 활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분야의 하나가 복지 사업 선교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교회의 39개 선교부에서 복지 사업 선교사 300여 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이들의 전문적인 기술은 농업, 건강 유지에 관한 모든 분야, 직업 개발, 재정 관리 등과 같은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기술을 갖고 계신 부부와 독신 여성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선교 사업에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일성도 사회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은 신권 지도자로 하여금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가진 회원들 돕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인가를 받은 봉사자와 임상 봉사의 두 가지 주요 범주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인가를 받은 봉사는 입양, 부양, 인

교회 예비 프로그램



다만 학생 배치 등과 같은 법으로 통제되는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임상 봉사에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법이 포함됩니다.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가 없는 곳의 감독은 이와 유사한 봉사를 제공하며 교회 표준에 부합되는 훌륭한 전문가의 명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 미혼 부모, 또는 부양 등에 관한 봉사를 실시할 때, 신권 지도자는 국법과 지방 자치 단체의 법에 따르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될 때, 감독은 상담을 받는 개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담 진행 과정과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최근에 자기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한 감독과 사회 사업 요원에게 감사를 표시한 어느 어머니로부터의 매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로젠스와 데이비드 생애의 최고의 여름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여름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우리 두 아이에게 큰 문제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뒷걸음치는 데이비드 그리고 친구를 갖고 싶어 노력은 하지만 항상 친구를 잃고 있는 로젠스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답니다.

“사내아이를 치료하고 신경 과민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초래된 정서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독님이 제게 말일성도 주간 야영을 제안해 주셨을 때, ‘좋은 생각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될거야. 또 나도 애들 치닥거리 하는 데에서 헤어날 수도 있겠고, 나는 일을 해야 하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저는 제 아들이 계곡으로 등반하는 어려운 코스에서 선두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로프를 사용하여 빌딩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고

문 선생님과 미소를 교환하면서 보여준 자신감에 찬 표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쯤 되어 로젠스는 자신의 욕구불만을 말로 표현할 줄 알게 되었으며 자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와 상의하러 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신경 과민증의 아이를 기르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친지들이 이해하려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흔히 아이를 버릇없이 키워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우 이해해 주시는 분들과 만나는 것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메저렛 산업 시설은 일반적으로 교회 회원이 크게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만 위치합니다. 이곳은 노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불구자 등과 같은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 산업은 검약, 기부, 작업, 분배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회원의 집중이 증가됨에 따라, 신권 지도자들은 메저렛 산업 시설의 설립을 위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알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알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주로 형제를 위하여는 신권 정원회에, 자매를 위하여는 상호부조회에 있습니다. 직장 알선 계획은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

애를 충족해 주는 문제이므로 원활하고 신속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취업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에는 전임 직장 알선 센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다만 정원회와 스테이크 및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도와 주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며, 본부의 적절한 승인을 얻은 후에만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자원이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고 가동할 때 교회 감독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와 함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돌보라는 주님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엘마의 권고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험벗고 굶주리며 혹은 병들고 또 잘 먹지 못한 자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헛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들이 늙었거나 젊었거나, 속박된 사람이거나, 자유로운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교회에 속한 사람이거나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조금도 치우침 없이 거저 나누어 주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저들은 더욱 번영하여……”(엘 1:30-31)

우리들은 시편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시 41: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10-18년대의 대관장단, 조셉 에프 스미스(왼쪽), 제2보좌 안손 에이치 런던, 제1보좌 존 알 런던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의 방법으로 “궁핍한 형제와 자매”를 돌보기 위하여 감독의 창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확장”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번 대회의 이 중요한 복지 모임에 참석하라는 대관장단의 요청을 받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창고를 통하여 궁핍한 자를 돌봄”입니다.

40여 년 동안 교회의 회원들은 지도자들로부터 불확실한 장래와 재난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회원이 이 권고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권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시대와 여건이 주님께서 1832년 3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바를 상기시키게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라. 때가 임하였나니, 지금 가까왔도다.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창고의 업무를 규율있게 처리하고 확고히 세우

기 위하여 나의 백성 중에 조직을 강화하여야 하느니라……너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교리와 성약 78 : 3, 14)

교회의 창고는 운영 및 관리 요원과 창고 건물 및 운송 수단으로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교회 창고는 식료품과 그 밖의 모든 생필품을 접수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교환하고 궁핍한 자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교회 창고의 기본적인 단위는 지역 감독의 창고입니다. 감독의 창고는 교회 본부 소유의 시설이며, 현지 감독은 자립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한 식료품과 의류와 기타 일용품을 얻는 것입니다. 데저렛 산업은 비식료품 공급을 위한 창고로서 사용됩니다. 교회의 모든 감독은 와드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필수품이 저장된 지역 창고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계시를 통하여 창고를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협동교단 하에 헌납된 재산 중 나머지 즉 “잉여물”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후에 주님께서서는 관리 감독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창고 하나를 지정하여 백성의 부족량을 충당하고 남은 것은 돈이나 음식물로나 다 이곳에 보관시켜

감독의 손으로 이를 관리하게 할지이다.”(교성 51 : 13)

오늘날 교회의 창고에는 78 개의 감독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들 창고들은 협동교단 하에 사용되던 때와 거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일용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포장하고, 제조하고 구매하기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들 창고를 채우기 위하여 3,000 개 이상의 와드의 회원들이 채소, 곡식, 과일 및 기타 식료품과 비식료품인 일용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 및 가공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용품 중 일부는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에 판매됩니다. 그 나머지 일용품은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궁핍한 자에게 배부됩니다. 1976년 중 창고를 통하여 제공된 원조 총액은 수백만 불에 달하였습니다.

감독의 창고는 교회의 모든 회원을 돌보기 위한 충분한 일용품을 저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는 다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일년분의 식량과 의복과 가능한 경우 연료까지 비축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이 권고를 따를 때 회원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까지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도록 주님께서 임명하신 행정관입니다. 감독은 “교회가 돌보아 주어야 할 가난한 자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판관입니다. ……교회의 기금과 와드의 도움으로 와드 회원 중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감독의 의무이며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높은 엄숙한 책임입니다. 감독은 이 의무를 피할 수 없으며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감독은 이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 수도 없습니다. 감독은 언제라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1976년 11월 엔사인 112페이지에 인용된 1941년 7월 9일자 미출판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의 기사)

주님께서는 계시로 감독들에게 열심히 “가난한 자를 찾아내며……저들의 부족량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교성 84 : 112)고 명하셨습니다. 창고는 감독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감독이 창고의 일용품을 청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와드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발견되면 그들 개인의 특정한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의 도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은 이들의 필요 사항을 평가하여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보며 가족이 자립 능력이 없는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일용품은 창고에 보관하며 감독의 주문에 의해서만 방출됩니다.

창고에서 일용품을 결코 판매하지 않으며 감독의 주문서에 감독의 공인된 서명이 있어야만 일용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사용해야 할 창고의 일용품의 양을 결정할 때 감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감독의 창고와 창고 일용품은 주님의 종(감독)이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재산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창고 요원이 일용품과 현금의 헌납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적어도 일년분의 부패되지 않을 일용품을 항상 재고로 두어야 합니다. 부패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잉여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창고 관리인들은 모든 가공된 식품을 받을 때 제조 날짜가 명시되었는지 또 사전에 정한 품질 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모든 저장품의 품질을 유지시키고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전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창고는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각 창고는 효율면에서, 청결면에서, 봉사면에서 주님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독의 창고는 모든 감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본부 복지 위원회는 더 많은 생산 및 가공 사업과 창고를 짓기 위한 확장 계획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 지역 관리자와 12사도 지역 대표와 지역 및 지구 복지 지도자의

지시 아래 복지 사업과는 지역 사정에 맞추어 이 사업을 지시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합당한 신권 지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태이크 부장과 감독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고 건설을 위하여 모금을 시작하기 전 조언을 구하십시오. 계획 목표를 신중히 세우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계획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복지 사업의 어느 면을 집행하더라도 복지 사업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목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게으름으로 인해 오는 불행 없애고, 실업 수당에 의존해서 생기는 악을 퇴치하며, 독립심과 근면과 검약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성도들 가운데 다시 심어 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복지 사업 지침서 1페이지에서 인용)

복지 사업의 도움을 받을 자들은 일용품이나 금식 현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들의 능력이 미치는 한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보람있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장려되지 않으면서 교회의 실업 수당이 금지된다면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손상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영구히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히 배우지 못한 하늘의 법칙입니다.

감독이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하면 그 개인 자신의 현금 지불에 필요한 돈은 자신이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일용품이 필요할 때는 창고의 일용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능력이 닿는 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작업 지명은 담당 감독 보좌나 담당 상호부조회 보좌가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는 금식 현금으로 갚힌 현금으로 돕는 대신에 일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금식 현금 대신에 창고의 일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복지 제도를 통하여 들어온 일용품이 유통되며 생산이 장려되고 낭비가 없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인용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 회원은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회원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신에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한가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인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필요를 벌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그의 가족이 도와야 합니다.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정부가 아니라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국민이 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부양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말일성도들은 댓가 없이 지방 또는 국가 기관의 복지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는 식량권도 포함됩니다. 신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도록 권해야 하며 비록 보다 적은 양의 식량과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벌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은 영적으로 강화되며 그들은 자신의 품위와 자존심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만 980억 불 이상의 돈이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백만의 남녀에게 공짜로 정부 용품 지불과 기타 원조의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국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 정부의 실업 수당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말일성도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한 댓가의 일을 하십시오.

오늘날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불길한 것 같습니다. 계시와 예언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 우리 현세대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것

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인 또한 세속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 : 30)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주님의 프로그램을 지지함으로써 커다란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또 교회에 내릴 것입니다. 나는 제 이차 세계 대전 후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럽의 교회 회원에게 식료품과 의복과 침구를 나누어 주면서 이들 축복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나는 굶주린 자와 쇠약해진 자와 맨발로 다니는 자를 보았습니다.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고통당하는 자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최초로 교회의 복지 보급품이

베를린에 도착했던 일을 잘 기억합니다. 나는 선교부장 서리 리차드 멩클렉 부장을 대동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낡고 찌그러진 창고로 걸어들었습니다. 그곳은 귀중한 복지 보급품이 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거의 천정까지 쌓아올린 상자를 보았습니다.

“이 상자들이 모두 식료품입니까?” 리차드 형제가 말했습니다. “이 상자에 식료품이 가득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식료품과 의류와 침구류일 거요. 또 의약품도 조금 있을테지요.”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리차드 형제와 나는 상자 하나를 내려놓고 열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흔하디 흔한 음식인 마른 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를 본 리차드 형제는 한 움큼 콩을 쥐더니 손가락 사이로 콩을 흘려 보내며 너무도 고마워 털썩 주저앉아 어린이가 같이 울었습니다.

다른 상자를 열어 보았더니 아무 것도 첨가하지도 않고 배어내지도 않은 주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인 같은 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으로 조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내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슨 형제님, 우리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도입니다! 형제애와 희생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주님의 방법이며, 이러한 행위는 위엄과 자기 존중심을 갖게 합니다.

현대의 창고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확장시켜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궁핍한 형제와 자매를 지혜롭게 돌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1869년에 찍은 이 사진은 태버나클 동편의 전경인데 현재 교회 본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필요 사항을 충족시킴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회원의 특별한 사회적, 정서적 필요 사항은 현재 지역 교회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홍수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교회의 위대한 구제 사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감동을 받으셨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같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못지 않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필요 사항은 트럭 및 대부분의 식료품이나 의류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이러한 필요 사항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성스러운 계명을 어기게 한 생활 방법에 빠진 한 젊은이의 비극을 담고 있는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목숨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저는 도움을 받으리라는 희망도 없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죄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제 속에 남은 영적인 생명의 깜빡이는 불빛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계속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저는 제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안녕히 주무시라고 아버지께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떠밀어 버리려던 우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 일이 아버지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안정감과 꿈의 세계는 제가 그곳에서 있는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포에 싸여 낯선 사람같이 여겨지는 아버지의 걸을 떠나 어머니에게 달려가 제가 받은 충격을 속삭이듯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인하셨으나 저를 납득시키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날밤 불을 끈 제 침실의 어둠속에서 아버지를 지켜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문을 여실 때까지 달아날 것이라고 혼자 맹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실 때까지 저는 아버

지를 의식적으로 모른 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알아채시지 못하셨습니다. 아셨다 해도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결코 물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수년 동안 행동과 반항을 일삼았으나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는 방법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여간 저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병인 동성 연애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오랫동안 느꼈습니다. 17 살부터 23 살에 이르기까지 환각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러한 말로 그의 편지를 끝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추셔서 감사합니다. 도와 주실 수 있겠어요? 저를 도울 이유가 있습니까? 제게 확신을 갖게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도울 수 있습니다. 젊은이,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후 이 젊은이는 신권 지도자를 통하여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신권 지도자와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직원은 이 형제가 그의 아버지 슬하에서 배우지 못한 것(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회개와 용서의 복음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란 사실)을 배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대한 죄를 진 재너트(그렇게 부르겠습니다)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된 것을 발견한 감독은 그녀를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에 맡겼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과는 달리 사회 사업 단체의 직원들이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될 사랑과 이해를 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독과 사회 사업 단체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가정에 기꺼이 받아들여 줄 양부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복음을

공부하였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미혼부모 그룹이 그녀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며, 새로운 생애를 시작할 결심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곳을 지나왔습니다.” 하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을 이해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짊어짐으로써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도움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로서 추위에 떨고 있다가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된 젊은 아파치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후에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8년 전 제가 이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을 때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구두통에 몇 가지 소유물을 갖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종족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옷이 든 새 가방을 들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같이 귀중한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압니다. 이제 저는 달성하려고 노력할 자신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와 비교하면 크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공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공해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는 성도착이 “새로운 도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거짓말과 폭력이 가끔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와 주말 여행을 즐기는 아버지는 그들의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극히 사소한 문제로

헤어집니다. 진정한 애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 재임시에 겪은 일로서 한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고 다른 아이도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지 않은 두 어린 아이의 보호권을 잃어버린 한 부부에 관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직장에 가고 아이들은 저회끼리 스스로 돌보도록 문을 잠그고 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판사의 심문에 어머니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녁을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애들에게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외의 시대”는 위대한 미대륙의 예언자 모로나이에 의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을 “참으로 심한 부패가 이는 날에 땅에 나타나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과 사기와 음행과 온갖 가증한 악행이 있을 것이요,”(물 8:31)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비극적인 상태의 거의 모든 사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한 원리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이러한 풍조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스테이크 내에 미혼모나 집행 유예를 받았거나 구류된 젊은이, 자녀 학대와 돌보지 않은 아이의 문제, 환각제 복용과 알코올 중독 문제, 결혼 문제, 성도착 등의 문제를 갖고 있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된 회원과 감옥에 갇힌 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바라나 우리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는 이같은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회원들을 도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5)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이 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이 자원은 복지 사업 일환인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입니다.

이들의 주요한 업무에 관하여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1970년에 지역 대표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 사업 프로그램은 이미 교회 회원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풍요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회원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이 프로그램은 중요성을 더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체가 다루고 있는 문제 중 많은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원들에게는 의복보다 상담이 더 필요하며, 감독을 통하여 사회 사업 단체에 의뢰된 회원은 우리가 신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같이 이러한 도움을 요청함에 있어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1970년 10월 1일, 십이사도 지역 대표 세미나)

말일성도 사회 사업의 목적 곧 사명은 교회 회원에게 훌륭한 전문가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신권 지도자를 돕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책임자와 복음과 교회의 질서와 일치되는 개인적인 가치관, 지식,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발적인 봉사자를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이나 정원회가 영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두게 된 것이 아니라 예언자께서 지역 신권 지도자에게 사회적, 정서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도록 자원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영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게 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지 사업 지침서 25페이지에 있는 다음 경고를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독과 벨기세믹 신권 정원회 및 그룹 지도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관리 지도자이다. 이들은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양해서도 안된다. 사회 사업 단체는 관리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감독, 정원회 또는 그룹 지도자가 주는 영감받은 조언과 신권의 축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복지 사업 지침서, 1974년, 25페이지)

또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돕는 자가 되도록 도우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다른 어떤 기준으로 성도들을 돌보려 한다면 롬니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남에게 영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을 거저 주는 것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질을 거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지침서에는 말일성도 사회 사업이 미혼모, 입양, 고아의 양육,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가 받는 봉사 활동을 다루는 교회의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에 관한 우리의 몇 가지 관심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별적인 입양은 흔히 비합법적일 경우가 있으며, 인가를 받은 기관의 관리나 보호를 받지 않고 수속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관련된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와 입양 부모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입양에 관한 일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회 회원과 역원이 관여하게 되면 정부 관리와 다른 사람들이 빈번히 이러한 입양을 교회의 허가를 받고 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선교 사업과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입양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신권 지도자에게 지침서를 연구하며, 대관장단의 다음 지시 사항에 비추어 여러분의 개인적인 입장을 점검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교회가 관여하는 입양과 고아의 양육에 관한 모든 일은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에 일임되었습니다.”

모든 국법에 따라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를 통하여 자격을 갖춘 많은 말일성도 가족은 인가받은 전문 입양 기관의 봉사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에 관심있는 가족에게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특정한 어린이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는 것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사회 사업은 미혼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여자를 돕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권 지도자의 지시를 받아 행해지며, 상담과 양육 가정 배치와 교육 보조, 보호, 그리고 우정과 이해 증진 활동이 포함됩니다. 부모가 입양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녀를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이

사회 사업 단체는 아이들을 합당한 말일성도 부부의 가정에 입양시킨다고 보증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미혼모에 대한 봉사 활동은 엄격히 비밀을 지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는 어떤 경로로든 접수됩니다.

인디안 학생 배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는 지역 신권 지도자의 소개를 받아 인디안 부모로 하여금 8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에게 교육적, 영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격을 갖춘 아이들은 신중하게 엄선된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정에 학기 중에 배치됩니다.

허가받고 감독받는 양육 가정은 부모와 임시로 떨어진 아이들을 돕고 지도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영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으로 가족이 재결합되게 준비하도록 자녀와 부모를 돕습니다.

이 사회 사업 단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입양 봉사 활동은 자문과 평가와 사회적, 정서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치료를 포함합니다. 신권 지도자의 요청을 받아 전문 의사는 회원에게 그들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돕습니다.

현재 21개의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 사업 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이 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또 지역 및 지구 북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면 새로운 사회 사업 단체를 추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사업 단체가 설립되면 소수의 전문가가 고용됩니다. 훈련을 받은 지원자가 이 기본 요원에 추가됩니다. 스테이크 부장들은 봉사할 지원자를 파악하고 초청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 사업 단체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 협력하게 됩니다.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권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을 제공할 말일성도 및 비말일성도 자원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려할 대상인 개인과 기관의 가치관이 교회의 표준과 가치관에 모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이나 미혼모나 양육에 관한 봉사 활동을 벌일 때에는 그 지역

의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이러한 문제 중 많은 것이 경감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말씀드린 이야기는 850 명의 경우를 조사한 어느 임상 연구원의 “동성 연애는 정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부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증거가 됩니다. 의롭게 살려는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각 이야기는 신권 지도자에 의하여 인도될 때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병든 사람, 낙담하여 고민하는 사람,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의 사람과 같은 병든 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귀중하므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가 잊혀졌다고 느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973년 7월호, 엔사인, 123페이지)

그들은 잊혀지지 않았읍니다. 아버지에게서 소외감을 느낀 그 젊은이와 임신한 13살 난 소녀와 밝은 눈 빛을 한 인디안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들은 절실한 필요 사항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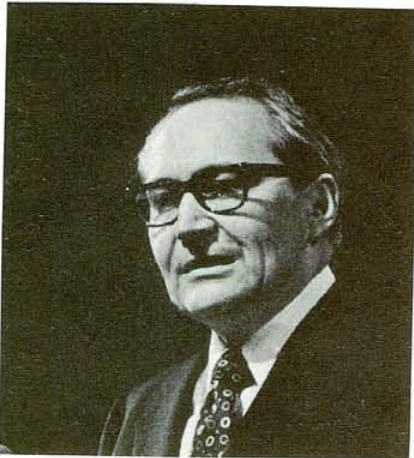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같이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가 신권 지도자의 영적인 인도하에 사회적, 정서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울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두운 자치침실에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 어린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소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신권 지도자가 자신의 부름을 성실히 수행하며 영의 인도를 받아 이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복지 사업에 있어서 스태이크 감독 평의회 기능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스태이크 감독 평의회 6가지 책임의 개요



형 제 자매 여러분, 대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기능과 평의회 의장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평의회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왕국을 건설하고 사업을 촉진하는 데 이 평의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큰 권능을 가졌나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습니다.

스태이크 감독 평의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복지 문제가 정기적으로 다루어지는 스테이크 모임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보통 스테이크 집행 위원회 모임 직후에 열리며, 이 모임의 주요한 기능은 계획 수립, 워드 단위로 가르치게 될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 및 상호 부조회 직원 훈련, 그리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조정입니다.

둘째, 감독단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의 특정한 분야를 교육하며, 정기적으로 복지 사업의 원리와 의무와 활동이 다루어지는 월례 감독단 훈련 모임입니다.

셋째,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운영 문제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임은 실무를 다루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복지 사업의 실천 사항이 보고되고, 분석되며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복지 원리가 적용되며 교회 회원을 돕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 평의회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시다시피 이 평의회는 스테이크 내에 있는 모든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감독한 명이 스테이크 부장단에 의하여 의장으로 임명됩니다. 보통 의장이 모임 순서를 작성하며 개인 신권 접견을 통하여 주어지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지시에 따라 평의회를 진행합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에서 모든 워드의 감독을 대표합니다. 모임의 빈도에 대하여는 특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 평의회는 계간 단위로 모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매월 모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스태이크 감독 평의회 기능의 첫째되는 책임은 주님의 창고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장을 통하여 평의회 구성원은 창고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스테이크나 지역이나 지구의 창고 중 어디에서 봉사를 받든 감독은 이 평의회를 통하여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스테이크 및 지역 감독 평의회를 통하여 감독은 특정

개선 방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창고에 적절히 재고품을 보유하며, 품질 기준을 준수하며, 문제를 적절히 다루도록 또한 창고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평의회 의장은 감독들이 창고를 방문하도록 주선하여 창고의 기능에 익숙하게 하며, 창고가 세상적인 것에 관한 성전으로서 항상 취급되며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가 감독이 스테이크 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배부함에 있어 균등하게 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감독들이 창고에 관한 청지기의 임무가 있음을 뜻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은 경제 공황시에 파이오니아 스테이크 부장이었을 적에 복지 위원회를 조직하고 창고를 지으셨습니다. 완공 후에 건물을 헌납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모임에서 리 대관장님은 창고의 열쇠를 감독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창고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창고에 관한 청지기의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고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질이 좋은 일용품 공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관리할 청지기의 의무가 지워졌습니다.”

창고는 주님의 창고입니다. 창고는 감독이 궁핍한 자를 돌보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창고의 뜻입니다. 모든 창고는 궁핍한 자를 돌봄에 있어 감독의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성스러운 시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창고를 이용하시지 못하고 있으나 모든 감독은 일용품을 꺼낼 수 있는 창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합당한 신권 계통을 통하여 노력하고 또 복지 사업과에 알아보면 여러분의 지역에 창고를 설립함에 있어 도움과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태이크 감독 평의회 두번째 임무는 연간 일용품 생산 예산을 개발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일용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는 각 워드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복지 사업에 관한 스테이크모임

모임

목적

| | |
|---------------------|--------------------|
| 스테이크 복지 위원회 | 계획 훈련 및 전반적인 조정 |
| 스테이크 감독단 훈련모임 | 훈련 |
|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 운영—실무 |

위하여 소요될 그들이 예상하는 일용품에 관한 양을 배당합니다. 그 후 감독은 와드 회원이 각 사업에 봉사하며 작업에 관련된 봉사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작업 요청이 감독단에 전달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협의하고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에서 지명합니다. 정원회는 각 사업에 노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회 회원과 그들의 가족이 동원되도록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여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한 일용품이 생산됩니다.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의 세번째 책임은 생산 사업의 취득과 관리에 관하여 스테이크 부장단에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그것이 와드나 스테이크나 또는 지역 사업이거나 간에 적절한 사업과 생산품의 품질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산 사업에 관하여 감독 평의회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와드 회원이 제공해야 할 재정적 및 시간적인 봉사 할당량.
2. 그 사업은 회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3. 사업의 규모와 형태는 와드 회원에게 적절한 것인가?

스테이크 복지 사업 위원회는 지역의 기본 계획에 따라 생산 사업이 수립되도록 보살펴야 하는 일차적인 청지기 직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 평의회는 창고와 각종 생산 사업 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의 네번째 책임은 금식 헌금과 그 사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금식 헌금을 아낌없이 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의장과 평의회와 스테이크 부장단은 이 성스러운 기금의 헌금과 사용에 관련된 모든 원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모임은 이 프로그램이 적절히 실시되도록 확인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독은 헌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주님의 제도에서 헌금이 사용되기 전 항상 창고와 데저렛 산업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먼저 사용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번째의 책임은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는 회원들이 능력껏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 원리는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 일용할 양식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의회 의장

은 주님의 복지 계획의 이 부분이 어떻게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질 수 있는가 하는 훌륭한 모범에 관한 토의를 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감독 평의회의 여섯번째 책임은 복지 사업의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감독에게 훈련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감독의 출고증을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가족 자원을 평가하며 교회가 도움을 제공해야 할 범위를 아는가, 궁핍한 회원을 돕기 위하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금식 헌금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곳에서는 또한 감독은 고용 제도, 감독의 창고, 생산 및 가공 사업, 복지 사업, 선교사, 보건 자원, 말일성도 사회 사업 단체, 데저렛 산업에 관하여 상세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궁핍한 자를 도우에 있어서 이러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스테이크 부장단은 복지 사업의 원리를 가르칠 의무가 있으며, 감독들이 그것을 회원들에게 전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 노동과 독립, 청지기 직분과 헌납,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근검한 생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별의 왕국의 세상에서 해의 왕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회원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정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는 감독들이 스테이크 및 지역 복지 사업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토론 광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감독 평의회 의장은 복지 문제에 관하여 감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책임을 염두에 두면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의장은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 아래 각 스테이크 감독 평의회 모임을 뜻있는 의제로 쉽게 계획할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책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님의 창고가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2.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필요한 일용품 마련하기 위하여 연간 일용품 생산 예산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
3. 생산 사업의 취득 및 관리에 대

하여 스테이크 부장단에게 조언하고 권고한다.

4. 스테이크 부장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식의 법을 와드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한다.

5. 교회의 도움을 받는 회원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6. 복지 사업 원리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독을 훈련한다.

나는 복지 계획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보며 성장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친은 복지 사업이 시작될 즈음에 감독을 역임하였습니다. 부친은 자기의 교회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가족을 참여시킴에 있어 훌륭한 수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나는 교회 봉사가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부친이 궁핍한 자에게 보여 주셨던 위엄과 인내심을 기억합니다. 나는 특히 아내를 여의고 약간 정신 장애마저 가진 자그만한 늙은이를 기억합니다. 부친은 그분에 대하여 감독의 역할을 다했을 뿐 아니라 그의 친구 노릇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자그만한 늙은이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쓸쓸해지면 이분은 나의 부친을 만나러 왔습니다. 밤 열 시건 아침 다섯 시 반이건 상관치 않고 부친은 집안으로 반가이 맞아들이고 음식을 대접하며 그를 자동차에 태워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이 늙은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 준 것에 대한 최후의 감사의 말이 적힌 “나의 친구, 페리 감독님께”라고 쓴 편지를 읽으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친이 편지를 읽으실 때 두 뺨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에 따라 베푼 봉사의 대가를 처음 이해한 때가 바로 그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페리 감독에게 주님의 가장 좋은 축복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왕국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한 봉사에 대한 값진 보상을 받는 이러한 특별한 순간이 여러분이 받은 위대하고 숭고한 부름을 수행하는 데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행동에 옮기라는 권고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상호부조회 자매는 “자선적이고, 적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복지 사업에 관한 대관장단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원리를 행동에 옮기도록 강력한 권고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1976년 4월의 연차 대회의 복지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어 주어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누가복음 6:46)

금년 2월 2일의 교회 본부 복지 사업 위원회의 역사적인 모임에서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부터 대제사 그룹과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까지 모든 교회 회원은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또 가정과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지 원리와 절차를 시행하게끔 동기를 받도록 매우 쉽고 정확하고 영감에 찬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권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복지 사업

을 시행하고 실천하고 성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상호부조회 회원들의 극히 중요한 역할을 재평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주요한 사업에서 교회의 여성들이 신권을 가진 분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 도우며, 가르치고, 실천하고 일하는 위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어느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 책임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정기 주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에서 최근 남편을 잃은 나이 많은 한 미망인이 세상사와 대처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그녀의 다리를 알아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어 자신을 돌보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심히 외로웠고 내버려 둔 정원에 대하여 걱정하였습니다. 그녀가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가에 대해서도 걱정하였습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세 끼의 영양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 자매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가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방문 교사와 와드의 다른 자매에게 자선 봉사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복음 교사에게는 그녀가 그들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가를 그 자매에게 물어 볼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녀의 정원을 돌보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후에 축복과 사랑이 담긴 도움으로 그녀는 자립할 수 있는 용기와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가 와드 회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서로 협동할 것인가를 설명

해 줍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스테이크 및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 및 지부 회장단이 그들의 복지 의무를 더욱 잘 이해하며 그들의 복지 의무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다음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1. 필요와 자원을 결정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감독을 도운다.

2. 감독의 지명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고 보고한다.

3. 자선 봉사를 함께 있어 상호부조회 자원의 사용을 지시한다.

4. 방문 교사에게 그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지시한다.

5. 각 경우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 엄격히 비밀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장려한다.

6. 감독의 창고에 있는 일용품의 품목 또는 구입해야 할 상품의 품목을 파악하며 가정 주부에게 무엇을 구입하며 자기의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언한다.

7. 구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파악하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8. 자신의 보좌에게 그들의 복지 사업에 관한 의무에 대하여 상의한다.

9. 감독의 지시 아래 상호부조회에 지명된 모든 복지 활동을 협의한다.

상호부조회 회장들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그들은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와, 과부와 고아의 구제와 모든 자선 사업을 실행”(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4:567)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제시한 상호부조회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1946년 10월 복지 모임에서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은 봉사하면서 신권 지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부인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총명하고 영감에 찬 협동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 프로그램 중 상호부조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복지 사업의 협력을 계획함에 있어 그들이 총명한 협동자로서 초청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초청없이 또한 그러한 기회없이 결속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상호부조회 잡지, 1946년 12월호 814 페이지)

1976년 6월에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이 협동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을 당시 교회의 대관장에 의하여 특별한 책임이 부여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가사를 돌봄에 있어 남편과 협력하여 일하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신권의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1976년 6월 5일, 처치 뉴스, 3페이지)

복지 사업에 있어 멜기세덱 신권과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워드 역원의 적절한 훈련을 위한 계획 수립시 스테이크 단위 선에서 서로 협동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워드 단위에서는 워드 복지 사업 요원의 훈련과 프로그램의 실천시에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제 친구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이 말하기를 “제 처와 저는 집 앞을 돌로 장식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방을 다니며 돌을 실어올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트럭에 타려 했을 때 제 처가 저를 부르며 ‘저도 함께 가게 해 주세요. 당신을 도와 드리고 싶어요.’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곳에 갔을 때 돌이 언덕 위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을 굴러 내려야만 하겠는데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야’하고 제가 투덜대었습니다.

“제 처가 ‘제가 언덕 위에 올라가 당신 있는 데로 돌을 굴릴테니 당신은 그것들을 트럭에 갖다 싣기만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거 참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덕 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곧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첫번째 돌멩이를 굴러보내요. 또 다른 돌멩이를 보내요.’ 그리고 그녀는 ‘오, 이 돌은 참 예뻐요. 당신이 운반하는 데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굴러내리는 것은 무엇이나 운반하지’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 돌을 보세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돌을 굴러내립니다’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제가 이들 돌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있어서도 저희가 함께 노력한 많은 다른 사업처럼 그녀는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흔히 남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면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자매들, 특히 상호부조회 회장들이 복지 사업에 있어 신권을 가진 형제를 도우는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계 도처에 있는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 사업에 대하여 우리에게 부과한 임무를 수행하고 성취하라는 우리의 영감 받은 예언자들의 행동에의 부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협동의 원리를 기억하며 신권 지도자의 협력자로서 함께 일하기를 바랍니다. 복지 사업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며 이 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통찰력을 넓히면서 특히 이것을 자선 봉사에 적용시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구제 사업은 예술입니다. 또한 모든 헌신적인 상호부조회 봉사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상호부조회 잡지, 1961년 2월호 77페이지)

저는 모든 상호부조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의 정신으로 돌아가 궁핍한 자에게 자선적이고, 적절하고, 사랑이 넘친 도움을 주는 이 위대한 기회와 임무를 인식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요 13 : 3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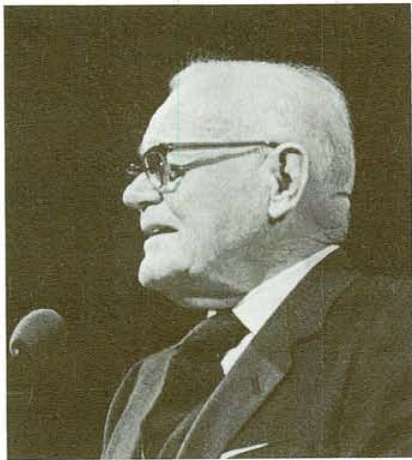
피아노 반주자 알렉산더 슈라이너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매리온 지 틸니
대관장단 제 2 보좌

현납의 법과 청지기 직분의 재수립이 위대한 교회 복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도록 저와 함께 기도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에서 들은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내가 드리는 말씀도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독과 지부장 여러분 각자가 교회 복지 사업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분을 도울 많은 자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들 많은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나는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헌신(그것이 시간이든, 일이든, 금전이든)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를 거룩하게 하며 고난을 구제함에 있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기쁘게 주님의 창고

의 역할과 생산 사업이 주님의 창고를 “식료품과 돈”으로 채우는 데 어떻게 이바지하였나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임에서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것인가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역점을 두겠습니다. 본인이 교회 복지 사업에 봉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나는 이 복지 사업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협동 교단에서 요구하는 현납의 법과 청지기 직분의 재수립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 있어서 위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협동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예녹의 백성 가운데 협동 교단을 세우셨으며 경전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 저들 산 위에서나 높은 곳에서도 복을 받아 번성하였더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7-18)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역시 계속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의로움 가운데 발전할 것입니다. 예언자가 “교회의 율법을 포함한”(교성 42, 요약) 것이라고 명시한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재물을 나의 교회의 감독과……대제사 앞에 바치라.

“이들 재물이 내 교회의 감독 앞에 바쳐진 다음……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수시로 나누어 주기 위해 간직해 둘 것이요,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충분히 지급되고 또 그 부족량에 따라 지급받게 할지이다.

“그러므로 잉여물은 나의 창고에 간직해 두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교성 42:30-34)

“나는 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를 행하노라.”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42:36)

예언자가 “교회의 율법”이라고 지정한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서는 인간 가운데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그분의 계획인 협동 교단의 본질을 계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한 것이며 인간은 그분에게 책임을 지는 청지기로서 지상의 소유물을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 주는”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펼치고 땅을……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교성 104:14-16)

그분이 정한 방식에는 두 개의 주요한 원리 즉 (1) 현납과 (2)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협동 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교회에 헌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양도함으로써 완전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헌납자는 교회로부터 관리할 몫을 받습니다. 이 관리할 몫은 그 목적이 “가족 수와 형편과 부족량과 필요량에 따라 각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몫을 배정”(교성 51 : 3)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헌납한 것보다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의 사유 재산을 소유하며 관리할 권리는 보호합니다. 참으로 이 체제의 근본적인 원리는 사유 재산의 개인 소유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몫을 소유하거나 상속하거나 관리하며 자의에 따라 그것을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협동 교단하의 생활은 공동 생활이 아니었으며 또한 예언자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결코 공동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개인이 자기 사유 재산을 자신과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생산하도록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협동 교단에 남아 있는 한 자기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자신의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남는 것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분이 창고에 들어가게 되며 그 관리권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곳에서 가난한 자의 필요를 위하여 공급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는 대단히 단순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 개념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분을 인류의 주이시며 협동 교단의 창시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의와 영적인 발전을 구합니다.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땅의 일에 평등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을 얻는 일에도 평등하게 될 수 없음이라.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련된 면류관을 얻고 많은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

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 하나님 곧... 시온의 거룩하신 이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78 : 6-7, 15)

2. 협동 교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증명된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행위로 시행됩니다.

3. 교리와 성약에 규정된 교회의 신념과 조화하여 재산에 대하여는 “정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 그 관리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등의 법률을 제정하며 이를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일지라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음을 믿는다.”(교성 134 : 2) 협동 교단은 개인 소유와 개인의 관리라는 원칙 위에 운영됩니다. 이리하여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에 있어서 협동 교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각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일과 생산성에 대하여 그 분께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산 자를 위하여 만들고 마련하여 준 세상의 축복을 관할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모든 사람에게 지우게 함은 필요한 일임이니라.”(교성 104 : 13)

여러분들은 이로써 클라크 부대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지방 자치제였던 적이 없으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지시하에서는 결코 지방 자치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동 교단은 지방 자치제도 아니었으며 공산주의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협동 교단은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물을 교회와 가난한 자를 부양하기 위한 헌납 제도를 가진 완전하고도 강력한 개인주의입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주님의 계시에 규정된 협동 교단과 헌납의 법”, 테저렛스의 교회판에서 복사한 기사, 1942 26-27 페이지)

4. 협동 교단은 비정치적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실제상으로 정치적인 사회주의의 각종 형태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이들 사회주의의 각종 형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으려 하며 모든 정부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파괴하려 합니다.

5. 협동 교단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의로운 사람들이 전체 조건이 됩니다.

6. 협동 교단은 가난한 자를 높이고 부자를 낮춥니다. 이 제도 아래서는 양자가 다 거룩하게 됩니다. 가난의 굴레와 굴욕적인 제한에서 해방된 가난한 자는 자유인으로서 그들의 세속적이거나 영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강제가 아닌 자유의지에 따라 기꺼이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잉여물을 헌납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물론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 : 47)으로 정의된 동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모로 7 : 48)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복지 사업에 관한 노력이 어떻게 협동 교단과 관계가 있으며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시온의 이상 모두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협동 교단에 따라 생활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중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지회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융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느니라.”(교성 105:3-5)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로들이 시온이 구축되는 날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며 나의 백성이 더욱 완전하게 배우며 경험을 쌓으며 저들의 의무와 내가 저들에게 요구한 일을 더욱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교성 105:9-10)

협동 교단의 완전한 실시는, 계시에 의하면, 시온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성 105 : 34 참조) 한편

우리가 보다 완전하게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얻게 됨에 따라 십일조, 금식 헌금, 복지 사업, 창고, 기타 원리와 실행 등과 같이 현재 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협동 교단의 원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협동 교단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컨대 십일조의 법은 헌납의 원리와 관리인의 직분을 이행하는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협동 교단의 실험이 중단된 후 사 년 후에 십일조의 법을 제정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잉여 재산을……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시었고 그 후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도록 요구하시었습니다. (교성 119 : 1, 4) 아직도 유효한 이 법은 협동 교단의 관리인의 임무를 최소한 어느 정도 이행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의 법은 사람이 자신과 그 가족의 필요를 위한 생산 수단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는 각 사람의 손에 두는 것입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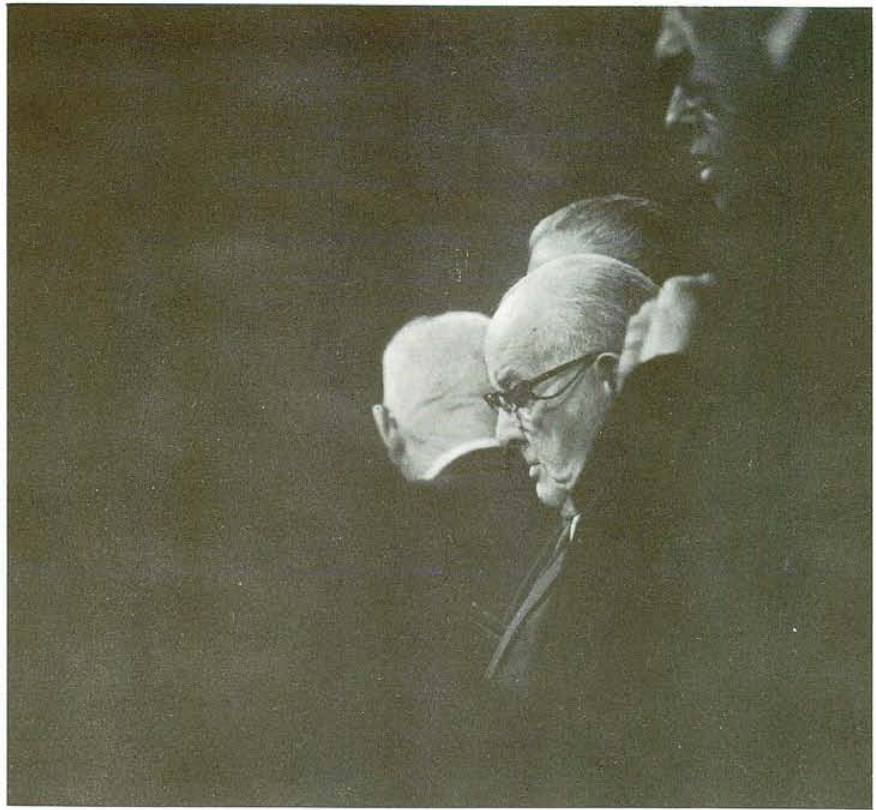
“협동 교단하에 수집되고 모으는 잔여 재산과 잉여를 대신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활동과 사업을 이행하는 데 사용되고 우리의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하여 사용될 금식 헌금과 복지 기금과 십일조를 바칩니다.

“더우기 협동 교단하에서는 가난한 자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기 위한 필수품을 수집해 놓는 감독의 창고가 있었으며 복지 계획 아래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감독의 창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 계획 아래서 교회 전체에 가난한 자의 유익을 위한……사업과……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많은 위대한 본질 가운데 복지 계획에 협동 교단의 광범한 본질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2년 10월, 57—58 페이지)

십일조와 금식의 원리가 합당하게 준수되고 복지 계획이 완전히 발전되어 온전히 운영되면 분명 “협동 교단의 위대한 원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 별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같은 책, 57페이지) 여러분과 내게 있어 유일한 제한 요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음과 같은 3 개 항목으로 요약하겠습니다.

1.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헌납의 성약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1976년 6월호 엔사인에 실은 킴블 대관장님의 말씀에는 우리들의 잉여품 또는 잔여품이 얼마인가를 비교하여 우리들의 정당한 필수품과 욕망이 얼마일까를 검토해보도록 격려하시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고 행복한(그러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세속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는 충분한 돈, 주식, 공채, 투자, 부동산, 신용 구입권, 비품, 자동차 등등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가정과 정원회에 있는 이러한 수많은 자원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선교 사업과 계보 사업과 신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한 우리 자녀를 수님께 유익한 종이 되도록 양육하며, 다른 사람도 역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여러 면에서 그들을 돕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들은 이들 축복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만 소비합니다. 모로나이가 말

한 바와 같이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며 보려고도 하지 않느냐?”(골 8 : 39).

“오늘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들이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교성 1 : 16)” (1976년 6월호, 엔사인, 4—5 페이지)

2. 우리가 본 대회를 통하여 듣게 된 말씀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지 사업 특히 주님의 창고 설립의 각 면에 대하여 영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하도록 기도합니다.

3. 십일조와 금식 헌금과 복지 기금의 헌납 원리를 충실히 지키므로써 시온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협동 교단의 원리에 따라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엔 윌슨 터너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펜서 더블류 킴 부대관장



메리온 지 로니 부대관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매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앨버트 엘 스테이볼러



리그랜드 리처즈



하워드 더블류 닐러



고든 비 힝클러



토머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케이 앤더슨



브루스 램 맥콘키



앵젤로 헤커



메시럴드 비 페티트

교회 추부사



엘드리드 제 스미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프랭클린 더 리차즈



제임스 이 파우스트



케이 토마스 파이인스



에이 디어더어 터블



닐 데이 맥스웰



매리온 더 웡스



폴 에이치 딘



디어더어 램 바튼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존 에이치 반넨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레슬리 스토운



다블류 그랜트 뱅저터



로버트 더 헤일즈

칠십인 제일 정원회



알마 쇼니



스티얼링 더블류실



벤리 더 베일러



조셉 비 워스린



에스 린워스 영



하트만 맥터 이세



포렌 시 더인



맥스 더 피버가



진 알록



찰스 에이 더메이



윌리엄 알 프레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에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바그



제이콥 티오거



본 제이 페더스토운



딘 엘 라슨



로이슨 지 배락



로버트 이 웰즈



지 호머 더런



제임스 엠 패러모어



리차드 지 스코트

판리 감독단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1보좌



빅터 엘 그라운
판리 감독



제이 리저드 콜라크
제2보좌

